

M46-7-3/2005.10

제7권 제3호/Vol. 7 No. 3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70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지인배 jjinbae@krei.re.kr	02-3299-4324
이정연 sabrina@krei.re.kr	02-3299-4370

목 차

□ 포커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의미와 과제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20 | 6. 농업 기반 / 58 |
| 2. 벼농사 / 28 | 7. 산 림 / 67 |
| 3. 축 산 / 42 | 8. 농촌지원사업 / 70 |
| 4. 감자농사 / 50 | 9. 기타 작물 / 72 |
| 5. 이모작 / 55 | 10. 기타 보도 동향 /84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09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9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120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21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62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62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68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85

포 커 스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의미와 과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의미와 과제

김 영 훈

(연구위원, kyhoon@krei.re.kr)

남북한은 지난 8.18-19일 개성에서 개최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5개 분야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합의된 사업은 협동농장 협력, 농업과학기술 교류, 종자부문 협력, 산림자원 보호 협력, 축산·과수·채소·잡곡·특용작물 분야 협력 등이다.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우선 이번 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개별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향후 남북 농업협력의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농업협력위원회 체제가 갖는 의미이다.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측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농업협력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농업협력사업은 안정적, 체계적, 지속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양측 당국의 통합된 관리 속에서 효율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그 성과 축적이 기대된다.

두 번째는 농업협력의 확대 가능성이다. 이번 회담으로 남북 당국간 협력관계는 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농업협력위원회가 양립하는 체제로 구축되었다. 농업협력의 위상 제고는 농업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체제가 남북 농업협력 방식의 전환을 예고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농업기반 조성 과 농업구조 개선에 비중을 두어 궁극적으로 북한 농업의 자활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새로운 남북농업협력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목표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협력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은 당면한 중대과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애써 구축한 당국간 협력체제가 무색하게 된다. 남북농업협력 발전에 장애요소와 촉진요소를 미리 검토하여 준비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작업이다.

2.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논의 및 합의 내용

2.1. 제1차 회의 개요

남북 양측은 2005년 8.18~19일 양일간 개성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각각 제안한 농업협력과제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5개 농업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2.2. 주요 논의 내용

남북한 양측은 각자가 제시할 농업협력 의제를 회의 개최 수일 전에 미리 교환함으로써 협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미리 교환한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했다. 이러한 회의 방식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도 영향을 끼쳐 남북한 회담의 추진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남측이 당초 제안한 의제는 공동시범영농단지 조성·운영 협력사업, 산림녹화 시범협력사업, 농업전문인력 및 기술교류 협력사업, 상호 보완적 협력사업 추진 등이며, 북측이 제안한 의제는 종자생산·가공·보관시설의 현대화 및 육묘공업화를 위한 협력사업, 비료·농약·농기계·사료 생산 분야 협력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남북 양측이 제안한 농업협력 의제에는 약간의 쟁점 사항은 있었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다. 종자, 비료, 농기계, 농약, 사료 등 농업기자재 지원과 농업과학기술 및 전문가 교류는 양측이 제안한 협력과제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또 남측은 산림녹화를 위한 시범협력사업을 제안하고 북측은 종자생산·처리시설과 육묘생산시설 협력을 요청하여 큰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남측은 농업협력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대부분의 시범협력사업을 공동시범영농단지 내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 한 반면, 북측은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채 기술교류와 물자지원을 강조한 차이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정된 협동농장에서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협력을 확대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양측 간에 논란이 된 농업협력 접근방식의 차이를 다소 좁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 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해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 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한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 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농림부 차관 이명수

북남농업협력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부상 문응조

2.3.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주요 합의 내용

2.3.1.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협력

협동농장 협력사업은 북측 지역의 몇 개 협동농장을 시범협력농장으로 선정하여 기반 조성 및 운영을 집중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다. 이 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농장 단위의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농업협력을 확산시켜 북측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협력사업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함께 북측과의 합의시 관련된 합의사항을 고려하면 협동농장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선정된 협동농장에 농용기자재, 농업기술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농장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유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 평가를 바탕으로 농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로 농업전문가 교류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업들을 매개로 이루어져 효과적이다. 북측은 남측 농업전문가의 협력농장 방문과 교류를 최대한 보장하여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셋째, 협력농장에서 축산부문의 협력사업이 추진된다면 농축 복합영농을 통해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업 초기에는 배합사료 지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3.2. 농업과학기술·인력 교류 및 종자생산·처리 지원 협력

농업과학기술 교류는 남북의 농업기술을 접목하여 보완·발전시키고, 연구 및 생산현장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려는 협력사업이다. 이 교류협력사업은 남측의 농촌진흥청과 북측의 농업과학원 사이의 과학기술·전문가 교류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번에 합의된 협동농장 협력사업의 농업기술 교류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우량종자 생산·가공·처리 분야의 협력은 ‘종자혁명’이라고까지 명명된 북측 농업의 종자부족 문제 해결 노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자의 생산뿐만 아니라 정선과 처리 등의 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의 우량종자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2.3.3. 산림자원 보호 협력

이 협력사업은 북한 지역에 양묘장 2개소(동부, 서부)를 복구 혹은 조성하여 황폐산림 복구와 녹화에 필요한 묘목을 생산·공급토록 하는 한편, 산림병충해 방제가 필요한 지역에서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북한 산림의 황폐화와 병해충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2개 양묘장이 현대적으로 조성될 경우 공급 가능한 묘목은 연간 1,100만 주에 달

할 것으로 추정(1998년 UNDP조사 기준)되며, 이는 매년 4,500ha의 황폐산림을 복구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접경지역의 공동방제사업은 우선 금강산 지역을 협력대상지로 잡고 있다. 이 사업은 통해 금강산의 생태환경 및 관광자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국경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2.3.4. 축산·과수·채소·잡업·특용작물 분야 협력사업 발전

이는 다양한 농업 부문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노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협동농장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2.3.5. 협력사업별 실무접촉 추진

필요한 시기에 각각의 사안별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해 향후 전개될 협력사업을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합의된 협력사업별로 실무접촉이 시작되면 합의문 상에 남아있는 불명확한 부분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의 의미

3.1. 당국간 농업협력 채널 구축

가장 먼저 남북 양측의 책임 있는 당국간에 농업협력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당국간의 접촉 없이 민간지원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당국 차원의 농업협력이 제한되었던 시기에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활동은 중요한 접촉 경로의 기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협력사업 측면에서는 선구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농업협력사업은 추진 목표가 불분명한 사례가 있으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속성이 취약한 사례가 많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한 당국간 농업협력 채널 구축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향후 전개될 농업협력사업이 안정적, 체계적, 지속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다. 둘째, 양측 당국의 통합된 관리 속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력과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으며 협력성과 축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2. 남북농업협력의 확대 가능성

남북회담 체계는 장관급회담 산하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외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어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양 협력위원회가 동

일한 위상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남북농업협력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설치의 장래의 남북농업협력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추진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3.3. 농업 분야 대북 지원 및 협력 방식 전환

지금까지 농업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비료 등 단순 물자지원에 그쳤다.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역시 인도적 지원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북측 농장에 농업기자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체제는 중장기적으로 대북 농업협력 방식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시범협력사업을 통해 협력확대 가능성을 높이며 북한의 농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농업의 자활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새로운 남북농업협력 체제의 목표이다.

3.4. 시범사업을 통한 농업협력의 단계적 접근

현재 남북한 간에는 경제체제, 농업정책, 농업구조, 농업 생산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차이점을 극복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번 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력사업들도 시범사업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범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장애 인지와 해결책 모색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을 통해 남북농업협력 확대와 공동 농업발전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해소책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협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이는 장차 보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 농업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셋째, 협력 및 발전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남북 당국자 차원의 시범농업협력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남북농업협력의 향후 발전모형 구축하여 본격 협력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북농업협력 발전을 위한 과제

당면 과제는 실무접촉과 협력사업 시행을 세밀히 준비하고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애써 구축한 당국간 협력 체제가 무색해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농업협력을 확대하고 공동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4.1. 당면 과제

당면 과제는 합의된 농업협력사업별로 실무접촉과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의된 협력사업의 구분과 준비, 협력사업의 규모와 목표 재정비,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실시 주체의 선정 등이 있다.

우선 협력사업을 그 성격별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각 협력사업은 다른 사업과 연계됨이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 협동농장 협력사업과 연계해 그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협동농장 협력사업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가급적 농장 협력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 협력사업별로 추진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추진할 협력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시급성에서의 우선순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북한측의 적극성에 따른 추진 가능성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또 협력사업별로 농업기자재 지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기술 및 인적교류가 우선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사항별로 협력사업을 구분하고 그 성격에 맞게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협력사업별로 적정한 규모와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서 목표는 협력 상대방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협력사업의 규모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각 협력사업별로 추진주체가 빨리 선정되어야 한다. 협력사업은 남북간에 실무협의를 거친 후 실행단계에 들어간다. 따라서 실무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이 작업은 실무협의 및 사업시행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작업이 각 협력사업 추진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이다.

4.2. 중장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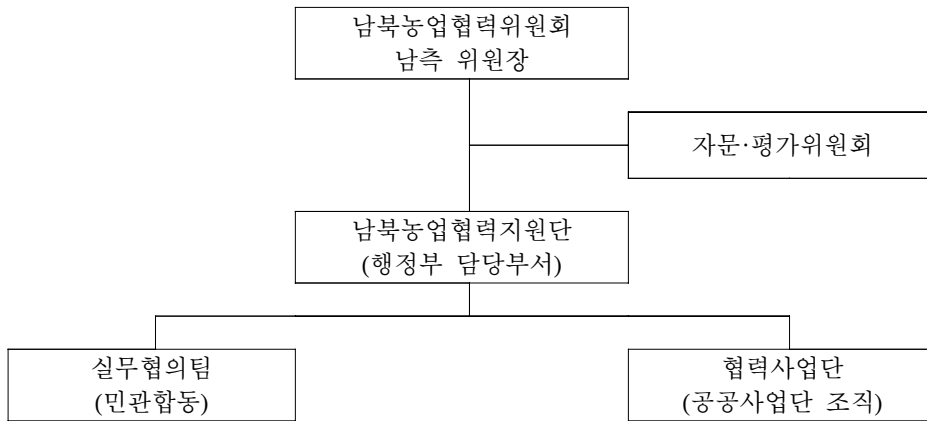
4.2.1. 농업협력사업 추진의 조직화·체계화

향후 남북농업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한 부분을 든다면 조직화 수준이다. 지금까지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단순 물자지원이나 민간단체 기금지원에 큰 비중이 있었다. 이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조직, 사업추진조직, 사업추진체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농업협력위원회 체제에서는 정부 주도로 남북농업협력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조직화와 체계화가 요구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내 협력사업 지원 담당 부서 설치: 행정 지원, 계획, 감독
- 정부 중심의 실무협의팀 구성: 북측과 협력사업별로 실무접촉 담당

- 협력사업단 설치: 농업협력사업 시행
- 자문단 구성 및 자문체계 구축: 사업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자문
-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구축: 사업계획 및 성과의 측정과 평가

그림 2. 농업협력사업의 체계화 과제



※ 협력사업시행자가 민간지원단체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4.2.2. 남북농업협력 종합계획 수립 검토

< 기본입장 >

현재 북한의 농업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농업구조의 후진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농촌인구 및 농림어업의 비중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년 이상 뚜렷한 개선이 없다. 둘째, 낙후된 농업기반이 방치되고 있다. 비료, 농기구·기계, 에너지, 농용자재의 공급이 부족하고(표 2), 저수지, 관개시설이 파괴되거나 낙후되어 있으며 산림훼손으로 재해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셋째, 식량부족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경제는 ‘개혁회피와 자본부족의 함정’에 빠져있어 현 상황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농업부문의 회생은 쉽지 않다. 북한농업 회생의 필요조건은 첫째, 북한 내부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개혁과 둘째, 국제사회(남한 포함)의 대규모 자본지원(big-push assistance)이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다. 개혁 없는 자본지원은 효율이 매우 낮고 자본 없는 개혁은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1. 남북한 농가인구 비중 비교

	남한		북한		남/북 (배)
	농가인구(천명)	비중(%)	농가인구	비중	
1965	15,812	55.1	4,999	40.8	3.2
1995	4,851	10.8	7,863	36.5	0.6
2003	3,530	7.4	8,288	36.8	0.4

자료: 통일부, 통계청

표 2. 북한의 연간 농업 투입기자재 부족량

구분	단위	소요량	공급량	부족량
비료	성분량 천톤	583 (100.0)	199 (34.1)	384 (65.9)
농약	천톤	21 (100.0)	3.1 (14.8)	14.7 (85.2)
연료	경유 천ℓ	156,972 (100.0)	32,493 (20.7)	124,479 (79.3)

주: 비료는 1999년, 농약 및 연료는 1998년 기준

자료: UNDP

표 3. 북한 식량수급 현황(천톤)

양곡연도	1996/97	1998/99	2000/01	2002/03	2004/05
국내 공급량	2,995	3,481	2,573	3,840	4,235
생산	2,837	3,481	2,573	3,840	4,235
이입	158	N/A	N/A	N/A	N/A
소요량	5,359	4,835	4,769	4,921	5,132
식용	3,798	3,925	3,871	3,893	3,959
사료용	600	300	300	178	181
기타	961	610	598	851	992
부족량	2,364	1,354	2,196	1,084	897
상업적 수입	500	300	100	100	100
지원	660	840	1,532	300	300
절대부족량	1,204	214	564	684	497

자료 : FAO/WFP

실제로 북한은 농업생산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개혁을 시도한 바 있는데 자본제약으로 인해 성과가 없었으며 농업복구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 노력(AREP계획, 1998~)은 개혁의 낮은 진척도에 기인하는 제도제약으로 인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북한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개혁·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토대 위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자본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농업문제 해소와 동시에 농업발전이 가능해진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체제 하의 시범적

농업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북한 농업부문의 개혁·개방 노력이 가시화되면 장기적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종합적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농업협력종합계획의 구성 >

종합계획은 우선 남북실무협의회를 열어 북한이 효과적인 농업복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농림업 통계자료의 정비와 현황 조사, 북한 농업복구개발계획 및 자본조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과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북한 농업복구개발계획의 주요 구성요소는 AREP(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998-)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북한의 AREP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농업을 복구하여 기본적인 식량 소요량 450만톤(조곡 600만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수립한 농림업부문 복구개발계획이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농업기자재의 충분한 공급, 갱신시기가 경과되었거나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업 생산기반 복구, 매년 자연재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훼손된 산림의 복구와 정비, 연구·개발 및 농업관리능력 제고 등에 두고 있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필요로 한 바 있다.

표 4. 북한 농업복구개발계획의 주요 구성요소와 지원 수요

하위프로그램	지원수요
투입요소조달 프로그램	화학비료 및 유기비료 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에너지 기타 농업용 자재 비료공장 재가동
농업기반복구 프로그램	재해피해 농지 복구 재해피해 방조제 복구 관개용 시설 및 파이프 교체 간이 양수기세트 도입
산림복구 프로그램	재해피해 양묘장 복구 및 운영 산림복구 및 보호 임산연료 관련 조사·연구·훈련 자연자원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능력제고 프로그램	종자, 생물농약, 유기비료 생산 기계화 서비스 능력 제고 농업연구개발 농업관리, 농장관리 등 관리능력 제고
기 타	목표생산량 도달까지 식량 지원

< 농업협력종합계획에 의거한 협력사업 >

북한의 농업복구개발계획을 남북농업협력종합계획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원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유무상원조 추진에 합당한 대북지원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 체계는 공적개발원조체계와 경제개발협력기금지원체계를 참고하여 수립될 수 있다.

우선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의 대북지원체계에 해당되는 사업은 농업복구개발계획 지원에 포함된 개발조사사업, 물자지원사업, 기술지원사업, Food for Work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방식의 대북차관지원체계에 해당되는 사업은 양잠, 수입농산물 재배 농장, 축산농장 등 계약재배 혹은 상업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단위농장개발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다.

표 5. 적용 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종류

종 류	내 용
개발조사사업	타당성조사, 설계, 계획 등 수립 지원
물자 공여	복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공여
기술 지원	개발경험과 전문지식 전수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지원
Food-for-Work	농업 및 산림기반 복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식량 지원

표 6. 적용 가능한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의 종류

종 류	내 용
개발사업 차관	시설물건축, 물자공여, 전문가파견 및 초청 등 개별사업 요소가 연계된 사업
기자재 차관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
기금전대차관	농장 및 농가 직접 지원, 농업금융의 육성 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차원에서 농업협력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가 있다. 정치·외교적으로는 남북한간 현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장관급회담 등 보다 높은 차원의 남북대화채널에서 종합적인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합의되어야 한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는 상위 대화채널의 위임을 받아 협력사업 분야에 관해 단계적으로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표 7). 또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협의 개시와 동시에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담당할 기구의 발족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기구 발족은 KOICA(한국), JICA(일본), USAID(미국)를 참조하여 준비할 수 있다.

표 7. 단계별 주요 협의대상 사업

시 기	주요 협의대상 사업
시범사업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실무협의회(혹은 소위원회) 구성 - 북측 농업현황 제시와 설명 - 북측 농업부문의 목표와 지원요청사항 제시 - 공동농업조사 및 통계정비사업 실시
시범사업 종료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복구개발계획 수립 협력 - 내부자원 조달계획, 해외자본 조달계획, 남북협력계획 수립 - 남북 양측의 의무사항 합의

동향 분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축산
4. 감자농사
5. 이모작
6. 농업기반
7. 산림
8. 농촌지원사업
9. 기타작물
10. 기타 보도 동향

* 북한의 주요 신문인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과 <민주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의 농업관련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동향분석 요약

지인배

(전문연구원, jjinbae@krei.re.kr)

북한은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의 중요한 전선'이라는 구호아래 올해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정하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 동원하고 있다. 농업 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을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대외관계에서 민족적 자존심과 존엄을 지켜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농업정책으로 가을 수확기를 맞아 북한 전역에서는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탈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농업성은 올해농사 마무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가을걷이와 낱알탈기에 필요한 일손과 기계수단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평양시 락랑구역 두단오리공장,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 자강도 강계오리공장 등의 개건현대화공사 과정을 집중보도 하고 있다.

감자농사와 관련하여서는 감자농사의 중심지인 량강도 대흥단군을 비롯한 각지에서 감자수확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백마-철산물길은 공사시작 2년 만인 9월 10일 시험통수가 진행되었으며 시험통수를 하는 기간 수백리에 달하는 흙물길과 각종 구조물들은 문제가 없었고 백마저수지에 찬 물이 물길의 시작점인 취수구로부터 종착점인 철산군 선주리와 룡천군 덕흥리까지 전기의 도움없이 자연흐름 그대로 흘러 시험통수는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먹는 기름문제를 해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채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채기름은 비타민이 많고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먹는 기름으로 널리 이용되며 비누, 안료 등 경공업제품과 의약품 원료, 기계기름으로 쓰이는 등 이용가치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양어부문에서는 메기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메기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사료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메기공장이 위치한 시, 군의 농·목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부산물과 동서해안의 수산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어분을 메기공장에 보내주도록 하고 있다.

1. 농업정책

- 북한은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의 중요한 전선’이라는 구호아래 올해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정하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고 있음. 농업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며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함. 또한 현 시기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은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식량을 자급자족하여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민족적 자존심과 존엄을 지켜 나가자고 함.

- ‘빨로써 선군조국을 받드는 애국농민이 되자’를 계재(민주조선 8. 4)
 -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는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식량증산으로 당과 사회주의를 만드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이 될 것을 호소하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애국적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투쟁에 나서야 함.
 -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바탕하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무조건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해야 함. 당면하여 불리한 기후조건과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맞게 물관리와 장마철 피해 예방사업을 비롯한 농작물 비배관리를 잘해 나가야 함.
 - 집단주의정신을 토대로 사회주의 집단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여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분조농사는 나의 농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모든 농사일을 해야 함.
 -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농업부문 일군들은 영농공정과 농작물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 요구를 정확히 알려주고 농사에 대한 기술보장대책을 세워야 함.
 -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야 함. 실리주의원칙에서 영농자재와 물자들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동원이용하고 개천-대성호물길을 비롯한 관개체계들과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모든 기계설비들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3)
- 사회주의농촌경리는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인 경제형태임.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발휘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집단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음. 농업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고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결합되며 국가가 협동농장의 생산경영활동과 협동농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무엇보다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농업생산을 성과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음. 또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농촌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도시의 지원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음.
-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의 중요한 전선’이라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9. 15)
- 우리 당은 올해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정하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고 있음. 오늘 우리나라에서 농업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며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기 위해서도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야 함.
 - 양곡문제는 곧 정치문제임.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풀어나가야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일심단결의 위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음.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반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관건적 고리임. 또한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하는 것은 중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절실한 문제임.
 - 현 시기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은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도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음.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여야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울 수 있고 민족적 자존심과 존엄도 지킬 수 있음. 우리는 누구나 다 농업전선의 중요성과 의의를 체득하고 당의 부름에 따라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전투에 적극 나섬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함.

○ ‘모든 힘을 가을걷이전투에 총집중, 총동원하자’를 게재(로동신문 9. 20)

- 우리는 총집중, 총동원의 위력으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힘있게 벌려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해야 함. 가을걷이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것은 곡식이 익는대로 제때에 거두어 들이는 것임.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포전별 실태를 잘 알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곡식을 베며 특히 강냉이는 베는대로 이삭을 따들이도록 해야 함.
-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올해 농업생산의 성과가 당면한 가을걷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을걷이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함. 농촌당조직들은 선전선동역량을 가을걷이작업장에 총집중하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집단적 혁신으로 불려 일으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다그쳐 끝내야 함.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일정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지휘사업을 잘해야 함. 협동농장 일군들은 여러 가지 수확기와 트랙터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며 벼, 강냉이, 감자수확기를 다루는 운전공의 역할을 높이고 부속품 공급사업과 현장이동수리를 잘하여 농기계의 가동률을 보장해야 함.
- 모든 협동농장들은 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실어들이는 곡식을 제때에 탈곡하는 동시에 이동식탈곡기를 이용하여 벼를 베어내는 대로 현장에서 털어냄으로써 낱알털기속도를 높이며 털어낸 낱알을 허실없이 보관하도록 해야 함.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봄철영농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원사업의 앞장에 서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가을걷이전투를 로력적,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해야 함.

○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를 게재(민주조선 9. 20)

- 우리는 총집중, 총동원의 위력으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힘있게 벌려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해야 함. 가을걷이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것은 곡식이 익는대로 제때에 거두어 들이는 것임.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포전별 실태를 잘 알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곡식을 베며 특히 강냉이는 베는대로 이삭을 따들이도록 해야 함.
-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올해 농업생산의 성과가 당면한 가을걷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가을걷이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함. 농촌당조직들은 선전선동역량을 가을걷이작업장에 총집중하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집단적 혁신으로 불려 일으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다그쳐 끝내야 함.

- 농촌경리부문 일꾼들은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일정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지휘사업을 잘해야 함. 협동농장 일꾼들은 여러 가지 수확기와 트랙터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며 벼, 강냉이, 감자수확기를 다루는 운전공의 역할을 높이고 부속품 공급사업과 현장이동수리를 잘하여 농기계의 가동률을 보장해야 함.
- 모든 협동농장들은 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실어들이 곡식을 제때에 탈곡하는 동시에 이동식탈곡기를 이용하여 벼를 베어내는 대로 현장에서 털어냄으로써 낱알털기속도를 높이며 털어낸 낱알을 허실없이 보관하도록 해야 함. 각급 당조직들과 일꾼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과 정무원들은 봄철영농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원사업의 앞장에 서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가을걷이전투를 로력적,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해야 함.

○ 지상연단 ‘농업정책관철의 길에서’를 게재(민주조선 9. 22)

평안남도농촌경리위원회 정형찬 부위원장

- 평안남도는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 관철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음.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 농작물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고 영농물자와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일꾼들이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여 장마철 피해 예방을 위한 물길정리를 짧은 기간에 끝낸데 이어 폭우 피해를 입은 물길 정비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도내 농촌들은 가을걷이에 돌입하여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던 가운데 시, 군들은 가을걷이를 높은 속도로 다그치고 있음.

평안북도 운전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리영호 위원장

- 평안북도 운전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새로운 논벼재배방법 도입에 따른 경험 부족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꾼들을 협동벌에 보내 논벼있새며, 가지수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포전마다 시비 적기를 정해주고 생육단계에 맞게 비료를 과학기술적으로 주도록 하였음.
-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 대한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마지막날까지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해나갈 것임.

함경남도 단천시 령산협동농장 리국섭 관리위원장

- 함경남도 단천시 령산협동농장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논밭김매기를 비롯한 영농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 농장은 올해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당면한 사업에서도 수리분조와 연계하여 탈곡장과 운반수단, 중소농기구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벼가을에 돌입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한 당의 의도를 관철해나가고 있음.

○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가을걷이를 전격적으로 다그치자’를 게재(로동신문 9. 23)

- 지금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가을걷이를 전격적으로 다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가을걷이를 전격적으로 다그쳐 빨리 끝내는 것은 낱알의 허실을 줄이는데서도 매우 중요함. 가을걷이에 동원된 모든 단위들은 인민군대처럼 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총집중하여 올해 가을걷이작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해야 함.
- 가을걷이를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잘해나가야 함. 리당비서,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협동농장의 모든 일군들은 포전별, 품종별 곡식들의 여문 정도를 파악한 뒤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세우고 일손과 기계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강냉이와 벼를 익는 대로 제때에 가을하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벼수확기를 비롯한 기계수단들의 이용률을 높여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해야 함.
-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휘해야 함.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고 군인들과 서로 힘을 합쳐 가을걷이를 다그쳐야 함. 군당위원회와 리당위원회를 비롯한 당조직들은 화선식 포전집중정치사업을 전개하며 우수한 단위들의 모범을 일반화하여 가을걷이를 전격적으로 벌려나가야 함.

○ ‘농사일의 주인’이라는 글을 게재(민주조선 9. 27)

- 한해농사를 마감하는 시기인 지금,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책임적으로 주인답게 해나가야 함.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각도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정권기관들은 모내기 때처럼 농촌지원사업을 잘하여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해야 함. 가을걷이에 필요한 노력과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며 운반수단들과 탈곡기들이 만가동될 수 있도록 농장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함.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성과적으로 끝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라는 글을 게재(민주조선 9. 28)

- 지금 우리 앞에는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올해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음.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려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민적 자각을 안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 기일 내에 질적으로 끝내야 함. 모든 부문, 단위에서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또한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주인이라는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야 함.
- 가을철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할 때 올해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음. 농촌들은 일정계획대로 가을걷이에 노력과 운반수단을 총집중하고 낱알털기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낱알보관과 관리를 잘해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은 노력과 설비를 기동적으로 조절하여 모든 영농공정에서 높은 속도와 질이 보장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은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성과적으로 하여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임.

□ 김정일은 종자혁명방침과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 감자농사혁명방침, 이모작농사방침, 영농방법 개선 과업,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 과업, 과일생산과 기름생산증산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 김정일 현지지도

○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시찰하였다고 보도(로동신문 9. 1, 민주조선 9. 1)

-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시찰하였음. 김정일은 농장의 종업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에 따라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좋은 작황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최근 연간 알곡생산을 계통적으로 늘리고 나라의 농업을 과학화하는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채종체계를 확립하고 각 지방,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량품종의 종자를 생산보장하며 새로 육종한 품종을 농업생산에 제때에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김정일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적지적작의 원칙에 따라 각 지방, 농장에서 지대적 특성과 토양조건에서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는 알맞은 작물과 품종을 배치해야 함. 또한 적기적작의 원칙 하에 해마다 영농준비를 제때에 철저히 하고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해야 함.
 - 김정일은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은 최근 연간 대홍단군, 삼지연군을 비롯한 고산지대의 감자농사에서 거둔 성과에 기초해 백암군을 비롯한 감자적지들에서 현대적인 감자농장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가르침을 주었음.
 - 그 밖에도 김정일은 이모작농사를 잘할데 대한 과업, 영농방법을 개선할데 대한 과업,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과업, 과일생산과 기름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 김정일의 황해북도 미루벌 현지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6, 민주조선 9. 6)
- 김정일이 황해북도 미루벌을 현지도하하였음. 김정일은 미루벌에 건립된 김일성의 현지도사적비를 돌아보면서 농장의 발전연혁을 들은 뒤 농업근로자들이 밭벼, 수수, 강냉이, 고구마 등 여러 가지 작물농사에서 좋은 작황을 거둔 것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일은 농장포전을 돌아본 다음 현지에서 미루벌을 현대적인 알곡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데 지침이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은 미루벌의 농장들에서 시험포전을 이용하여 작물재배시험과 지대적 특성에 맞는 경작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 이와 함께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한데 이어 미루벌의 지력을 더욱 높일데 대한 과업도 제시하였음. 김정일은 미루벌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과 농업생산에서 우리 당의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과업도 제시하였음.
- 김정일의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8, 민주조선 9. 18)

- 김정일이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였음. 김정일은 기업소의 연혁소개실을 돌아보고 합성직장, 비누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을 살펴면서 기술개선 및 생산 실태를 파악하였음. 김정일은 흥남의 노동계급이 농업전선에 많은 화학비료를 생산보장함으로써 나라의 농업발전과 자립적 민족경제를 다지는데 기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농촌에 여러 가지 비료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공정을 최신설비들로 장비하기 위한 기술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정일은 기업소의 지도일군들이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정치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황해북도 미루벌의 김정일 현지말씀 결사관철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3)
-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당조직의 지도 하에 김정일이 현지지도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기술자, 설계가들은 리상-미루벌물길공사와 토지정리를 최단기간 내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안 완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벌 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낼 목표를 세우고 가을걷이와 탈곡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3)
-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은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생산능력 확장에 힘을 쏟고 있음. 황해북도 황주닭공장과 평안남도 안주닭공장은 기술규정대로 설비를 관리하면서 닭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평양시내 닭공장들은 수도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알과 고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과 평안북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을 비롯하여 대규모 염소목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량품종의 염소 마리수를 계속 늘리면서 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2. 벼농사

□ 농업성은 당조직의 지도 하에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올해 농사 결속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성은 일군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수확적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하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계획을 세우고, 가을걷이에 필요한 일손과 기계수단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재배 관리

○ 황해남도 장연군의 논물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16)

· 황해남도 장연군 광천, 학림협동농장은 일상적으로 논물온도를 측정하고 앞선 논물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산수, 명천협동농장은 논벼의 생육단계에 맞게 논물의 온도와 깊이를 보장하고 있음.

○ 평안남도 문덕군의 논물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21)

· 평안남도 문덕군은 장마철을 앞두고 포전별 특성에 맞게 논물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동사, 남이, 상팔협동농장은 여러 가지 물대기방법을 받아들여 논물온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어룡, 마산협동농장 등은 관개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물관리를 하고 있음.

○ 평양시 강남군의 농작물 비배관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30)

· 평양시 강남군은 논밭 김매기, 비료주기, 논물관리, 병충해 막기 등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군은 벼대벌레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과학원의 과학자를 초빙하여 현장강의를 진행하는 등 벼대벌레 피해방지대책을 세웠음. 이와 함께 날씨와 벼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관리를 잘하고 있음.

○ 평양시 순안구역의 벼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

· 평양시 순안구역은 개천-태성호물길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있음. 논물관리공들은 벼생육상태와 날씨조건에 맞게 물대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

음. 이와 함께 예찰예보사업을 강화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 병해충을 예방하고 있음.

- 함경남도 단천시 직절협동농장의 논물관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5)
 - 함경남도 단천시 직절협동농장은 논물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농장 일군들은 논물관리공들을 대상으로 앞선 논물관리방법을 지도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논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함경북도 김책시 동흥협동농장의 벼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8)
 - 함경북도 김책시 동흥협동농장 제2작업반 허광문 반장은 분조, 농장원별로 논두렁 관리구간을 정해주고 항시 논물온도와 깊이, 물의 증발량을 타산하고 있으며 병해충에 의한 피해막이대책도 제때에 세워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 재령군의 논물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9)
 - 황해남도 재령군은 논물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각 협동농장의 기술일군들이 변화하는 날씨조건에 맞게 논물관리를 해나가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논물관리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 잡아주는 한편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음.
- 평안남도 문덕군의 논물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8)
 - 평안남도 문덕군은 논벼 생육 후반기에 맞게 논물을 관리하고 있음. 립석, 남이협동농장을 비롯한 군내 협동농장들은 논벼의 생육단계에 맞게 논물온도와 깊이를 점검하고 있으며 물길과 논고 관리도 잘해나가고 있음.
- 농기계 및 부속품 생산·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은 가을걷이와 탈곡에 필요한 트랙터 부속품과 농기계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트랙터 부속품 생산은 1.5배, 각종 농기계 생산은 1.3배나 늘어났으며 수백 대의 이동식 소형탈곡기도 생산되고 있음.
- 가을걷이
 - 가을걷이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10)
 - 농업성은 가을걷이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성은 각 공장, 기업소들과 도농촌경리위원회들에 탈곡기, 트랙터 등 가을걷이에 필요한 물질적 준비를 갖추도록 계획

을 전달하였음. 이와 함께 농기계운영국, 자재국 등 관련 부서의 역할을 높여 가을걷이와 탈곡 준비에서 제기되는 기술보장대책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자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의 가을걷이 준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13)

- 평안북도 룡천군은 가을걷이 준비계획을 세우고 자재를 동원이용하여 농기구, 농기계 수리정비를 제때에 끝냈음. 룡연, 장산, 신암협동농장은 내부예비로 부속품을 마련하여 벼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두, 룡송, 인흥, 양서협동농장은 탈곡설비를 정비하고 달구지도 확보하였음.

○ 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0)

- 평안남도는 이동식 탈곡기, 수확기 등 농기계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숙천, 문덕, 평원군을 비롯한 각 시, 군들은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들과 연계하여 농촌 실정과 농사 조건에 맞는 농기계, 농기구들을 생산하거나 기존의 농기계들을 개조하고 있음.
- 황해북도 은파군 강안협동농장은 가을철에 수십 대의 트랙터를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수리정비대책을 세우는 한편 탈곡기를 정비하고 능률높은 <남농-1호>탈곡기를 제작하고 있음.
- 황해남도 농촌들은 가을걷이철을 앞두고 중소농기구 준비와 함께 강냉이 보관고 보수 및 건설, 강냉이 탈곡기 수리를 끝내고 트랙터 수리를 다그치고 있음.

○ 황해북도의 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1)

- 황해북도는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도는 가을걷이 준비사업으로 시, 군들과 협동농장에서 트랙터, 벼수확기, 탈곡기 등 농기계를 수리정비하고 탈곡장 준비도 빈틈없이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4)

- 황해남도 벽성군 농기계작업소는 부속품 가공시간을 줄이면서도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수백대의 트랙터를 수리한데 이어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
- 평안남도 남포시는 당면한 가을걷이와 탈곡을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한창임. 트랙터 가동 준비와 연결차들의 적재함을 늘리며 벼와 강냉이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정비하고 있음. 중소농기구 수리정비와 함께 강냉이 보관고와 탈곡장지붕 수리, 야외건조장 준비를 잘하여 비바람 피해도 예방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가마니, 마대와 같은 낱알포장용기들도 갖추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5)

- 함경남도는 콩농사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콩탈곡기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각 시, 군들은 콩밭면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콩탈곡기 생산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계획대로 콩탈곡기 제조 및 개조를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선천군 농기계작업소는 트랙터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한데 이어 각 협동농장 수리분조들도 벼종합탈곡기와 강냉이탈곡기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과 철관 등을 자체로 해결하는 등 가을걷이준비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남도 재령군농기구공장은 가을걷이철 전에 더 많은 벼탈곡기를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기 위해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능률높은 벼탈곡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평안북도 대관군의 가을걷이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6)

- 평안북도 대관군은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송광협동농장은 탈곡장과 탈곡기 준비에 힘을 쏟고 있으며 대관읍협동농장은 중소농기구와 탈곡기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있음. 평문협동농장을 비롯한 각 협동농장들은 곡식을 수확하는 대로 탈곡장에 실어들일 수 있도록 트랙터와 부림소를 비롯한 운반수단 준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6)

- 평안남도 안주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소형 이동식탈곡기와 새형의 밀폐식탈곡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협동농장들에서 탈곡기 및 트랙터 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 준비, 강냉이 보관고 수리와 전기선 설치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평안북도 염주군은 탈곡기와 트랙터를 비롯한 기계수단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내부예비로 동원하고 있으며 협동농장들은 습지대 논에서 벼단을 효

과적으로 실어들이 수 있도록 밭구를 만들고 있음.

- 황해남도 삼천군 추릉협동농장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면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를 계획대로 하고 있음. 기계화작업반과 수리분조는 탈곡기 수리정비를 잘 하고 콩탈곡기 제작에 힘을 쏟고 있으며 농산작업반은 탈곡기 수리정비와 함께 소농기구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황해남도 강령 농기구공장은 내부예비와 유희자재를 총동원하여 새형의 탈곡기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각 작업반들은 새로운 기술과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성과를 높이면서 탈곡기와 부속품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고 있음.
- 함경북도 명간군 청룡협동농장의 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8)
- 함경북도 명간군 청룡협동농장은 농기계와 중소농기구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해당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작업반들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수단의 가동률을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각종 운반수단도 확보하고 있음.
- 평안북도 운전군 송학협동농장의 가을걷이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9)
- 평안북도 운전군 송학협동농장은 지난해 추수철에 비가 내려 트랙터나 달구지 대신 밭구를 이용해 벧단을 운반한 경험을 가지고 올해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를 하면서 작업반 분조마다 밭구를 2대씩 마련하였음.
- 가을걷이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30)
- 평양시 만경대구역은 농기계와 농기구들, 탈곡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칠골농장을 시범단위로 정해 구역 내 협동농장들의 가을걷이 준비 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강남군, 강동군 농기계작업소는 트랙터를 비롯한 운전기재들을 수리정비하고 부속품을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들에 보내주고 있음.
 - 평안북도 신의주시, 운전군, 선천군은 부속품 생산을 앞세우면서 트랙터 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정주시, 광산군, 룡천군은 벧탈곡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능률적으로 갱신하면서 탈곡장도 만들고 있으며 녕변군, 동창군, 의주군은 소농기구를 갖추면서 강냉이보관고를 보수정비하고 있음.
- 함경남도 락원군의 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30)
- 함경남도 락원군 홍상협동농장은 분조별, 작업반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면서 트랙터 연결차와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들과 중소농기구 수리정비사업을 진행하

고 있음. 선진협동농장은 각종 탈곡수단들과 중소농기구 수리정비를 다그쳐나가고 있으며 낱알보관시설도 미리 만들어놓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31)

- 농업성은 가을걷이를 제 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준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농업성은 해당 기관, 기업소들과 연계하여 트랙터 수리정비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 운전기계들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기름을 보장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농기계 생산과 수리, 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함경북도 경성군은 가을걷이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수리정비하고 탈곡기를 능률적인 것으로 개조하거나 새로 만들고 있으며 포전도로들도 정리하고 있음.
- 강원도 철원군 백로산협동농장은 탈곡기 수리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부속품을 확보하면서 탈곡기 수리정비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

- 강원도 고산군은 군농기계작업소와 협동농장들의 수리기지들의 가동률을 높여 트랙터 수리정비와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이와 함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강냉이보관고와 탈곡장 지붕수리, 야외건조장, 도로포장 정리사업은 물론 중소농기구 확보사업도 따라 세우고 있음.
- 평안북도 정주시 흑록협동농장은 수리분조와 기계화작업반에서 벼수확기와 트랙터 수리정비를 잘하여 가을하는대로 실어들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가마니 짜는 기계와 통합탈곡기 수리정비사업을 벌리는 한편 탈곡장 바닥포장과 보수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

- 평안북도는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이 현지에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상태를 지표별로 점검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농촌들은 이동식탈곡기를 만들고 운반수단과 중소농기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어떤 정황에서도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함경남도 영광군 삼흥협동농장은 새로운 낱알포장용기 생산기를 창안제작하여 일손을 줄이면서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양의 포장용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이로써 농장원 일인당 하루작업능률이 종전에 비해 8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함.

○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6)

- 평양시 형제산구역은 올해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준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 협동농장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해 80여대의 트랙터와 연결차를 수리정비한데 이어 수백대에 달하는 달구지 수리를 끝냈음. 이와 함께 동력설비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탈곡장 마당을 손질하는 한편 포전도로도 잘 관리하여 낱알운반과 탈곡에 지장이 없도록 해놓았음.
- 평양시 형제산구역 학산협동농장은 곡식이 익는대로 거둬들이기 위한 날짜별, 필지별 가을걷이 계획을 세우고 농기계, 농기구 준비를 갖추었음. 이와 함께 가을걷이에 이용할 부림소들의 영양관리를 잘하고 낫과 호미, 달구지 등 소농기구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7)

- 황해북도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최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농기계와 운전기재들의 수리정비, 탈곡장과 강냉이보관고 준비, 일손타산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송림시는 탈곡기 수리정비를 끝낸데 이어 농장 작업반마다 남농1호 탈곡기를 제작설치해 주었으며 사리원시는 시내 협동농장들에 능률높은 신형 벼탈곡기를 제작설치해 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의주군은 중소농기구들과 탈곡장, 보관고 준비를 끝낸데 이어 벼탈곡기와 트랙터 수리정비를 막바지에서 다그치고 있음. 군농기구공장은 남농1호 탈곡기 생산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군농기계작업소는 트랙터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자강도 각 시, 군의 농기구공장들은 이미 수만 개의 낫을 생산하였고 농기계작업소들은 트랙터, 연결차, 자동차를 수리정비한데 이어 달구지를 수리 및 생산하였음. 이와 함께 콩, 벼, 강냉이 탈곡기와 축력감자수확기를 수리정비하고 강냉이보관고와 탈곡장 보수정비에 힘을 쏟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8)

- 평안남도 평원군은 농장별로 트랙터, 달구지, 종합탈곡기 등 농기구와 농기계 수리정비정형을 파악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군농기계작업소는 트랙터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을 생산하여 군내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음.
- 평안북도 구성시 남창협동농장은 트랙터 수리정비를 끝내고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

수단을 갖추어 놓았으며 남농1호 탈곡기, 강냉이탈곡기 정비도 끝냈음. 이와 함께 탈곡장 울타리쌓기, 강냉이보관고 만들기, 포장용기 준비도 해나가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1)

- 황해남도에서 벼가을걷이 준비에 힘을 쏟는 가운데 해주시, 벽성군은 분조별로 농기구를 갖추고 작업반들은 탈곡기를 수리하면서 새끼, 가마니 생산도 다그치고 있음. 용진, 청단, 연안, 안악군 농기계작업소는 트랙터 수리를 질적으로 끝냈으며 신천, 재령군은 소농기구를 넉넉히 갖추는 한편 탈곡기 수리와 개조, 탈곡장 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구성시 남창협동농장은 가을걷이를 앞두고 8월 말 현재, 17대의 트랙터와 40대의 달구지 수리정비를 끝냈으며 남농1호 탈곡기 6대를 준비하였음. 한편 수십 km의 포전도로를 닦아놓았고 탈곡장을 정비하였으며 중소농기구들도 충분히 갖추어놓았음.
- 평안남도 평원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남농1호 탈곡기 생산실태와 농장들의 가을걷이, 낱알털기 준비 정형을 매일 점검하면서 농기구공장, 기계화작업반, 탈곡장 등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2)

- 평양시당위원회는 시내 기관, 기업소들과 구역, 군들에서 가을걷이에 필요한 물자와 농기계를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며 일손을 집중하여 벼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벌리고 있음. 만경대구역, 사동구역, 강남군은 농기계, 윤전기계를 수리정비하는 한편 자체로 생산한 부속품을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들에 보내주면서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황해남도 용진군은 능률높은 신형 벼탈곡기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정현농장은 이동식 벼탈곡기를 생산하여 작업반에 공급하였고 전산, 대기, 룡천농장과 용진읍협동농장도 탈곡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원사, 서해, 장송, 수대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은 트랙터 수리정비를 끝낸데 이어 탈곡장 보수와 중소농기구 수리, 포전도로정리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문덕군 동림협동농장은 당면한 가을걷이준비를 위한 남농1호 탈곡기 수리정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황해북도 름산군은 트랙터 수리정비를 한달 이상 앞당겨 끝내고 각종 부속품을 충

분히 마련하였으며 벼탈곡기들은 남농1호 탈곡기로 개조하고 강냉이탈곡기 수리정비를 끝낸데 이어 달구지를 보수하였음.

-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은 트랙터와 탈곡기 수리정비, 중소농기구 마련과 함께 낱알보관을 위한 가마니 짜기에도 힘을 쏟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4)

- 평안남도는 7월 초에 영농공정별 농기계 전시회를 열고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도농촌경리위원회는 탈곡에 앞서 농기계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재 보장과 협동생산품 수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음.
- 황해남도 강령군은 능률높은 신형 벼탈곡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군농기구 공장은 5월 초에 시제품에 대한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보다 완성된 농기계 제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안북도 선천군 운정협동농장은 가을걷이와 탈곡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트랙터와 연결차 수리정비를 끝내고 모든 농장원들이 낫 2가락, 지게 1개, 분조당 달구지는 1대, 망태기 10개, 솟돌 1개씩 장만하도록 하였음.

○ 농근맹중앙위원회의 가을걷이준비사업 추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4)

- 농근맹중앙위원회는 농근맹조직들이 농작물 피해를 막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때에 실시하는데 농근맹원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선동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음. 농근맹중앙위원회는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대중운동을 벌려 청산군 화산리에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 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는 농업근로자들의 모임’이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경쟁이 일어나고 있음.

○ 평안남도 남포시 갈천협동농장의 벼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13)

- 평안남도 남포시 갈천협동농장은 탈곡기의 수리정비를 잘하고 예비부속품과 수리공구를 갖추어 놓고 있으며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중소농기구를 자체로 보장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운반수단 준비를 잘하고 낱알허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각지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6)

- 황해북도에서 가을걷이를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앞당겨 끝낼 목표를 세운 가운데

곡산군 평암, 물리협동농장은 곡식베기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신계, 수안군 미루지대 협동농장들도 곡식을 베는 대로 탈곡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 열두삼천, 광천, 칠리, 사산농장은 품종별, 잘 익은 포전별로 벼가을일정계획을 세우고 수확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송덕, 검흥, 성남, 홍오, 룡덕농장 등에서도 실정에 맞게 가을걷이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강원도 창도군은 낱알털기를 제 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이동식 소형벼탈곡기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공장, 기업소를 비롯해 각 협동농장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이동식 소형벼탈곡기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국가건설감독성 초급당위원회는 가을걷이작업에 성 내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위원회는 가을걷이에서 모든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주인다운 기풍을 발휘하도록 사상동원사업을 벌리고 있으며 곡식 운반에 필요한 연유, 화물자동차, 포장용기, 여러 가지 운반수단과 소농기구 준비도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있음.

○ 벼 가을걷이 적기에 대해 소개(로동신문 9. 16)

- 벼 가을걷이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가을걷이 적기를 바로 정하는 것임. 벼는 대개 이삭이 썩 다음 40~45일이 지나면 여물기 시작하나 가을철 온도가 낮은 경우 여물은 기간이 50~55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알이 여물은 특성과 함께 벼이삭이 나온 후의 날짜와 색깔, 여문 정도 등을 따져서 벼가을걷이적기를 정해야 함.
- 벼 가을걷이 적기를 정할 때에는 재배조건과 토양조건도 고려해야 함. 논벼는 같은 품종이라도 냉습한 정도, 비옥도,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에 따라 여물은 기간이 다름. 그러므로 벼가을걷이 적기는 한두가지 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잘 타산하여 판정해야 함.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8)

- 황해남도 연안군 소정협동농장을 비롯한 연백별 내 협동농장들은 포전별 계획에 따라 논물떼기를 앞세우면서 벼가을을 일정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배천군 추정, 연안군 부흥, 청화협동농장은 짧은 기간에 벼가을걷이와 탈곡을 끝내기 위해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있음. 은률, 태탄, 송화, 은천군 등에서도 벼가을을 제 철에 끝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가을걷이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해 곡식의 여문 정도

와 일손, 기계수단 등을 타산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일정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9)

- 황해남도 연안군 소정, 연안읍, 도남협동농장에서는 물떼기를 진행하고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가을걷이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배천군 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은 군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농산작업반의 벼가을걷이와 탈곡을 책임지고 각종 농기계 부속품과 소농기구를 마련하여 보내주는 동시에 노력적으로 도와주고 있음.
- 평양시 만경대구역은 강냉이 가을을 끝내고 7일 동안에 벼 가을걷이를 끝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임. 농장들은 품종별, 필지별로 벼가을 날짜를 정하고 벧단 운반 및 탈곡작업에 역량을 총집중하기 위한 인력 조직과 농기구 및 운전기재 준비를 끝냈음.
- 자강도 만포시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를 마무리단계에서 진행 중임. 시농기계작업소와 각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들은 트랙터와 벼종합탈곡기, 강냉이탈곡기를 계획대로 수리정비하고 있음.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0)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벼가을걷이를 제 철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도 일군들은 현지에서 벼가을 계획을 수행하며 운반, 탈곡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 황해남도 은률군 관해리, 장련리 읍협동농장과 은혜리에 이어 서곡리, 이도포리, 룰리는 화선식 정치사업을 통해 영농사업에 적극 동참한 농장원들에 힘입어 가을걷이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군당위원회는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직관선전사업과 방송선동사업도 인민군대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논벼가을걷이조직에 대해 소개(로동신문 9. 20)

- 논벼가을걷이를 제 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세워야 함. 벼 가을걷이 일정계획에서 먼저 가을걷이할 포전 순위를 정해야 함. 포전별 가을걷이 순위는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내기한 순서로 정하되 서리나 우박피해를 받을 수 있는 포전부터 먼저 하며 기계운행에 편리하게 정해야 함. 또한 논벼가을걷이 일정계획 세우기에서는 가을걷이 수단별 대상포전과 면적을 확정해야 함.

- 벼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정별 노력과 기계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며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에게 하루작업 정량을 정확히 주어야 함. 노력과 생산수단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해 이모작농사를 실시할 포전들에 먼저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기름과 농기계 부속품들, 기타 작업도구들을 계획작업량과 단위당 소비기준에 따라 정확히 보장해야 함.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0)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벼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일손과 기계수단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선차적 관심을 돌리고 있음. 연안군은 강냉이 가을을 끝낸 뒤 역량을 집중하여 벼가을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재령군은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벼가을 속도를 높이고 있음.
 - 평안남도 속천군 농업경영위원회는 벼가을걷이에 앞서 수확기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여러 가지 중소농기구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였음.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작업에 적극 나서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는 한편 일정계획대로 일손과 기계수단을 총집중하여 가을걷이를 다그치고 있음.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1)
- 황해남도 연안군에서 벼가을이 한창임. 정춘, 풍천협동농장은 벼베기에 총력을 기울여 하루 계획을 1.2배로 초과수행하고 있으며 오현, 읍, 소정협동농장은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면서 계획대로 벼가을을 다그치고 있음.
- 평양시의 벼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1)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의 실정에 맞게 벼가을과 벧단운반, 벼탈곡과 포장은 연속공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각 구역 일군들은 벼수확기와 트랙터를 비롯한 기계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벧단을 탈곡장으로 신속히 운반하도록 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원군의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5)
- 평안남도 평원군은 가을걷이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첫 시작부터 벼가을걷이실적을 높이고 있음. 원화, 청룡, 석교, 대암협동농장을 비롯한 군내 모든 협동농장에서도 벼가을걷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도

가을걷이를 돕고 있음.

○ 황해남도 채령벌의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6)

-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가을걷이가 한창임. 군내 선전선동수단이 가을걷이 작업장에 총집중되는 가운데 평정협동농장 일군들은 앞장서서 작업실적이 뒤떨어진 작업반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로암, 엄곶, 룡산협동농장에서도 일군들이 가을걷이작업을 모범적으로 이끌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 평정협동농장은 농장일군들이 새벽 5시부터 매일 3정보씩 벼베기를 진행하여 농장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있음.
- 황해남도 채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은 낱알허실 없이 가을한 곡식을 털어내기 위해서 지난해 탈곡기들을 밀폐식 종합탈곡기 ‘남농1호’로 개조한데 이어 올해에는 능률 높은 탈곡기 두 대를 추가로 제작하여 탈곡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대동군 관교협동농장의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7)

- 평안남도 대동군 관교협동농장은 벼 가을에 충력을 기울이는 한편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여 가을걷이 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 신천군의 벼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7)

- 황해남도 신천군은 벼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게 일정계획을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가을걷이를 다그치고 있음. 군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에서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워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있음.
- 평안남도 증산군은 가을걷이에 필요한 일손을 따져보고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각 협동농장들이 가을걷이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이압, 만풍, 락생, 발산협동농장은 강냉이 가을을 끝내고 벼가을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벼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9)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벼가을과 탈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트랙터, 탈곡기 등 농기계 수리정비와 자재 및 부속품 확보를 끝냈음. 이와 함께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다그치

고 있음.

- 강원도 철원군 상하, 반석협동농장은 강냉이 가을을 끝내고 벼가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마방, 상마산협동농장은 일정계획대로 벼가을을 다그치면서 벧단뭉기, 동가리치기 등을 빈틈없이 조직하여 가을걷이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음.

○ 벼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30)

- 황해남도 안악군은 포전별, 날짜별 벼가을계획을 세우고 선전선동수단을 포전에 집중하여 모든 역량을 벼가을에 동원하고 있음. 각 협동농장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벼가을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음.
- 평안남도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은 벼의 생육단계에 맞게 논물빼기를 선행시키고 일손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벼베기를 다그치고 있으며 트랙터와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베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고 있음.

□ 벼 말리기

○ 벼 말리기 방법을 소개(로동신문 9. 23)

- 낱알털기의 질을 높이는데서 벼 말리기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벼를 베어 바로 단을 묶으면 벧단 가운데에 있는 벼에는 물기가 많아지므로 논판물떼기를 제때에 한 포전들에서 벼를 일정기간 논판에 베어놓은 상태에서 벼말리기를 하는 것이 좋음.
- 벼를 잘 말리기 위해서는 벧단을 적당한 크기로 묶는 것이 중요한데 직경이 15 ~ 20cm정도 되게 묶어야 함. 동가리는 벼이삭이 마른 것으로 한무지의 크기가 50단정도 되게 십자형으로 가리는 것이 좋음.

3. 축 산

□ 평양시 락랑구역 두단오리공장,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 자강도 강계오리공장 등의 개건현대화공사 과정에 대해 보도. 각 공장에서는 기본 생산건물, 보조건물, 도로와 살림집, 야외오리우리, 종금사, 종금후보사, 비육사, 새끼오리사, 알깨우기사를 비롯한 생산건물공사가 막바지에서 진행 중이며, 각 오리공장들이 개건현대화되면 먹이가공, 알깨우기, 살찌우기, 고기 생산 등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 설비를 갖추고 컴퓨터로 운영될 예정임.

□ 축산 동향

○ 각지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9)

- 황해남도 안악군 룡산협동농장 종금작업반은 오리와 거위의 먹이문제를 방목으로 해결하고 있음. 오리와 거위를 풀판이나 논밭에 방목함에 따라 일손을 절약하면서 김매기를 할 수 있고 오리와 거위의 배설물은 덧거름이 됨. 또한 적은 먹이로 오리와 거위를 길러 고기와 알생산을 늘릴 수 있음.
- 강원도 법동군 상서협동농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토끼 위생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종축작업반은 장마철의 습한 날씨조건에 맞춰 우리바닥에 매운재를 깔기도 하고 일주일에 2~3번 불소독을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있음.
- 평양시 강동군 송석축산전문협동농장은 염소젖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염소 사양관리와 젖가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과학원 생물분원의 초식가축 증산 과학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16)

- 과학원 생물분원은 황해남도 계남목장에서 배자 이식과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우량종 염소를 증산하고 있으며 대용젖과 먹이효소제를 새로 개발하고 여러 단위에 도입하고 있음.

○ 공동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31)

-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은 제7작업반에 공동축산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음. 작

업반은 자체 역량으로 가축우리, 종균처리장, 먹이가공실, 먹이창고 등 축산설비를 갖춘 비육분조건물을 건설한데 이어 거친먹이를 가공하여 가축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먹이문제를 해결하였음. 이로써 작업반은 돼지 40여마리, 오리 200여마리, 거위 90여 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음. 농장은 이곳 작업반 비육분조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함경남도 함흥시 구흥협동농장의 종축작업반, 농산작업반, 남새작업반 내 비육분조들은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우량품종을 확보하고 사양관리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용먹이원천을 탐구하는 등 가축먹이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음.
- 평안남도 신양군 룡운협동농장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2)
- 평안남도 신양군 룡운협동농장은 산을 이용하여 500여 정보의 풀판을 조성하고 가축우리를 건설하는 등 소, 양, 염소 등을 길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음.
- 평안북도 창성군의 축산기지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3)
- 평안북도 창성군은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축산기지를 잘 꾸려나가고 있음. 군은 양수협동농장의 자연급수가 가능하고 수의방역이 유리한 골짜기에 축산기지를 완공하였음. 이와 함께 금야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협동농장에 산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젓가공품을 생산, 저장할 수 있는 젓가공실과 갯도식 냉장고 건설을 다그치고 있음.
- 각지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6)
- 평양시 두단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어 생산건물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설비조립이 시작되었음.
 - 평안북도 태천군 학당협동농장 염소청년작업반은 3년 전에 산경사지에 염소우리, 젓가공실, 합숙을 건설한데 이어 30여 정보의 칩산을 조성하고 양어장을 건설하였음. 작업반은 축산토대를 바탕으로 염소 마리수와 젓가공품 생산을 늘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양시 형제산구역 학산협동농장은 가축먹이를 자체로 해결하여 축산물 생산을 늘리고 있음. 농장은 올해 사이그루로 심은 감자의 잎과 줄기 수십 톤을 축산먹이로 이용한데 이어 썬바귀, 비듬을 정보당 150톤이나 생산하였으며 겨울철 먹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을무와 배추를 심었음.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8)

- 고기와 알, 젖 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고 그 생산량을 늘려 군대와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려는 김정일의 구상에 따라 각지에 최신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소목장, 가금목장, 닭공장, 타조목장, 오리공장, 염소목장들이 완공되었음.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에서 인민군대가 본보기를 보이는 가운데 송암명기소목장이 건설되고 각 도, 시, 군들이 소목장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이와 함께 평양시에 현대적인 닭공장 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자강도와 평안북도 근로자들도 현대적인 닭공장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군인 건설자들이 량강도 대홍단군과 삼지연군에서 질 좋은 물거름을 생산하는 돼지목장 여러 개를 완공한데 이어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기풍과 작업태도를 본받아 도처에 현대적인 오리공장과 타조목장이 건설되었고 함경남도, 황해남북도, 평양시, 평안북도 등에서도 염소목장건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였음.

○ 초식가축 사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6)

- 자강도 강계시 흥주지구 강계토끼종축장은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먹이생산과 가공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종축장은 먹이밭, 풀판, 칩산, 아카시아나무림을 이용해 먹이풀을 생산하고 말린 뒤 가공한 배합먹이를 이용하고 있음.
- 황해남도 봉천군 봉암협동농장은 산을 끼고 있는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초식가축을 대대적으로 사육하고 있음. 종축작업반은 돼지, 염소, 양 등의 품종을 확보하고 영양관리, 새끼생산조직을 짜고 들어 가축 마리수를 늘리고 있음.
- 황해북도 은파군 신촌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은 염소우리, 먹이가공실, 놀이칸, 젓가공실을 꾸리고 인공풀판 3정보와 자연풀판 40정보를 조성한데 이어 염소 방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풀판관리를 잘하여 영양가 높은 풀을 먹이고 있음.

○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9)

- 평안북도 창성군 옥포축산전문협동농장은 사양관리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우량품종의 종축을 확보하는 한편 빈땅을 개간하여 청애콩을 3정보나 심어 가꾸었음. 또한 풀을 베어 30톤이나 풀절임을 하여 겨울철 먹이를 마련하였고 3,500매의 기외를 생산하여 가축우리의 지분을 썩였음.
- 평양시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 제1작업반과 청년작업반에서 연간 염소젖 생산계획을 거의 끝내가는 가운데 제2작업반은 20일 현재, 연간 젓생산계획을 110%

로 초과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음.

□ 염 소

- 함경남도 정평군 장천협동농장의 염소 사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
 - 함경남도 정평군 장천협동농장은 염소고기와 젓, 젓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염소 사육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 농장은 염소 사육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염소우리와 젓가공실을 현대적으로 짓고 우량품종의 종자로 염소 마리수를 대폭 늘렸음. 이와 함께 기술학습을 통해 염소관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염소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황해북도 신계군의 염소사육 경험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9)
 - 황해북도 신계군은 염소사육에서 분산사육방법을 도입하여 종축장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마리수로 염소무리를 형성하고 사양공들이 염소무리와 함께 자기 구역의 풀관관리도 책임지도록 하였음.
 - 분산사육방법 도입으로 무리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우량종을 받아내기 위한 종축체계를 바로 세우고 제한된 방목구역에서 풀관상태를 따져가며 순환식 방목을 하여 염소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였음. 또한 무리 규모가 작아 관리공들이 방목을 하면서 자기 구역의 풀관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젓생산량도 늘어났으며 겨울용 먹이도 넉넉히 장만할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방목공들의 집 가까이 염소우리를 두니 관리가 편해졌음.
 - 신계군은 분산사육방법을 전면도입하여 지난 3년 동안에 종축염소의 마리수를 3배 이상으로 늘리고 그 기간에 고기와 젓생산량도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음.
- 김정일의 4월16일 염소목장 시찰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9. 5)
 -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4월16일 염소목장을 시찰하였음. 김정일은 목장 확장과 관련한 해설을 들은 뒤 염소우리, 가공시설 등을 돌아보면서 군부대에서 목장의 과학화, 현대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젓생산을 늘리고 목장을 성과적으로 운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목장에서 젓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종자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염소사양관리를 개선하며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목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 함경북도 청진시 염소목장의 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7)

-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 청진시염소목장은 염소관리공들의 실무수준을 높이고 주의방역대책을 세우는 한편 염소 마리수를 늘리고 증체율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음. 청암분장은 풀판조성사업을 벌려 순환식 염소방목을 실시하고 염소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포항분장은 새끼받는 시기와 젖생산기간을 정해 염소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젖가공직장은 현대적인 젖가공설비를 이용하여 양질의 젖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음.

○ 황해남도 과일군 룰리농장의 염소 사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14)

- 황해남도 과일군 룰리농장은 풀판조성과 우량품종 염소 확보에 힘을 쏟는 가운데 젓짜기실과 가공실, 새끼낳이실을 건설하였음. 염소분조원들은 염소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수백마리의 염소를 잘 기르고 젓생산을 늘리고 있음.

○ 평안북도 대관군 송광협동농장의 염소사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9)

- 평안북도 대관군 송광협동농장은 우량품종의 종자염소를 기르면서 해마다 염소 마리수를 늘려 겨울에는 탈곡장 옆 우리에서 염소를 기르다가 봄이 오면 방목지 야외우리에서 염소를 기르면서 방목하고 있음.

□ 닭공장

○ 자강도 강제닭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10)

- 자강도 강제닭공장은 먹이가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야외먹이창고를 새로 건설한데 이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600여㎡의 야외닭우리도 건설하였음. 공장은 고기가공직장에서 나오는 갖가지 부산물로 동물성 단백질먹이를 생산하여 알낳이율을 높이고 있으며 닭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부림소

○ 함경북도 화대군 토원협동농장의 축력 이용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4)

- 함경북도 화대군 토원협동농장은 농사에 소를 적극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소 증산사업을 벌려 수년동안에 암소를 100여 마리로 늘렸음. 농장은 기름이 부족한 조건에서 150여 마리의 소를 이용하여 논밭 김매기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오리, 거위

- 평양시 두단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4)
 - 평양시 두단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가 진행 중임. 속도전청년돌격대국은 생산건물 30동, 보조건물 30동 건설공사를 맡아 최상의 수준에서 호동들을 완공하기 위해 자재와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교량건설사업소 제3직장은 급수탑 건설을 맡아 물탱크벽 콘크리트치기를 10일 동안에 끝내는데 이어 철근 가공, 조립과 급수탑 외부벽체쌓기를 진행하고 있음.
 - 105돌격대국은 가공직장, 제약직장 건설을 담당하여 공법에 맞게 시공지도를 하면서 대대별로 외부벽체미장을 하고 있음.
- 김정일이 대연합부대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615군부대를 시찰하였다고 보도(로동신문 8. 3, 민주조선 8. 3)
 - 김정일이 전선중부 최전연에 위치한 대연합부대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 615군부대를 시찰하였음. 김정일은 군부대에서 건설한 오리목장의 생산공정과 사양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목장에서 해마다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군인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치하하였음.
- 평양시 락랑구역 두단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5)
 - 평양시 락랑구역 두단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가 막바지에서 진행 중임. 기본생산 건물, 보조건물, 도로와 살림집을 완공한데 이어 원림조성과 기본생산건물인 오리우리의 메움재공사, 건물의 외장재칠하기, 문화회관 건설 등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음.
- 자강도 강계오리공장의 개건현대화공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5)
 - 자강도 강계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5개 호동의 야외오리우리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종금사, 종금후보사, 비육사, 새끼오리사, 알깨우기사를 비롯한 생산건물공사가 막바지에서 진행 중임. 강계오리공장이 개건현대화되면 먹이가공, 알깨우기, 살찌우기, 고기 생산 등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 설비를 갖추고 컴퓨터로 운영될 예정임.
-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4)
 - 평안남도는 북창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를 벌려 1년 남짓한 기간에 7동의 비육오

리우리, 6동의 야계오리우리, 3동의 새끼오리우리, 알깨우기실, 고기가공장, 먹이가 공장 등 40동의 건축공사를 완공한데 이어 지금 설비조립공사와 길 포장, 울타리공사 등 주변정리를 하고 있음.

○ 김정일의 광포오리공장 현지지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5, 민주조선 9. 15)

- 김정일이 개건된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광포오리공장은 개건현대화공사를 통해 생산공정이 자동화, 컴퓨터화되었고 생산능력 확장으로 생산이 정상화되어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김정일은 광포오리공장 내부를 보면서 모든 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현대화, 자동화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현대화공사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끝낸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오리공장을 돌아본 뒤 공장 운영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먹이문제를 풀기 위해 사료생산을 담당할 협동농장들의 알곡수확고를 높이고 광포호수에서 자라는 수초 생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오리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우량품종을 연구개발하며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정일은 질 좋은 오리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문제와 광포오리공장을 대규모의 고기생산기지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은 공장의 단계별 목표를 정해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추진하여 광포오리공장을 모든 면에서 우수한 오리고기 생산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하였음.

□ 수의방역

○ 수의방역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6)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의 생명

- 9~10월 수의위생방역월간을 맞아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해당 기관, 가축 사육 단위들은 수의위생방역월간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함.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해당 기관, 가축 사육 단위들은 필요한 예방약을 제때에 보장하여 가축들에 대한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수의방역규율을 확립해나가야 함.
-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수의방역기관들은 가축 도살 및 이동에 대한 수의학적 검

사와 통제를 철저히 하고 시, 군들은 수의위생검열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 발생에 대한 장악과 통보를 신속해야 함.

수의방역소에서

- 중앙수의방역소는 수의위생방역월간에 앞서 각 도 수의방역소에 월간과업을 전달하고 그 수행정형을 파악하여 신속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수의방역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음.
- 함경남도수의방역소는 가축예방접종과 예방 및 치료약 생산, 공급 등을 실정에 맞게 계획한데 이어 시, 군 수의방역소 일군들을 대상으로 기술강습을 실시하였음. 도수의방역소는 시, 군들의 주요 지점에 수의초소를 새로 세우거나 재정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음.

4. 감자농사

□ 량강도 대흥단군은 감자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의 가동률을 보장하는데 힘을 쏟으면서 공정별 작업조직을 맞물려 감자캐기 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 김형권군, 갑산군, 삼수군, 풍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포전별로 수확날짜를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감자캐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수확한 감자를 제때에 실어 들여 선별·보관을 잘해나가고 있음.

□ 씨감자 생산

○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감자조직배양공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30)

·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감자조직배양공장은 온실 난방관보수공사를 끝낸데 이어 현대적인 온실을 계획한 기간 내에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기술자들은 뿌리활착률 높이는 방법을 연구완성한 것을 비롯해 여러 건의 기술혁신을 하여 무바이러스 잔알감자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이바지하였음.

○ 평안북도 선천군의 무바이러스 잔알감자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6)

· 평안북도 선천군은 온실에서만 생산하던 무바이러스 잔알감자종자를 야외에서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음. 군은 뒤그루 감자밭 면적을 늘려 무바이러스 잔알감자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삼봉, 연봉, 석화, 로하, 고성, 고부협동농장에서는 김매기를 질적으로 하여 감자포기 생육상태를 왕성하게 하고 있음.

□ 감자 저장

○ 감자 저장 방법을 소개(로동신문 9. 13)

· 감자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온도 보장이 중요함. 저장용의 온도가 높으면 유기물질 손실이 많아져 질량이 줄어들고 낮으면 감자알이 얼기 때문에 첫 10~15일동안은 10~15℃로 보장하는 것이 좋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온도를 낮추어 2~3℃로 유지해야 함.

- 감자를 움에 저장할 때는 습도를 85~95%로 보장하고 빛은 저장하는 감자의 품질을 떨어뜨리므로 저장움에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 또한 저장움의 공기갈이를 잘 하여 산소함량을 높여야 함.

□ 감자농사 동향

○ 감자농사에서 제대군인들의 활약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8)

- 량강도 대흥단군 감자농사에서 제대군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제대군인들이 작업반장, 분조장, 부문당비서, 당세포비서로 진출하는 가운데 제대군인들은 통신교육이나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함경남도 장진군의 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31)

- 함경남도 장진군 축전, 메물협동농장은 김매기를 다그치면서 당면한 감자밭 비배관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서목, 늪수협동농장은 장마철에 감자밭이 유실되지 않도록 밭 둘레에 도랑을 만들고 후치질을 깊숙이 하고 있음. 신대협동농장은 농업과학원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감자역병방지약을 만들어 병충해막이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함경남도 부전군의 감자 비배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7)

- 함경남도 부전군은 장마철 조건에 맞게 감자밭 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음. 문암, 광대협동농장은 감자의 생육단계와 날씨조건을 살펴 병해충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차일, 산수협동농장은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물이 밭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물길을 돌리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감자캐기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6)

- 량강도 대흥단군은 감자캐기를 앞두고 모든 농장들에서 트랙터, 감자수확기, 탈곡기, 정전기 등 각종 농기계 수리정비를 끝냈음. 이와 함께 지상식 감자저장고 및 싹틔우기장에서 감자를 실어들이는 족족 저장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으며 대흥단군감자수송대는 감자수송에 필요한 자동차들의 수리정비를 끝냈음.

○ 함경남도 부전군의 감자캐기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9)

- 함경남도 부전군은 당면한 밀, 보리 가을걷이를 다그치는 한편 9월 초부터 시작될 감자캐기 준비가 한창임. 군은 감자캐기 일정계획 및 노력지원계획을 세우고 트랙

터, 달구지 수리정비와 호미, 삼태기를 비롯한 소농기구 마련 등 감자캐기 수단을 준비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감자종자 저장고를 소독, 정비하면서 감자종자 보관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있음.

○ 량강도 백암군의 감자캐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4)

· 량강도 백암군에서 농장원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과 동, 인민반 주민들을 감자캐기에 동참시키는 가운데 군은 감자를 캐는대로 실어들이고 체때에 가공처리를 하고 있으며 수송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감자캐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7)

· 량강도 대흥단군은 최적기에 감자를 캐기 위해 감자수확기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있음. 홍암, 서두, 농사동, 신덕농장은 날씨와 감자의 여문 상태, 농기계 가동정형 등을 따져가며 일정계획을 세우고 일손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감자캐기를 진행하고 있음. 감자수송대는 기계정비를 잘하고 교대당 운행 회수를 높여 많은 양의 감자를 실어들이고 있음.

○ 량강도의 감자캐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8)

· 량강도에서 감자캐기가 바빠 진행되는 가운데 대흥단군은 감자종합수확기를 비롯한 기계수단의 이용률을 높여 작업능률을 올리고 있으며 백암군은 포전별 감자캐기계획대로 감자캐기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대흥단감자가공공장을 비롯한 군내 감자가공기지들은 감자를 실어들이는대로 가공하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감자캐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2)

· 량강도 대흥단군은 모든 선전선동역량을 집중하여 감자캐기에 박차를 하고 있음. 홍암, 신흥, 신덕농장은 자체적으로 감자수확기를 수리하고 부속품을 마련하면서 감자캐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 감자가공공장은 경쟁도표판에 작업성과를 기록하면서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감자세척, 분쇄 등 감자가공 실적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나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 량강도 대흥단군 감자수송대는 모든 농장들에 자동차를 정확히 배치하고 한알의 감자도 허실없이 수송하도록 하고 있음. 신덕, 서두, 신흥농장에 나간 운전자들은 수송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 계획된 감자운반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군의 감자캐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16)

- 량강도 대흥단군은 감자캐기 준비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감자캐기가 시작되자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군들을 각 농장에 보내 감자캐기 전반을 점검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감자캐기에서 적기를 정확히 지키기 위해 감자심은 낱자와 생육상태, 일기조건 등을 따져보고 포전별 감자캐기 순차를 바로 정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맞게 일손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군농기계작업소는 기술혁신을 통해 농기계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고 있으며 기술자, 기능공들이 농장에 나가 수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각 농장의 수확기운전공들은 기계를 표준조작법대로 작동시키고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감자캐기의 질을 높이고 있음.
- 대흥단감자수송대는 해당 단위와 연계하여 감자운반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수송성과를 높여나가고 있음. 일군들은 운전자들에게 하루작업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 수행조건을 보장해주며 총화평가사업을 진행하여 운전사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아주고 있음.
- 군내 모든 농장들에서 감자캐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 대흥단감자가 공공장의 전분직장은 설비관리를 잘하고 운전조작을 기술규정대로 진행하여 전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다그치고 있음.
- 김정일이 대흥단군으로 보내준 제대군인들은 농사일을 시작하고 익히면서 오늘날 작업반장, 분조장, 노력혁신자로 성장하여 감자농사에서 중요한 몫을 해내고 있음.

○ 감자캐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0)

- 량강도 대흥단군은 감자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의 가동률을 보장하는데 힘을 쏟으면서 공정별 작업조직을 맞물려 감자캐기 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 김형권군, 갑산군, 삼수군, 풍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포전별로 수확날짜를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감자캐기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자강도 랑림군 읍협동농장은 일손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면적에서 감자를 캐고 있으며 서중, 련화협동농장은 수확한 감자를 제때에 실어들이면서 기술규정대로 선별하고 보관을 잘해나가고 있음.

○ 함경남도 부전군의 감자 캐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1)

- 함경남도 부전군 문암협동농장은 모든 역량과 운반수단을 감자캐기에 총집중하고

있으며 광대, 읍, 호반, 문천협동농장도 감자캐기 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군내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서 나온 지원자들도 감자캐기 실적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음.

○ 자강도의 감자캐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3)

- 자강도는 감자캐기를 제 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트랙터를 비롯한 운전기재들의 부속품과 연유를 보장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각 농장들에서 감자종자 보관고와 감자보관 창고들을 잘 갖추도록 하였음.
- 랑림, 룡림군에서 군급기관 일군들이 감자캐기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대중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는 가운데 군에서는 실정에 맞는 운반수단들을 동원하고 감자를 담을 용기도 마련하였음. 화평, 성간, 자성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일손을 집중하여 감자캐기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음.

○ 자강도 룡림군의 감자캐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4)

- 자강도 룡림군은 감자캐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상기후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던 날 저녁, 서리가 내릴 수 있는 지역과 포전들에 모닥불을 200여 개나 피워 놓고 감자밭과 콩밭, 강냉이밭의 냉기를 몰아냈음. 군은 감자를 캐는 족족 운반, 처리하고 잘 골라 저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음.

○ 감자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5)

- 량강도 삼지연군은 제대군인들이 앞장선 가운데 감자캐기 계획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중흥, 백두산, 통신농장은 트랙터 등 운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예비부속품을 준비하는데 힘을 쏟으며 매일 평균 수십정보씩 감자캐기를 하고 있음.
- 량강도 대흥단감자가공공장은 전분직장 추출기의 펌프에 문제가 발생하자 생산을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전동기를 수리하는데 힘을 쏟아 며칠만에 전동기 수리를 끝내고 생산실적을 높였음.
- 성, 중앙기관들은 감자캐기 작업현장에서 화선식 정치사업을 벌리는 한편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임업성은 연유와 운전기재 부속품 등을 맡은 작업반에 지원하였고 경공업성은 각종 운전기재용 피대와 감자를 담을 수 있는 용기 등을 지원하였음. 이 밖에도 체육지도위원회, 수산성 등 성, 중앙기관의 당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을 도와 감자캐기작업을 벌리고 있음.
- 김정숙사범대학, 혜산농림대학, 혜산의학대학을 비롯한 3,000여명의 대학생들이 량강도 백암군에서 감자캐기에 나서 매일 감자캐기 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5. 이모작

□ 이모작 앞그루보리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 제 철에 심어야 하며, 다수확 품종을 파종하고, 많은 유기질비료를 내어 지력을 높여야 수확량이 증대시킬 수 있음. 또한 앞그루보리밭을 관수조건이 좋은 포전으로 선정하고 강우관수, 고랑관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함.

□ 이모작 동향

○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의 이모작 재배경험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9)

·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은 감자 뒤그루로 지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오는 과정에서 알곡 대 알곡 이모작 재배면적을 크게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밀, 보리 수확 동향

○ 밀, 보리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4)

· 량강도 대홍단군은 9월 초, 감자수확을 앞두고 밀, 보리 가을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창평, 홍암, 신흥농장을 비롯한 각 농장들은 포전별 조건에 맞게 바퀴식, 무한궤도식 종합수확기를 배치하여 밀, 보리 가을작업 능률을 높이고 있으며 낱알을 베어들이는 대로 탈곡하여 건조장에서 말리고 있음.

□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 동향

○ 평안남도 온천군의 가을밀보리 씨뿌리기 준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4)

· 평안남도 온천군은 벼가을걷이준비와 가을밀보리 씨뿌리기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서화, 안석협동농장을 비롯한 각 협동농장들은 앞그루작물 경작지에 시비할 거름과 흙보산비료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종자처리준비를 잘하고 밀보리

씨뿌리는 기계와 복토기를 보수정비하고 있음.

○ 황해남도의 가을밀, 보리씨뿌리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7)

- 황해남도는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제 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적지 선정과 씨뿌리는 기계 만들기, 거름 및 흙보산비료 생산과 실어내기 그리고 가을걷이를 끝낸 포전들에 대한 밭갈이와 마른씨레치기를 실시하고 있음.
- 신천, 재령군은 밀, 보리 적지로 선정된 논밭의 가을걷이를 다그치면서 농기계와 인력 배치를 잘하여 씨뿌리기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안군은 질 좋은 거름 수십 톤과 흙보산비료를 정보당 5톤씩 내고 종자소독을 잘하면서 흙덮는 작업을 기계로 하여 씨뿌리기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30)

-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지구 농촌들과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비롯한 동해안지구 농촌들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들을 배치하고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황해남도 웅진군은 분조마다 1.5정보 이상씩 가을밀, 보리를 심을 계획을 세우고 적지선정과 종자선택, 거름준비 등을 따져보고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룡천협동농장을 비롯한 군내 협동농장들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질 좋은 거름을 내고 씨뿌리기를 다그치고 있음.
- 황해북도 황주군 외상협동농장은 종자준비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거름생산준비정형을 따져보면서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 일정계획에 따라 일손을 배치하고 노력일평가사업을 벌려 매일 많은 면적에 씨를 뿌리고 있음.

○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7)

- 황해북도 사리원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가을걷이를 진행하는 동시에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일손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음. 일군들은 시내 모든 협동농장들이 밀, 보리파종기를 적극 이용하여 씨뿌리기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를 기술규정대로 실시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황해남도 웅진군은 앞그루 밀, 보리 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원사, 랑정협동농장은 트랙터와 축력으로 포전을 갈고 거름을 충분히 내면서 밀, 보리 씨뿌리기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남해, 송월협동농장은 가을철농사일로 일손이 부족한 가

운데 선후차를 가려가며 일손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씨뿌리기를 하고 있음.

- 평안북도 대관군은 가을걷이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가을밀 씨뿌리기를 막바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일손을 차질없이 동원하고 능률적인 수단과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가을밀 씨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6. 농업 기반

- 백마-철산물길 시험통수가 9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음. 시험통수를 하는 기간 수백리에 달하는 흠물길과 각종 구조물들은 문제가 없었고 백마저수지에 찬 물이 물길의 시작점인 취수구로부터 종착점인 철산군 선주리와 룡천군 덕흥리까지 전기의 도움없이 자연흐름 그대로 흘러 시험통수는 성공적임.

- 백마-철산 관개수로공사
 - 공사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1)
 - 백마 - 철산물길공사 중앙지휘부는 물길공사에서 굴뚝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각 도 여단은 물길굴 건설에 자재와 일손을 총집중하여 집단주의 위력으로 백마-철산간선물길공사와 대형용수잠관공사를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관개건설여단, 농업성 물길건설기계화사업소대대는 2년여의 백마저수지공사 기간동안 기본언제를 건설하고 매일 1만㎡의 혼석을 운반하여 기본언제 경사면 돌입하기와 잔디심기 등 기본언제공사를 막바지에서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여단은 산기슭의 대절토구간과 암절구간에 흠물길을 내고 1,000여 개의 흠물길구조물도 완공하였음.
 - 제32화학공장건설여단은 취수구조물공사에서 문틀과 문조립, 벽체미장을 끝내고 옥상공사와 권양기 및 감속기 설치 등을 막바지에서 다그치고 있음.
 - 평양시여단은 백마저수지 보조언제공사에서 혼석운반과제를 매일 1.5배씩 수행하면서 언제 쌓기를 마감단계에서 진행 중임.
 - 백마저수지 공사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21)
 - 백마저수지 언제와 구조물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음. 기본언제공사에서 황해관개건설여단은 굴착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대형화물차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혼석과 점토를 운반하고 있으며 강원도, 자강도, 남포시, 함경남도여단은 언제

경사면 장식, 잔디 입히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보조연제공사에서 평양시여단은 흙운반 성과를 확대하면서 장식, 잔디 입히기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제32화학건설려단은 취수구조물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 공사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6)

- 백마 - 철산물길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중앙지휘부는 백마저수지공사에 역량과 운전수단을 보강하고 있음. 황해관개건설여단, 농업성 물길건설기계화사업소는 백마저수지 기본연제와 보조연제 쌓기를 막바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룡산여단, 량강도려단, 황해남도여단 등은 기본연제경사면의 돌입히기와 잔디심기에서 연일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5)

- 백마 - 철산물길공사 중앙지휘부는 백마저수지공사를 이달 안으로 끝낼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기본연제공사장에서 황해관개건설여단은 혼석과 점토를 운반하여 중심강토와 혼석쌓기를 질적으로 하고 장식입히기에도 힘을 쏟고 있음. 강원도, 자강도, 남포시, 함경남도여단은 연제경사면 장식, 잔디입히기를 진행하고 있음. 보조연제공사장에서 평양시여단은 성토와 장식, 잔디입히기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제32화학건설여단은 취수구조물공사를 막바지에서 다그치고 있음.
- 평안북도여단은 일손과 기계수단을 보강한데 이어 흙물길과 구조물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 대대들은 흙물길 형성을 위해 흙을 운반하고 있으며 물길굴뚝기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물길굴 건설을 위해 자갈 세척에서부터 혼합물 다짐에 이르는 모든 작업을 기술규정대로 실시하고 있음.

○ 함경남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7)

- 함경남도여단은 수백m에 달하는 3련 대형용수잠관공사와 2개 대상의 물길굴공사, 철도잠관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백마저수지 기본연제공사를 다그치고 있음.

○ 평안남도여단의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9)

- 백마 - 철산물길공사에 동원된 평안남도여단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물길굴공사와 개거공사를 맡아 굴뚝기와 콘크리트치기를 질적으로 하여 1,000여m에 달하는 물길굴공사를 비롯한 3개 대상의 물길굴공사와 2개 대상의 개거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였음.

○ 공사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2)

- 백마 - 철산물길 백마저수지 기본언제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섰음. 중앙지휘부는 백마저수지 기본언제공사에 황해관개건설여단과 농업성 물길건설기계화사업소대대, 각도 려단의 지원인력을 투입하여 밭파, 혼석운반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단계에서 혼석쌓기와 돌입히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안북도여단은 백마저수지에 채워진 물이 평안북도 농경지에 흘러들도록 흙물길공사와 구조물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군들은 흙물길구간에서 물길바닥높이와 물길의 표고차이, 제방의 높이와 경사면 각도 등을 보장하면서 물길바닥의 암반을 제거하고 제방정리를 설계대로 하고 있음.
- 평양시여단은 맡은 공사를 완수하고 백마저수지 보조언제공사에 투입되었음. 려단은 굴착기, 자동차, 불도저의 이용률을 높여 언체에 혼석을 쌓고 있으며 수만㎡의 혼석을 운반하여 쌓으면 보조언제가 완공됨.

○ 물길굴공사 완공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6)

- 백마 - 철산물길공사에서 물길굴공사는 수천m의 구간에서 흙을 처리하고 콘크리트치기를 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임. 물길굴공사를 맡은 각 여단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속에서도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수십개의 물길굴공사를 모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작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1)

- 백마 - 철산물길공사 중앙지휘부는 전반적인 물길공사를 이달 중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백마저수지 특히 무넘이언제공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평안남도, 함경남도, 자강도여단을 비롯한 각 여단들은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무넘이언제 콘크리트치기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황해관개건설여단과 농업성 물길건설기계화사업소대대의 굴착기, 대형화물차 운전공들은 매일 수천㎡의 돌을 처리하고 있음.
- 황해관개건설여단과 평양시여단, 제32화학공장건설사업소여단은 기본언제와 보조언제 쌓기, 취수구조물공사를 끝내고 언체도로공사와 지대정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흙물길 지대정리에서는 평안북도여단과 공사에 동원된 도내 근로자들이 수백리 흙물길을 형성한데 이어 지대정리와 구조물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백마 - 철산 흙물길 형성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9. 25)

- 백마 - 철산 흙물길이 형성되었음. 평안북도여단은 작업량과 작업조건에 맞게 대대

를 배치하고 흙물길 형성과 구조물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였음. 구장군, 신의주시, 녕변군, 삭주군대대는 암반 발파 및 흙, 돌 운반작업을 벌려 물길제방을 쌓고 흙물길을 형성하였으며 박천관개하천건설사업소대대를 비롯한 다른 대대들은 물길굴과 제수문, 분수관, 잠관, 암거 등 수많은 구조물공사를 거의 다 수행하였음.

○ 백마 - 철산 물길 시험통수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9. 26, 민주조선9. 23)

- 백마 - 철산물길 시험통수가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음. 시험통수를 하는 기간 수백리에 달하는 흙물길과 각종 구조물들은 문제가 없었고 백마저수지에 찬 물이 물길의 시작점인 취수구로부터 종착점인 철산군 선주리와 룡천군 덕흥리까지 전기의 도움 없이 자연흐름 그대로 흘러 시험통수는 성공적임.

□ 국토관리사업

○ 각지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17)

- 평안북도 구장군은 9km의 청천강 제방공사, 20여km의 중소하천정리를 진행하고 3,000여㎡의 옹벽을 쌓아 4.3km구간의 두일령도로 기술개선공사를 끝냈으며 여러 지구에 1,200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음. 평안남도 양덕군은 130여km의 도로를 정리하고 180여동의 공공건물과 살림집 보수, 160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음.
- 함경북도 김책시는 한천천의 500m구간에서 강바닥을 파내고 2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였으며 함경남도 신흥군은 성천강 수백m구간 제방공사와 700㎡의 장식공사, 20여km의 도로기술개선공사를 끝냈음.
- 황해남도 은천, 신천군은 뽕나무림조성계획을 각각 132%, 113%로 수행한데 이어 강하천, 중소하천정리사업과 수만㎡의 장식공사를 진행하고 1만 2,000여 정보의 논밭 흙갈이와 700여 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하였음.

□ 토지관리사업

○ ‘토지관리사업은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요고리’라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9. 13)

- 토지관리사업은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다루기 위한 사업임. 토지관리사업은 토지정리를 통해 논밭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 영농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으며 새땅을 얻어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음. 토지보호, 토지이용질서를 바로 세우는 사업은 토지유실 및 남용을 막아 땅을 농업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토지개량은 지력을 높여 단위면적당 수확고를 높임으로써 알곡생산량을 늘리게 함.

- 경작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알곡증산은 토지정리와 토지개간, 토지 이용률 제고 등 토지관리사업에 달려 있음. 우리나라는 산지대, 덕지대와 수많은 간석지들이 개간되어 경작지와 축산토지, 소금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치산치수사업으로 토지자원의 보호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었음.
- 또한 김정일의 영도 하에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이 추진되어 강원도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평양시의 벌들이 정리됨으로써 토지정리, 토지관리의 본보기들이 창조되었음. 우리는 조국의 만년재부인 토지를 잘 관리하여 농업생산을 더욱 늘리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함.

○ 토지관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5)

- 강원도 평강군 복계협동농장은 토지유실을 막기 위해 한탄천 기슭에 제방을 쌓았고 신정, 남양, 문산협동농장은 토지를 보호하는 한편 흙갈이도 하고 소석회와 질 좋은 거름을 내면서 토지관리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음.
- 평안북도 운전군 북일협동농장은 올해, 지난해보다 정보당 2배나 더 많은 질 좋은 거름을 내어 지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는 동시에 늪개간작업을 벌려 늪을 메우고 새땅 3정보를 찾아냈음.
- 황해남도 안악군 룡산협동농장은 토양성분분석사업을 통해 포전별, 필지별로 땅의 성질과 비옥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고 시비체계를 세워나가고 있음.
- 함경남도 금야군 흥평협동농장은 몇해 전부터 논을 800~1,500평 규모로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수십 정보씩 토지를 정리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면 토지정리한 논밭의 논두렁을 보강하고 물길도 가셔내는 등 보호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평안남도 은산군의 토지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6)

- 평안남도 은산군 당위원회는 8월, 장마로 장선강의 독이 붕괴되어 일부 농장들의 토지가 물에 잠기자 토지관리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작업태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피해복구사업을 농장원들 특히 일군들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과정으로 실시하였음. 일군들은 대중들을 동원하여 강둑의 돌쌓기를 진행하고 여러 달로 예상되던 피해복구사업을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끝냈음.
- 군당위원회는 리당비서, 관리위원장들이 토지관리사업을 잘하도록 토지보호, 토지

정리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미비점, 앞선 단위의 경험을 알려주고 토지관리를 과학 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였음. 위원회는 지력을 높이기 위해 필지별 토양 성분과 포전별 특성에 맞게 소식회를 계획적으로 뿌리고 유기질비료 생산에 힘을 쏟도록 하면서 토지정리된 땅을 더욱 비옥하게 가꾸도록 농장원들을 이끌었음.

□ 개천-태성호 물길

○ 개천 - 태성호물길 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19)

- 개천 - 태성호 물길관리소는 대각청년언제 보수정비와 흙물길, 물길굴 관리를 잘하여 올해 씨뿌리기 이전에 태성호를 비롯한 20여 개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성과를 거두었음. 관리소는 올해 후반기 농작물 생육시기에 관개용수를 차질없이 보장하기 위해 물길제방 및 위험개소들을 점검하고 수문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대계도간석지

○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제방보강공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31)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관리국은 대계도간석지 제방마감막이공사를 끝낸데 이어 제방보강공사를 벌려 두달 남짓한 기간에 9만여m³의 돌과 흙을 처리하고 500여m³의 콘크리트치기를 하여 제방마감막이 구간을 보강해 나가고 있음.

- 황해북도 미루벌에 리상-미루벌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진행하여 미루벌의 물문제를 해결하고 미루벌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음. 농장들은 시험포전을 이용해 작물 재배시험과 지대적 특성에 맞는 경작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미루벌의 농촌경리의 기계화 실현을 위해 영농기계를 지원받고 있음.

□ 관개사업

○ 평안북도 룡천군의 제방대보수공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30)

- 평안북도 룡천군은 장마철에 대비해 제방대보수공사를 벌려 4만여m³의 흙을 처리하고 5,500여m에 달하는 구간에서 제방폭을 2배 넓히고 높이를 1m정도 높였음. 이로써 동신지구에서 진흥지구에 이르는 3,000여 정보의 토지와 살림집 수천세대, 공공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국토환경보호성의 강하천 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0)

- 국토환경보호성은 장마철 폭우를 비롯한 이상기후현상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하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성은 압록강, 두만강, 예성강 등 큰 하천들에 대한 정리사업을 벌이고 하천별로 호안, 제방, 물독공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농촌경리의 수리화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8)

- 농촌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 나선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은 짧은 기간에 2천리 물길을 새로 건설하고 대동강과 예성강, 압록강과 대령강을 대관개망으로 연결시키며 서부지구 곡창지대에 관개수가 흘러 넘치게 하였음.
- 이와 함께 대동강물을 자연흐름 그대로 이용하는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2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한데 이어 이를 본보기로 여러 지대들에 자연흐름물길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평안북도 백마-철산물길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섰음.

○ 황해북도 미루벌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2)

- 김정일은 미루벌에 심어야 할 작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고 200명의 제대군인들도 보내주었음. 농장들은 시험포전을 이용해 작물재배시험과 지대적 특성에 맞는 경작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김정일은 미루벌의 농촌경리의 기계화 실현을 위해 영농기계를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음.
- 김정일은 리상-미루벌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진행하여 미루벌의 물문제를 해결하고 미루벌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음.

○ 함경남도 함흥시 수동저수지 완공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8)

- 함경남도 함흥시 수동저수지가 새로 건설되었음. 저수지가 건설됨으로써 이 지역 협동농장들의 관개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홍수피해로부터 많은 농경지를 보호하며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음.
- 22일, 현지에서 진행된 저수지 준공식에서 함흥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탁원하 위원장은 시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이 방대한 공사를 완수하고 저수지를 건설한 것에 대해 말하고 수동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논농사를 지으며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이 저수지 주변에 현대적인 농민휴양소를 건설하고 토지정리 등을 다그쳐 끝낼 것을 지적하였음.

○ 함경남도 함흥시 수동저수지 준공식 진행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3)

- 함경남도 함흥시 수동저수지 준공식이 22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준공식에 관계 부문 일군들, 시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함흥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탁원하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논농사를 잘 지으며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이 저수지 주변에 농민휴양소를 건설하고 토지정리 등을 다그쳐 끝낼 것을 지적하였음.
- 수동저수지가 건설됨으로써 이 지역 협동농장들의 관개수문제를 해결하고 홍수피해로부터 많은 농경지를 보호하며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음.

□ 살림집 건설

○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군 청산리의 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6, 민주조선 8. 6)

-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군 청산리는 70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음. 이번에 건설된 현대적인 살림집에는 전실과 여러 칸의 살림방, 다락방, 창고 등이 생활에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음.

○ 함경남도 영광군의 농촌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8)

- 함경남도 영광군은 협동농장들에서 농사일을 진행하는 동시에 살림집을 건설해야 하는 조건에서 건설기간을 정하고 준비를 갖추어 살림집 건설을 집중적으로 벌리고 있음. 이로써 지난 4년 동안에 1,200여 동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산기슭에 건설되어 여러 협동농장마을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었음.

○ 황해북도 개성시의 농촌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1)

- 황해북도 개성시는 박연지구에 살림집 건설사업을 벌려 1동 1세대, 1동 2세대 농촌 살림집 130여 세대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1,800m의 울타리공사와 관리위원회, 리당사무실 건설, 박연중학교 대보수, 지대정리도 끝냈음.
- 삼거리농촌살림집 건설에는 개성송도식료공장, 개성대성수예품공장 등 각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이 나선 가운데 6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수십 세대를 대보수하였으며 1,400여m의 울타리공사, 주변정리도 짧은 기간에 끝냈음.

○ 살림집 건설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13)

- 함경남도 리원군은 어려운 조건에서 군인정신으로 지방건재와 유희자재를 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염성협동농장과 중평협동농장의 양지 바른 곳에 60여 동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음.
- 평안북도 광산군 내 살림집 건설공사량의 50%정도를 군급기관, 기업소들이 맡아 수행하는 가운데 인민위원회는 자재보장대책을 세우고 공사속도를 높여 올해에만 도 읍지구에 150세대, 농촌리에 96세대의 살림집이 건설하였음.

□ 해안방조제 공사

○ 평안남도 문덕군의 해안방조제공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9)

- 평안남도 문덕군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마대흙쌓기 2만m³, 6천여 대의 말장박기를 진행하여 해안방조제를 보수한데 이어 청천강, 대령강합수지대에 해안방조제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각 시, 군, 연합기업소에서 동원된 건설자들은 흙처리, 기초쌓기, 블로그 만들기를 끝내고 블로그 깔기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있음.

□ 농촌발전상 소개

○ 황해남도 청단군 운곡리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8)

- 황해남도 청단군 운곡리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골짜기에 위치한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음. 정규철 리당비서는 흐르는 물,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내놓고 골짜기 농지를 답사하면서 굴포의 위치와 깊이, 너비, 모양까지 정하였음. 리에서는 굴포파기와 양수설비 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한달여 만에 골짜기 논 가까이에 저수지를 만들고 굴포와 양수설비를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양시 상원목장 신원분장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

- 평양시 상원군 상원목장 신원분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가 사는 고장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는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분장은 100여 동의 현대적인 농촌살림집과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공공건물을 건설하여 분장마을을 문화농촌으로 전변시켰음.

7. 산 림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 산림경영학연구소는 같은 양묘장 면적에서도 생산성을 1.3~1.5배 높일 수 있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경제림연구소와 산림보호학연구소는 밤나무, 호두나무, 잣나무를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육종하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빨리 번식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하여 전국 도처에 많은 경제림을 조성, 관리해나가고 있음.

□ 산 림

○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국토환경보호성 김경준 부상의 글을 게재(민주조선 7. 22)

- 국토환경보호성 김경준 부상은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따르는 몇가지 문제들을 밝힘. 무엇보다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함. 아카시아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새 품종의 오동나무를 도입하며 참오동나무와 수유나무를 많이 심어야 함.
- 나무를 심고 수림을 조성할 때에는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해당 지방의 기후풍토와 토양조건에 맞게 침엽수와 활엽수를 배합하고 양묘장에서 2~3년 정도 자란 나무모를 심어야 함.
- 이와 함께 나무모와 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부문은 육종, 채종체계를 세우고 국가적 검정을 거친 나무종자들을 나무모 생산에 이용해야 하며 도, 시, 군 등 해당 단위들은 양묘장을 조성하고 나무모 비배관리를 잘하여 나무모 생산을 늘려야 함.
- 산림과학분야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적합한 좋은 수종의 나무를 개발, 도입해야 하며 식물성장촉진제, 고려생물비료 등 식물성장을 촉진시키는 재료들을 연구개발하여 이용해야 함.
-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실현하는데서 산림보호사업은 매우 중요함. 모든 부문과 단위들은 산불방지 교양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함. 이와

함께 검역체계를 세워 병해충을 제때에 발견하고 구제해야 함.

○ 산림조성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6)

- 자강도 장강군은 산림보호관리사업을 지대적 특성과 시기별 조건에 맞게 잘해나가고 있음. 군은 산림에 대한 김매기와 잡관목 제거, 약치기를 조직하여 심은 나무의 활착률을 높이고 있으며 산불방지대책과 병해충피해예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함경남도 고원군 인민위원회는 양묘장을 잘 꾸리고 나무모 비배관리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군인민위원회는 상평리의 모체양묘장에서 어린 나무모 비배관리와 자란 나무모를 중간 포전에 옮겨주고 이를 관리하는 문제, 3~4년씩 자란 나무모를 마감포전에 옮겨 적응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방식상학을 진행하였음.

○ 함경북도 길주군의 산림보호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9)

- 함경북도 길주군 인민위원회는 이미 심어놓은 나무에 대한 보호사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위원회는 산림감독원들과 산이용반의 역할을 높이고 60여개의 산이용반 성원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조직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병해충 예방을 위해 산림구획들에 대한 검역체계를 세우고 예찰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기름나무림 조성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8)

- 황해북도 서흥군은 수유나무림 조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수유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 기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고 있음. 구성시, 개성시를 비롯한 다른 시, 군들도 수유나무림을 조성하였으며 황해남도, 평안남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도, 시군들에서도 잣나무, 호두나무, 기름밤나무 등을 심어 덕을 보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 수유나무림사업소의 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8)

- 황해북도 서흥군 수유나무림사업소는 수유나무 열매 수확준비를 잘하고 있음. 사업소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자재를 수급하면서 열매 건조장과 보관창고를 새로 정리하고 있으며 기름의 실수율을 높이기 위해 착유설비를 보수정비하고 있음.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의 과학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9)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 산림경영학연구소는 같은 양묘장 면적에서도 생산성을 1.3~1.5배 높일 수 있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 경제림연구소와 산림보호학연구소는 밤나무, 호두나무, 잣나무를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육종하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빨리 번식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하여 전국 도처에 많은 경제림을 조성, 관리해나가고 있음.
 - 이 밖에도 산림과학원은 산림보호사업, 우량품종을 빨리 번식시키기 위한 사업, 잘트지 않는 종자들을 처리하는 기계의 설계제작사업 등 여러 부문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8. 농촌지원사업

-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임.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이 전적으로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체 인민들은 농사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농촌을 적극 돕고 있음.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공화국 공민의 의무라는 것을 자각하고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적극 나서야할 것임.

- 농촌지원사업
 - 평양시 평천구역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
 - 평양시 평천구역 당위원회는 강남군 영진협동농장을 비롯한 몇 개 농장을 맡아 필요한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고 있음.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수백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모내기, 김매기 등 당면한 영농작업을 돕고 있으며 구역 내 공장, 기업소들은 협동농장들에 보내줄 이동식 벼탈곡기, 트랙터 부속품과 탈곡기 수리용 부속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수매량정성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0)
 - 수매량정성은 평안남도 증산군 신흥협동농장은 강냉이 가을시기를 맞아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반의 탈곡장, 강냉이보관고를 보수정비하였음. 최근 수매량정성은 화물자동차와 벼종합수확기를 비롯하여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준데 이어 일손을 동원하여 이곳 농장원들의 일손을 돕고 있음.
 - 함경북도의 농기구 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1)
 - 함경북도 각 시, 군, 구역에서는 공장, 기업소 등지에서 가을건이에 필요한 농기구를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얼마 전에 도급기관들과 청진 시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18종에 1만 7천여점의 농기구를 각지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 가을걷이 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1)

- 로동성은 가을걷이에서 과학적인 노력동원계획을 세우기 위해 일군들을 현지에 보내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함으로써 지난시기보다 가을걷이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노력동원안을 완성하였음.
- 수매량정성은 양곡가공설비들의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성은 평양시, 신의주시, 덕천시, 회령시, 고산군을 비롯한 각 도, 시, 군들에 곡종별 표준양곡가공공정을 현대적으로 조성하고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음. 성은 돌분리기, 현미기, 정미기 등 많은 설비와 부속품을 마련하여 전국의 수많은 량정사업소에 보내주고 있음.

○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신성한 공민적 의무’라는 글을 게재(로동신문 9. 29)

-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임. 사회주의조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전체 인민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애국심의 발현으로 됨.
-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이 전적으로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체 인민들은 농사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농촌을 적극 돕고 있음.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공화국 공민의 의무라는 것을 자각하고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적극 나서야할 것임.

○ 황해남도 해주시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7)

- 황해남도 해주시 인민위원회는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시내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들에서 농촌지원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실시하였음. 해주시 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연양협동농장에서 강냉이가을작업을 도와 강냉이 가을을 끝낸데 이어 벼가을에 일손을 보태고 있음.

○ 체육지도위원회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8)

- 체육지도위원회는 담당협동농장의 가을걷이를 제 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노력동원사업을 실시하고 가을걷이 일손을 돕고 있으며 농작물 수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보내주었음.

9. 기타 작물

□ 장마철과 가을철을 맞아 콩과 옥수수, 과수, 채소, 고구마, 유채 등의 작물들의 재배관리와 함께 가을걷이 준비와 수확 동향에 대해 보도

□ 콩

○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16)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콩밭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양수장 설비들을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이동양수장 설치도 준비하고 있음.
- 평안북도 의주군 운천협동농장은 장마철에 대비해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콩밭 둘레에 물도랑을 만들고 밭고랑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후치질을 깊이 하고 있음.
- 황해남도 배천군은 날짜별, 포전별 콩 비배관리계획을 세운데 이어 생육상태에 맞게 김매기와 덧비료주기, 콩밭관수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31)

- 평안북도 대관군 신온협동농장은 앞그루 밀보리를 가을하면서 실어들이기, 거름 실어들이기, 밭갈이, 뒤그루 콩심기를 따라 세워 3일 동안에 앞그루밀보리 가을과 뒤그루 콩심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농장은 강냉이밭 세벌김매기를 하면서 40%의 역량을 뒤그루 콩밭김매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병해충예찰사업과 장마철 피해방지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 태탄군 과산협동농장은 지난해보다 뒤그루 콩 재배면적을 몇배로 늘린데 이어 콩밭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31)

- 평안남도 문덕군 만흥협동농장은 다수확품종 콩밭에 5회 김매기와 후치질, 덧비료

주기를 끝내고 콩생육조사와 콩밭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한편 병해충예찰사업과 장마철 피해막이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줄강낭콩농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

- 평안북도 창성군은 해마다 줄강낭콩 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올해에도 농촌살림집들과 탈곡장 주변, 길가 등에 줄강낭콩을 심고 있음.
- 자강도 동신군 동창협동농장은 줄강낭콩농사를 식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해마다 모든 가정에서 줄강낭콩을 100포기씩 심도록 하고 있음. 농장은 살림집 울타리와 공공건물 주변, 길 옆 등 빈 땅에 줄강낭콩을 대대적으로 심고 년출 올리기와 김매기 등을 잘해나가고 있음.
-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협동농장은 집집마다 줄강낭콩을 100포기 이상씩 심어 잘 가꾸고 있음.

○ 함경남도 함흥시의 콩밭 비배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10)

- 함경남도 함흥 시내 협동농장들은 콩밭 비배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중호협동농장은 농기계와 농기구를 집중하여 콩밭 후치질을 앞세우고 5회 이상 김매기를 질적으로 하였음. 대흥, 풍호, 류정협동농장은 공전문분조의 역할을 높여 병해충 및 장마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황해북도 금천군 강남협동농장의 콩밭 가꾸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0)

- 황해북도 금천군 강남협동농장은 날씨조건에 맞게 콩밭 가꾸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작업반에서는 병해충예찰예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콩포기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밭 둘레에 물도랑은 물론 고랑을 만들어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있음.

○ 황해남도 태탄군 운산협동농장의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9)

- 황해남도 태탄군 운산협동농장은 제3작업반을 콩농사 적지로 정하고 짧은 기간에 정보당 수십 톤씩 질 좋은 거름을 깔면서 뽕개식 이동관수설비를 마련하였음.

○ 평안북도 삭주군의 콩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4)

- 평안북도 삭주군은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콩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데 힘을 쏟고 있음. 중대협동농장을 비롯한 협동농장들은 잎덧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고랑관수 혹은 강우기관수 등 실정에 맞는 관수방법들을 받아들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음.

□ 옥수수

○ 황해남도 봉천군의 강냉이 가을걷이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3)

- 황해남도 봉천군은 중소농기구 준비와 강냉이 보관고 보수 및 건설, 탈곡기 수리를 끝내고 강냉이 가을걷이를 진행하고 있음. 송정, 루천협동농장을 비롯한 각 협동농장들은 날짜별 계획에 따라 강냉이 가을걷이를 다그치고 있음.

○ 강냉이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16)

- 평안남도 성천군은 강냉이 가을을 짧은 기간 내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강냉이가 여문 상태를 알아보고 가을걷이계획을 세워 일손과 기계수단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온정, 룡산협동농장은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가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트랙터와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에 갈개를 깔고 강냉이를 운반하여 낱알허실을 최소화하고 있음.
- 황해남도 은률군 장련, 원평협동농장은 가을걷이계획에 맞게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고 있으며 은혜, 금산, 관해협동농장은 낱알허실을 막기 위해 강냉이 이삭들을 지체없이 탈곡장으로 운반하고 있음.

○ 강냉이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7)

- 함경남도 함주군은 강냉이 가을걷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동봉, 수흥협동농장은 이삭이 익는대로 가을하면서 따낸 이삭을 그날로 탈곡장에 실어들여 보관고에 넣어두도록 하고 있음. 조양, 주서, 신덕협동농장은 강냉이 가을과 이삭운반을 앞세우면서 탈곡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선천군은 날짜별, 포전별 가을걷이계획을 세우고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익는대로 강냉이 가을을 다그치고 있음. 군은 협동농장들에서 강냉이 이삭부터 먼저 따들이고 뒤이어 강냉이대를 베어 낱알허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 강냉이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0)

- 평안남도 개천시는 강냉이가 여문 상태에 맞게 일손을 집중하고 운반수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벌리고 있음. 보부, 준혁, 광도, 대각, 구읍협동농장은 강냉이 가을을 일정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수확한 강냉이는 제때에 탈곡장에 실어들여 보관고에 넣어두고 있음.
- 평안북도 위원군은 포전별로 강냉이 가을 적기를 정하고 일손과 기계수단을 합리

적으로 이용하여 가을작업을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어곡, 광천, 창평, 도봉, 삼락협동농장은 일정계획대로 강냉이 가을을 제 철에 질적으로 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가창협동농장은 탈곡장 정리와 강냉이보관고 보수, 중소농기구 준비, 농기계 수리정비를 끝내고 매일 계획보다 1.2배 이상의 면적에서 가을걷이를 하고 있음.

○ 강냉이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3)

- 평안북도 벽동군은 골짜기의 남, 북쪽 밭의 강냉이 여문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자 강냉이 가을일정계획을 골짜기별로 세우고 모든 역량과 기계수단을 강냉이 가을에 집중하고 있음. 각 협동농장들은 강냉이 이삭따기와 실어들이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강냉이를 실어들이는 대로 껍질을 벗겨 보관고에 넣고 있음.
- 황해북도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은 일정계획대로 강냉이를 가을하고 강냉이 보관고마다 잘 말린 강냉이를 가득 채우고 있음. 그 가운데 축산작업반은 축산물 생산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수확 정보에 강냉이를 재배하고 있으며 가을걷이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강냉이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3)

- 함경남도 정평군 신상협동농장 제 4, 6작업반은 실정에 맞게 작업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매일 많은 면적에서 강냉이 가을을 하고 있음. 제 2, 5작업반도 가을걷이와 탈곡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황해북도 송림시 서송협동농장은 제 1작업반은 잘 익은 강냉이포전부터 먼저 가을할 수 있도록 포전별 계획을 세우고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가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각 작업반들은 트랙터, 달구지 등 운반수단을 미리 정비해두었다가 강냉이를 가을하는 족족 제때에 탈곡장에 실어들이고 있음.

○ 강냉이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7)

-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강냉이 가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읍, 서호, 대문협동농장은 강냉이 이삭따기와 베기, 실어들이기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있으며 룡계, 대화, 수진협동농장은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강냉이 가을걷이를 끝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황해남도 장연군은 벼가을에 앞서 강냉이 가을걷이에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을 적극

동참시키고 기관, 기업소의 수송수단들도 강냉이 실어들이기에 집중시켰음. 농산협동농장을 비롯한 각 협동농장들은 강냉이 가을을 다그치면서 난알허실의 최소화하면서 제 때에 털어 보관하고 있음.

○ 평안남도 신양군의 강냉이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7)

· 평안남도 신양군은 협동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농업근로자들은 물론 지원자들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군적으로 평년에 비해 1.5배나 높이 세운 강냉이가을 일정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

○ 강냉이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8)

· 자강도 희천시는 트랙터는 물론 소달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정에 맞는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그날 딱 강냉이를 그날로 탈곡장에 실어들이고 있으며 우시군은 일정계획대로 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가을걷이 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순천시 리수북청년협동농장은 포전별, 필지별 계획에 따라 강냉이 베기와 이삭따기를 앞세우고 일손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강냉이 가을걷이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남도 벽성군의 강냉이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9)

· 황해남도 벽성군 남창, 서원협동농장은 일손과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냉이 가을걷이 실적을 높이고 있으며 읍, 쌍암, 원평협동농장은 포전별 계획대로 강냉이 가을걷이를 다그치고 있음.

□ 과 수

○ 함경남도 북청군 룡전리 문화협동농장의 과수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7)

· 함경남도 북청군 룡전리 문화협동농장은 과수 가꾸기와 기계화작업에 편리한 평지에 과수원을 조성하고 다수확품종의 키낮은 사과나무심기를 전망성 있게 하고 있음. 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 과일생산을 늘리기 위해 과수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양 잡

○ 평안남도 성천고치생산사업소의 누에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31)

- 평안남도 성천고치생산사업소는 뽕누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고치 생산을 늘리고 있음. 군자, 계석작업반은 뽕밭관리를 잘하여 뽕잎 생산을 늘리고 누에먹이 주기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창, 대봉작업반은 뽕밭 가까이 잠실을 지어놓고 누에의 생육상태에 맞게 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음.

□ 메기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메기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기공장이 위치한 시, 군들은 농목장들에서 나오는 단백질 부산물을 메기공장에 보내주고 동서해안의 수산사업소들은 어분을 말려 보내주어야 함.

□ 양 어

○ 메기양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6)

- 메기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먹이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해야 함. 메기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이 원천을 동원이용해야 함. 메기공장이 위치한 시, 군들은 농목장들에서 나오는 단백질 부산물을 메기공장에 보내주고 동서해안의 수산사업소들은 어분을 말려 보내주어야 함.
- 양어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성이 높고 원가가 적게 드는 단백질원천을 연구완성하여 생산에 도입해야 하며 메기공장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생산과 함께 단백질식물을 재배하여 배합먹이 생산에 적극 이용해야 함.
- 평양메기공장은 종어장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장을 건설하여 사철 메기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공장은 물관리, 영양관리를 잘하여 먹이단위가 낮고 성장률이 빠르며 저항력이 강한 종자메기를 70여 개 단위에 보급하였음. 뿐만 아니라 종합첨가제와 효소제를 자체 생산하여 생육단계별로 배합먹이를 생산하고 있음.
- 평양시 동신메기공장은 서해안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제사공장들에서 나오는 누에 번데기를 먹이로 이용하는 한편 자체 배합먹이생산기지를 조성하여 먹이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양어사업소의 양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2)

·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양어사업소는 짧은 기간에 수백㎡의 새끼고기 기르는 건물과 먹이가공설비들을 갖춘 메기양어기지를 조성하고 메기작업반을 조직하였음. 메기 작업반은 맛 좋고 빨리 자라는 메기종자를 확보하고 새끼메기 생산과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가공작업반은 먹이성형기를 새로 만들어놓고 질 좋은 물고기먹이를 생산보장하고 있음.

○ 평안북도 대관메기공장의 단백질 이용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0)

· 평안북도 대관메기공장은 단백질을 심어 많은 먹이를 생산보장하고 있음. 영양가가 높은 단백질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한해에 3~4번 수확하는데 정보당 30~40톤씩 수확할 수 있음. 또한 단백질은 메기먹이로는 물론 여러 가지 가축먹이로도 이용되며 한번만 심으면 해를 거듭하면서 수확할 수 있음. 공장은 단백질씨 생산을 늘리는 한편 곳곳에 빈땅을 찾아 단백질을 심었음.

○ 평안북도 신의주종어사업소의 양어장 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7)

· 평안북도 신의주종어사업소는 여름철 양어장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양어작업반들은 장마철에 허물어진 독을 복구하고 어미고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깨우기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양어사업소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30)

·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양어사업소는 양어의 과학화와 증산투쟁을 벌려 칠색송어와 잉어, 메기를 비롯한 갖가지 물고기를 집약적으로 길러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먹이 소비기준을 줄이고 자연먹이를 적극 이용하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개구리

○ 개구리 보호증식에 대한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장일남의 글을 게재(민주조선 7. 16)

·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장일남은 개구리 보호증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개구리는 농작물과 과수 및 산림에 해를 주는 메뚜기류, 늦벌레, 송충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이로운 동물로 개구리를 적극 보호증식해야 함.

- 개구리 보호증식을 위해서 개구리에게 필요한 생태적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함. 논밭갈이할 때 겨울잠 자는 개구리를 보호하고 개울이나 물웅덩이의 낮은 물에 떠내려가는 개구리를 잡지 말아야 함. 이른 봄 웅덩이가 개울물이 마를 때는 알과 올챙이가 죽지 않도록 물을 대주어야 함. 또한 개구리를 잡거나 올챙이와 알뭉치를 건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농약뿌린 물이 웅덩이에 흘러들지 않도록 논물관리를 잘 해주어야 함.
-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먹는 기름문제를 해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채심기에 대한 조직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유채기름은 비타민이 많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먹는 기름으로 널리 이용되며 비누, 안료 등 경공업제품과 의약품 원료, 기계기름으로 쓰이는 등 이용가치가 높음.
- 기름작물(유채, 해바라기)
- 기름작물농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9)
- 평안남도 숙천군 백암농장은 기름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빈땅과 길가 등 들깨를 심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어 분조마다 한정보씩 들깨를 심어 가꾸고 있음.
 - 자강도 송원군 신양협동농장은 해마다 10여 정보의 빈땅에 키낮은 해바라기를 심어 농장원세대마다 적지 않은 기름을 공급하고 있음.
 - 황해남도 강령군 내동협동농장은 유채를 많이 심어 먹는 기름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농장은 논앞그루로 심은 유채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물도량을 깊숙히 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유채 생산량을 늘렸음.
- 유채농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3)
-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먹는 기름문제를 해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유채심기에 대한 조직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일군들은 가장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는 최적기에 유채를 심어야 함. 시, 군들은 유채씨뿌리기를 인민군대식으로 최적기에 끝내도록 해야 함. 유채심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잘해야 함. 유채밭 적지선정에서 앞선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유채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해야 함.
 - 평안북도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은 먹는 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이모작농사

앞그루작물 유채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심고 있음. 각 작업반들은 유채의 생물학적 특성과 비배관리에 적합한 과학기술적 요구에 따라 기술규정대로 유채를 심고 있음.

- 황해남도 옹진군은 협동농장 분조마다 1정보 이상씩 유채를 심도록 하는 한편 유채농사를 잘한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음. 읍, 원사, 수대, 진해협동농장 등 군내 모든 협동농장들과 기관, 기업소에서는 유채의 생육기일 보장을 위해 강냉이밭 김매기를 하고 고랑에 유채씨를 뿌리고 있음.

○ 유채농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30)

- 유채농사는 정보당 일손과 영농물자 투하량이 적고 영농공정 수행이 쉬우며 수확성이 높아 실리가 큼. 농촌경리부문 일꾼들은 유채농사가 알곡농사를 비롯한 다른 농사와 겹쳐서 진행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유채농사를 혁명적으로 조직해야 함.
- 유채농사를 잘하자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농촌들은 양지 바르고 습도가 알맞은 적지를 골라 겨울나기에 필요한 생육기일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는 시기를 정해야 함. 이와 함께 유채를 심을 때 기름을 충분히 내고 겨울난 유채를 되살리기 위한 비료를 제때에 주는 등 영양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황해남도 강령군 내동협동농장은 올해 30여 정보에 유채를 심기로 하고 작업반별로 유채과중면적과 씨뿌리기날짜, 평당 씨뿌림양을 정해 주었음. 제 1, 3작업반은 잘 익은 강냉이밭을 가을한 뒤 계획대로 유채씨를 뿌리고 있으며 제 2, 5작업반도 유채씨뿌리기를 일정계획대로 질적으로 하고 있음.

○ 유채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4)

- 유채를 제 철에 질적으로 심어 높은 수확고를 내기 위해서는 유채의 생태학적 특성을 잘 알고 재배의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유채기름은 비타민이 많고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먹는 기름으로 널리 이용되며 비누, 안료 등 경공업제품과 의약품 원료, 기계기름으로 쓰이는 등 이용가치가 높음.
- 유채는 추위와 산성에 잘 견디고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모작농사의 앞그루작물로 많이 심음. 유채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심는 것이 중요한데 강냉이를 세워둔채로 김을 잡고 밭고랑에 유채를 심어 생육기일을 보장하는 것이 좋음. 이와 함께 밑거름과 물기를 충분히 보장하고 씨숙음을 잘해주어야 함.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다음해 유채농사를 성과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위원회

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다음해 유채면적을 확정하고 종자 확보에 힘을 쏟고 있으며 유채농사 적지를 기술규정대로 확정해나가고 있음.

- 위원회는 협동농장들에서 유채씨뿌리기 계획을 세우고 일손과 기계수단, 종자와 비료 등 생산요소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채씨뿌리기에 대한 과학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업성의 지도하에 각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가을채소심기 일정계획을 세우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짧은 기간에 채소 심기를 끝내도록 하고 있음. 량강도, 자강도는 가을배추, 무심기를 끝냈고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거름을 내면서 가을채소 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 채 소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남새처의 가을채소씨붙임 지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31)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남새처는 가을채소 씨붙임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일군들은 가을무 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내도록 하고 배추 영양단지씨넣기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음. 특히 종자처리에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채소밭에 사용할 속성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과학기술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평양시의 가을채소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7)

- 평양시내 농촌들은 역량을 집중하여 가을채소 씨붙임을 인민군대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비료를 비롯한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하는 가운데 시내 농촌들은 계획한 기간 내에 무씨붙임을 끝내고 강남군과 승호, 삼석구역은 배추영양단지씨넣기도 마무리하였음.

○ 가을채소 심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8)

- 농업성의 지도 하에 각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가을채소심기 일정계획을 세우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짧은 기간에 채소 심기를 끝내도록 하고 있음. 량강도, 자강도는 가을배추, 무심기를 끝냈고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거름을 내면서 가을채소 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 황해북도 황주군 장천협동농장의 가을채소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0)
 - 황해북도 황주군 장천협동농장은 습해를 받지 않고 관수조건이 좋은 포전을 가을채소 재배적지로 정하고 품종배치를 바로 하였음. 농장은 정보당 30톤 이상의 거름을 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벌리면서 채소를 심고 있음.
- 평양시의 가을채소 비배관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8)
 - 평양시 력포구역은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에서 군중을 동원하여 가을채소심기를 끝내고 김매기와 후치질을 진행하고 있음. 만경대구역은 무 씨숙음과 1차 후치질에 일손을 집중하고 있으며 관수 설비 수리정비와 채소밭 배수로 관리를 잘해나가고 있음.
- 가을채소농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30)
 - 함경남도 단천시 문호협동농장은 김장용 채소 생산을 앞두고 김매기와 덧거름주기를 잘해나가고 있으며 읍, 령산협동농장은 병해충 피해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덧비료주기, 물대기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평안남도 개천시는 가을채소심기를 최적기에 끝낸데 이어 채소의 생육단계와 날씨 조건에 맞게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채소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6)
 - 평양시는 가을채소 씨붙임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비배관리를 잘하고 있음. 력포, 만경대구역은 채소심기가 끝나는대로 김매기와 후치질, 씨숙음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좋은 초기생육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음.
 - 황해남도 해주시는 가을채소모판관리를 잘하여 실한 모를 길러낸데 이어 비배관리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가을채소 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보장하고 대용비료 준비, 관수준비 등을 잘해나가고 있음.
- 중앙남새연구소의 채소모 재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4)
 - 중앙남새연구소는 온습도, 빛 등을 자동조절할 수 있는 모생산공장에서 새로운 성형모틀방법으로 채소모를 생산하고 있음. 기질이김으로부터 성형, 씨앗주입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흙을 쓰지 않고 모판만들기공정과 포전으로 옮겨심을 때 물주기공정이 따로 없어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

□ 고구마

○ 고구마 캐는 시기를 소개(로동신문 9. 13)

- 고구마를 제 철에 캐는 것은 고구마의 소출과 품질, 저장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함. 고구마의 여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잎줄기가 누렇게 변할 때 고구마알을 파내어 잘라보고 자른 면이 흰색을 띠면 여분 것으로 봄. 고구마는 해당 지방에서 첫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는 것이 좋음.

○ 고구마 캐기와 저장방법을 소개(로동신문 9. 29)

- 고구마를 제 철에 캐는 것은 고구마의 소출과 품질, 저장성을 높이는데 중요함. 고구마가 여물면 잎이 누런색을 띠고 알을 자르면 살이 흰색을 띠며. 우리나라에서는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고구마를 캐는 것이 좋는데 캐기작업은 기계로도 할 수 있고 부림소로 이랑을 후친 다음 호미를 가지고도 할 수 있음.
- 밭에서 캐 고구마는 임시저장하여 일정한 정도로 물기를 말린 다음에 본저장을 해야 함. 본저장방법으로는 구덩이식, 온돌식, 땅굴식 저장방법이 있음.

□ 약초재배

○ ‘약초재배월간사업을 힘있게 벌리자’를 게재(민주조선 9. 7)

- 9, 10월 약초재배월간을 맞아 전국의 모든 지역, 단위에서는 약초재배월간사업을 균중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함. 각급 인민위원회들과 보건부문의 해당 단위들은 자기 지역에서 자라는 약초품종을 바로 정하고 약초채취계획을 세워야 하며 봄철약초재배에 필요한 종자종근을 확보, 관리해야 함. 이와 함께 약초밭 김매기와 비료주기를 제때에 하고 병해충피해대책도 세워야 함.

○ ‘가을철약초재배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자’를 게재(로동신문 9. 19)

- 9, 10월 약초재배월간을 맞아 우선 약초, 약나무열매들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여야 함. 약초수확시기를 품종별, 포전별로 정하고 제때에 채취하며 거두어 들인 약초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함. 특히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약초재배사업에 주의를 기울여 한포기를 캐고 열포기를 심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약초를 심고 가꾸는데도 힘을 쏟도록 해야 함.

10. 기타 보도 동향

- 농업과학원 발작물연구소의 종자연구사업, 황해북도분원의 서해안지대 이모작 연구성과,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앞그루밀보리파종체계 및 토양관리기계화체계 연구, 식물보호학연구소의 감자원종 병해충구제방법 연구, 수의학연구소의 가축 질병치료예방약 연구 등 각 연구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 중임.

- 농업과학기술
 - 농업과학원 발작물연구소의 종자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0)
 - 농업과학원 발작물연구소는 새로운 발벼종자를 육종한데 이어 북창, 녕원군 등 각 지역에 도입하는데 따르는 기술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이모작에 적합하면서 수확고가 높은 콩종자, 감자종자를 육종하여 올해 평안남도 은산군에 시범 도입한 성과를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 황해북도분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2)
 - 농업과학원 황해북도분원은 서해안지대 이모작에 적합한 여러 종의 밀보리품종과 수확고가 120~130%로 높고 맛이 좋은 배추품종을 육종하였음. 또한 조직배양에 의한 고구마원종번식방법과 종자보존방법을 확립하여 고구마모 다량생산의 전망을 열어놓았음.
 - 농업과학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6)
 - 농업과학원 농업기계화연구소는 앞그루밀보리파종체계, 토양관리기계화체계 확립과 함께 줄늪힘식 수확기, 키큰작물 수확기, 이랑갈이보습, 트랙터틀보습, 이동식 만능탈곡기 등을 연구완성하여 농촌 기계화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 식물보호학연구소는 올해 감자원종 생산에서 우리 식의 병해충구제방법을 연구완성한데 이어 잎채소 주요 병해충구제를 위한 생물농약과 미생물논살초제, 강냉이대 벌레피해 예방용 붉은눈알기생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는 가축 질병치료예방약을 만들어 여러 단위에 보급함으로써 현지 일군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건설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
- 량강도 대흥단군과 삼지연군 내 농장 작업반들은 50여 개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건설하였음. 새로 건설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는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관련한 학습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습들이 진행되고 있음.
- 8월 말까지 예견해야 할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7)
- ‘농작물생육예보’ 제 19호에 따르면 8월, 우리나라의 월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고 강수량은 평년정도로 예견됨. 8월 중순 평균기온은 평양, 신의주, 평성, 사리원, 해주지방에서 20.3~25.0℃이며 강수량은 30~95mm, 월평균해비침률은 44%로 보고 있음.
 - 농업과학원의 통보에 의하면 8월 말까지 예견해야 할 농업기술적 대책은 논벼농사에서 이삭패는 시기와 이삭 나오는 상태를 조사관찰해야 하며 논물관리를 잘해나가야 함. 또한 콩농사에서 과습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물도랑 가시기와 빨물길정리를 잘해야 하며 뒤그루콩농사에서는 김매기, 후치질, 복주기 등 비배관리를 잘해야 함.
- 농업과학원 강원도분원의 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4)
- 농업과학원 강원도분원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과학농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데 힘을 쏟았음. 안변군을 제외한 다른 군들에서 새로운 과학연구성과를 도입하는 조건에서 과학자들은 작물구조와 품종을 개선하며 영농공정 및 방법을 실행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논벼농사에서 모내기 적기를, 강냉이농사에서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도록 영농자재를 차질없이 보장하고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올해 평강과 철원을 비롯한 과학연구성과확대도입단위들은 모내기시기를 종전보다 앞당겨 최적기를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와 함께 분원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농업기술적인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나가고 있음. 분원은 여러 단위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적인 대책안을 세워 통보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든 영농공정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준수해나가도록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장마철을 대비하여 강하천, 저수지 보수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저수지의 독 상태를 확인하면서 제방을 보강하고 저수지 수문과 고인물빼기 양수장 등 물빼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음. 또한 강냉이밭에 물빼기도랑을 만드는 한편 새끼줄을 쳐서 강냉이포기를 보호하고 있음.
- 장마철 대비
- 장마철 피해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19)
- 강원도 평강군은 장마철에 대비하여 강하천, 저수지 보수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군 일군들은 각 협동농장에서 저수지의 독 상태를 확인하면서 제방을 보강하고 저수지 수문과 고인물빼기 양수장 등 물빼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음.
- 평양시 삼석구역의 장마철 대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31)
- 평양시 삼석구역은 장마철 비바람피해 예방을 위해 물길, 저수지, 제방독을 점검하면서 각 지구별 고인물빼기양수기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있음. 장수원협동농장을 비롯한 구역 내 협동농장들은 물길독을 보수하고 받머리물도랑을 깊이 파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있음.
- 장마철 피해방지대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5)
- 평안남도 평원군 내 협동농장들은 해안방조제, 물길을 정비보강하였고 숙천, 온천군도 방조제 정비보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북창군, 개천시, 신양군은 배수설비들의 보수정비를 질적으로 하고 강냉이밭에 물빼기도랑을 만드는 한편 새끼줄을 쳐서 강냉이포기를 보호하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 룡연, 양서, 룡성협동농장은 수로독을 보강하고 비가 올 때 논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막고 논에 있는 물이 빠지도록 하고 있음. 쌍룡, 덕승, 학흥협동농장은 강냉이밭에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늘어 비바람에 강냉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모작 뒤그루 벼포기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장마철 피해막이대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1)
- 평안북도 룡천군은 덕승지구 배수로공사를 끝냈고 염주군은 신정, 다사지구의 고인물 배수능력을 확장하였음. 운진군은 20여개 배수문 수리정비, 개건확장공사를 끝내 배수능력을 2배로 늘렸으며 선천군은 11개 대상의 물길공사를 끝냈음. 정주시는 신봉지구를 비롯한 8개 위험대상에 제방을 쌓고 돌입히기를 끝냈음.

- 함경북도 어랑군은 어랑천을 비롯한 강하천들을 돌아보고 군중적으로 제방독을 보강하였음. 군관개관리소는 장마철에 논밭이 유실되지 않도록 고인물빼기대책을 세우고 수남, 남천, 팔경대배수양수장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질적으로 하였음. 이와 함께 각 협동농장들은 밭머리에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늘어 농작물을 보호하고 있음.
- 황해남도 배천군의 장마철 피해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9)
 - 황해남도 배천군은 장마철에 대비해 고인물빼기 시설을 점검하고 물길과 배수문 관리를 잘하여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있음.
- 평안북도 광산연결농기계공장의 이동식 소형탈곡기 개발소식과 각 지역의 농기계작업소의 생산사업 동향, 농기계공업관리국의 트랙터 부속품 공급, 제32차 전국농기계전시회에 대해 보도하고 있음.
- 기계화
 - 2월26일공장의 운전기재 부속품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17)
 - 2월26일공장은 농촌에 보내줄 운전기재 부속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장은 다른 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하고 노동자,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유휴자재를 확보하는 한편 각 직장에서는 설비관리를 잘하고 앞선 가공방법을 받아들여 운전기재 부속품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광산연결농기계공장의 이동식 소형탈곡기 개발소식을 보도(민주조선 7. 19)
 - 평안북도 광산연결농기계공장은 성능 높은 120kg짜리 이동식 소형탈곡기를 만들어 냈음. 이동식 탈곡기는 현장에서 직접 탈곡하기 때문에 벧단 운반시 발생하는 낱알 허실을 막을 수 있으며 벧단 운반에 이용되던 일손과 기름을 절약할 수 있음.
 - 황해북도 황주군농기계작업소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5)
 - 황해북도 황주군농기계작업소는 가을걷이를 앞두고 농기계 부속품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작업소는 각종 치차류를 비롯한 40여종의 트랙터와 농기계 부속품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매일 생산계획을 2배 이상 초과달성하고 있음.
 - 황해남도 옹진군 농기계작업소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5)
 - 황해남도 옹진군 농기계작업소는 자체적으로 생산공정을 개건하고 소재생산기지

를 조성하였으며 수십 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면서 농기계부속품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 함경남도의 농기계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1)

- 함경남도는 농산작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률적인 농기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락원군에서 능률높은 종합탈곡기를 새로 제작한데 이어 홍원군은 콩과종기, 콩종자선별기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홍남시, 금야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감자수확기와 살창교정절단기 등을 만들어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 제32차 전국농기계전시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

- 제32차 전국농기계전시회가 농업성, 농근맹중앙위원회 공동주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진행되었음. 전시회장에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제작한 41종에 130점의 농기계가 전시된 가운데 숙천군농기계작업소가 단체 1등을 하였고 황주군 금석협동농장, 신천군농기계작업소, 신의주시농기계작업소, 함주군 동암협동농장에서 출품한 여러 파종기와 모내는 기계, 종합탈곡기, 물논회전씨레가 좋은 평가를 받았음.

○ 함경북도 경원군 농기계작업소의 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3)

- 함경북도 경원군 농기계작업소는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를 잘하며 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협동농장에서 자체로 수리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농기구를 능률적으로 개조하거나 창안제작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 탈곡기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4)

- 농업성 농기계운영국과 농기계공업관리국은 능률높은 탈곡기를 제작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해주연결농기계공장, 함흥연결농기계공장, 신원기계공장은 이동식, 고정식이 가능한 신형 종합탈곡기를 생산하여 이미 수십대를 농촌에 공급하였고 평안북도 내 시, 군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은 남농1호 탈곡기와 이동식 소형탈곡기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 농업성 농기계운영국의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천수백대의 종합탈곡기, 이동식 소형탈곡기들이 생산되었음.

○ 황해남도 봉천군의 이동식탈곡기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6)

- 황해남도 봉천군은 농산작업반마다 이동식탈곡기를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군농기구공장, 농기계작업소는 부속품을 질적으로 제작하고 생산능률을 높여 일정계획대로 이동식탈곡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각 협동농장들은 각종 철판과 부속품소재를 확보하는대로 생산현장에 보내주고 있음.

○ 트랙터 부속품 생산공급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9)

-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 하 각지 농장들은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촌에 트랙터 부속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청진, 사리원, 정주트랙터부속품공장을 비롯한 각지 트랙터부속품공장들은 부족한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부속품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음.

○ 기계공업성 운전기계공업관리국의 부속품 생산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7)

- 기계공업성 운전기계공업관리국은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촌들에 더 많은 운전기계 부속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2월26일공장, 보통강전기공장, 금성트랙터공장, 강서기관부속품공장은 기술혁신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운전기계부속품을 생산하고 있음.

□ 기초식품

○ 평안남도 맹산장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4)

- 평안남도 맹산장공장은 최근 된장, 간장 생산설비를 보다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과자, 사탕성형기, 기름압출기 등 수십대의 설비를 갱신하는 등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기술개선을 적극 추진해 1차 소비품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음.

○ 함경북도 회령기초식품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6)

- 함경북도 회령기초식품공장은 기초식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원료, 자재 보장사업에 주력하면서 지방의 원료원천과 내부예비를 동원이용하고 있음. 공장은 생산설비를 개조하여 기초식품의 맛을 개선하고 기름실수율을 높였으며 기초식품의 품종수를 다양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황해남도 웅진영예군인장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7)
 - 황해남도 웅진영예군인장공장은 연료를 쓰지 않고 온천물에 의한 장 생산방법과 8자형 날개식장펌프를 도입하여 기초식품의 질과 생산량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자강도 강계기초식품공장의 포장공정 도입공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6)
 - 자강도 강계기초식품공장은 현대적인 포장공정 도입공사를 마무리단계에서 진행 중임. 공무작업반은 건축공사가 완공되어 가는데 맞게 정량공급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설비제작에 힘을 쏟고 있음.

□ 식품가공

-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시찰하였다고 보도(로동신문 7. 18, 민주조선 7. 19)
 - 김정일이 새로 건설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시찰하였음. 13만여㎡의 부지에 건설된 공장은 기초식품을 비롯한 각종 부식물, 식료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양곡 가공도 가능한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임.
 - 김정일은 2년여의 짧은 기간에 식료가공공장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고 내각과 재정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에서 공장건설을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원군기풍을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 및 설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군부대들에 생산된 식료품을 제때에 공급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포장용기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리정남이 일하는 종합식료가공공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9, 민주조선 8. 19)
 - 리정남이 일하는 종합식료가공공장은 여느 식료가공공장이나 기초식품공장과 달리 간장, 된장을 비롯한 각종 기초식품과 주식물, 부식물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다량 생산 및 가공할 수 있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임.
 - 무엇보다 공장에서 생산 및 가공하는 제품들의 품종이 다양하고 질이 높으며 대체로 군인들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식물들을 많이 가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이와 함께 부대, 구분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채소도 가공하여 보내주고 있음.

□ 메탄가스화

○ 농촌살림집 메탄가스화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

- 과학원 자연에너지개발이용센터 메탄가스실 과학자들은 황해북도 황주군 석산협동농장에서 메탄가스 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주고 메탄가스원료의 배합비율과 투입방법, 온도보장 등 메탄가스 생산과 이용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

□ 7, 8월 풀베기 철을 맞아 다음해 농사에 사용할 거름 70%를 풀거름으로 장만하기 위해 각지의 농가, 분조, 작업반마다 퇴적장을 만들어놓고의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

□ 풀베기 동향

○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1)

- 7, 8월 풀베기철을 맞아 풀베기를 제 철에 집중적으로 해야 함.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여 풀베기를 균중적으로 진행해야 함. 협동농장들은 작업반, 분조, 농업근로자들에게 풀베기과제를 주고 그 수행정형을 매일 총화하여 많은 풀을 베도록 해야 함.
- 풀거름 생산에서 질을 보장해야 함. 협동농장들은 풀을 베어내는 대로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퇴적장들에 실어내야 하며 농업근로자들은 퇴적장에 풀을 잘게 썰어 일정한 높이로 쌓은 뒤 진거름과 소석회를 뿌리고 다시 풀을 쌓으면서 잘 썩게 해야 함.
- 함경남도 함주군 조양협동농장은 월별, 날짜별 풀베기계획을 세우고 작업반, 분조, 농장원별 작업과제를 분담하여 풀베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평안남도 양덕군은 협동농장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들과 가두인민반까지 총동원하여 풀베기사업을 벌리고 있음. 또한 트랙터 70여대와 소달구지 400여대 등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풀을 베어내는 대로 퇴적장에 실어들이고 있음.

○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22)

- 황해북도 신평군은 풀베기에 일손과 수송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평화, 미송협동농

장은 풀거름 생산에 유리한 시기를 고려해 풀베기 일정계획을 세우고 풀을 베어내는 대로 퇴적장에 쌓아 질적으로 썩히고 있음.

- 황해북도 연산군 반천협동농장은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곳곳에 퇴적장을 만들고 그날 벤 풀은 그날로 실어들여 가축우리에 밍혀내고 있음.

○ 황해북도 개성시의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8)

- 황해북도 개성 시내 협동농장들은 작업반, 분조, 세대별 풀베기과제를 분담하여 풀베기를 진행하고 공동퇴적장과 세대별퇴적장을 만들어 기술적 요구대로 풀을 쌓아 나가고 있음.

○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29)

-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다음해 농사에 사용할 거름 70%를 풀거름으로 장만하기 위해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철산군은 농가, 분조, 작업반마다 퇴적장을 만들어놓고 많은 풀을 베어들이고 있으며 동창, 천마, 염주군도 일정계획대로 풀베기를 진행하여 풀거름더미를 쌓아가고 있음.
- 황해남도 신원군은 일손과 운반수단을 풀베기에 동원하는 한편 공동풀베기와 개인 풀베기를 배합하고 풀거름 생산에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받아들일도록 하고 있음.

○ 함경남도 북청군 부동협동농장의 풀베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4)

- 함경남도 북청군 부동협동농장은 다음해농사에 사용할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역량과 운반수단을 풀베기에 집중하고 있음. 작업반과 분조들은 풀을 베어내는대로 실어들이고 절단하여 퇴적장에 쌓고 진거름, 소식회를 뿌려주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평안북도 운산군의 풀거름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5)

- 평안북도 운산군 협동농장들은 농장세대들에서 퇴적장을 마련하도록 하고 세대별로 풀베기과제를 주어 수행하게 하였음. 성봉, 남산, 고성협동농장은 세대별로 경쟁을 벌려 풀베기를 하고 가축우리에 넣어 밍혀내고 있으며 영웅, 마상, 풍양협동농장도 질 좋은 풀거름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 평안남도 평원군의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6)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 삼봉, 읍협동농장은 농작물 비배관리에 필요한 일손을 제외

한 모든 인력을 풀베기에 집중하고 있음. 송석, 운룡협동농장은 작업반, 분조별 경쟁을 조직하여 풀베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7)

- 평안북도는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철산, 염주군은 풀거름원천을 찾아내면서 경쟁적으로 풀베기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선천, 구장, 태천군은 베어낸 풀을 비육분조와 농가의 퇴적장에 채우고 있음.
- 황해남도 강령군은 다음해 풀거름 생산에 필요한 많은 풀을 짧은 기간에 베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군은 종전과 달리 포전머리마다 퇴적장을 만들어 운반 거리를 줄였으며 작업반, 분조, 세대별 경쟁을 조직하여 매일 5천여 톤의 풀을 베어내고 있음.

○ 자강도 우시군 별하협동농장의 풀베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8)

- 자강도 우시군 별하협동농장은 풀원천이 풍부한 조건에서 트랙터, 부림소 등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베어낸 풀을 제때에 퇴적장에 실어들이고 있음. 농장은 실어들인 풀을 자르고 소석회, 진거름을 고루 섞어 풀거름더미를 쌓고 있음.

○ 각지 농촌의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9)

- 농업성은 각 도에 풀베기작업목표를 전달하고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들과의 연계하여 풀베기를 적극 다그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군맹중앙위원회는 풀베기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한데 이어 공동구호의 사상정신과 각종 정치사업자료, 교양자료들을 농업근로자들에게 해설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요즘 매일 전국적으로 90여만 톤의 풀을 베어들고 있으며 풀베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04% 앞섰음.

○ 황해북도 토산군의 풀베기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11)

- 황해북도 토산군은 적기에 풀을 베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수합협동농장은 일손과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매일 계획보다 많은 풀을 베어내고 있으며 양사협동농장은 작업반, 분조들에 100톤, 50톤 규모의 현지퇴적장을, 세대들에는 20톤 규모의 퇴적장을 만들도록 하여 풀거름을 채워나가고 있음.

○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2)

- 황해남도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은 조옥희영웅의 정신세계를 본받도록 농장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농장의 풀베기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황해북도 연산군은 풀원천이 많고 수송조건이 좋은 지역을 풀베기작업장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운반수단과 풀절단기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풀베기를 진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퇴적장을 잘 만들고 베어들인 풀을 제때에 절단하여 썩히고 있음.
- 함경북도 명간군 하평협동농장은 작업반, 분조, 농장원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모든 역량과 운반수단을 풀베기에 집중하여 풀베기 시작 일주일만에 4,200여 톤의 풀거름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풀베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9)

- 평안북도 피현군은 풀베기작업을 군중적으로 벌려 군내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에서 저마다 퇴적장을 마련하여 베어낸 풀을 쌓아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원군은 군일군들이 매일 농장들을 돌면서 풀베기작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풀베기실적을 파악하여 총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매일 7천여 톤의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황해북도 은파군 적성협동농장은 작업반별로 풀판구역과 풀베기목표를 정해주고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풀베기실적이 1.3~1.5배로 오르고 있음.
- 평안북도 운전군은 수십만 톤의 풀거름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각 협동농장에서 실정에 맞게 풀베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의 각 작업반, 분조에서 논밭머리, 집에 퇴적장을 만들어놓고 기술규정대로 진거름, 흙 등을 섞어 풀거름을 질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 평안남도의 풀베기작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19)

- 평안남도 평원, 증산, 룡강군, 덕천시 등은 노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풀베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베어놓은 풀은 그날로 실어들여 가축우리에서 밟혀내는 등 풀거름을 질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도적으로 매일 평균 1만 수천톤의 풀을 베어들여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풀거름 생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1)

- 강원도는 풀거름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최적기에 풀거름을 생산하는데 힘을 쏟

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풀거름 생산실적이 1.3배나 올랐음. 황해북도는 협동농장, 작업반별 경쟁을 조직하여 풀거름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황해남도는 풀거름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퇴적장에서 기술규정대로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황해북도 개성시 삼거협동농장은 풀베기 목표를 지난해의 2배로 잡고 공동퇴적장과 개별퇴적장 규격과 단계별 목표를 정하는 동시에 작업반, 분조마다 본보기 퇴적장을 만들어 기술규정대로 풀을 썬히도록 하고 있음.

○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1)

- 강원도 이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에서 풀베기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협동농장 간 경쟁을 조직하여 풀거름의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시기에 풀을 베어 들이게 하고 있음. 군은 매일 평균 1만 3,600여 톤의 풀을 베어들여 진거름에 재워 높이 쌓고 있음.
- 함경남도 정평군 룰성협동농장은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올해 풀베기과제를 끝내가고 있으며 창신협동농장은 작업반, 분조간 경쟁을 조직하여 매일 풀베기과제를 1.5배 이상 수행하고 있음.

○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8. 24)

- 자강도 만포시는 일손과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매일 풀베기실적을 계획보다 2배 이상으로 높이고 있으며 송원군은 집집마다 퇴적장을 마련해놓고 경쟁적으로 풀을 베어들여 쌓아놓고 있음. 룡림, 고풍, 초산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협동농장들도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질 좋은 풀거름 생산을 균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황해남도 연안군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수만 톤의 풀을 더 베어들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오현, 풍천, 발산협동농장은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풀베기 실적을 올리면서 베어들인 풀을 기술규정대로 더미를 쌓아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소정, 자양, 창덕협동농장은 풀원천을 모두 찾아낸데 기초하여 계획대로 풀베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평양시 강남군의 풀베기 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5)

- 평양시 강남군은 협동농장과 작업반, 분조 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읍협동농장과 신정, 신흥, 영진, 마정, 동정협동농장들이 풀베기작업 수행에서 앞서나가는 가운데 군내 기관, 기업소에서도 풀베기 성과를 확

대해 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의 풀베기작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8)

- 황해남도는 김매기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풀베기에 총력을 기울여 500여만 톤을 베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강령군은 계획대로 풀베기를 진행하면서 총화평가사업을 통해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봉천, 송화군을 비롯한 각 군들에서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풀베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 황해남도 신원군의 풀베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9)

- 황해남도 신원군은 하루 1만톤씩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화석협동농장은 작업반, 분조, 농장원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진행하여 하루 2천톤씩의 풀을 베어 퇴적장에 쌓고 있음. 무학, 신창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도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풀베기실적을 확대하고 있음.

□ 가마니짜기 사업

○ 가마니짜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7)

- 농근맹중앙위원회는 농장의 가을걷이 준비실태를 파악하면서 가마니 짜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일군들이 한 개 단위씩 담당하여 가마니짜기작업에 농업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협동농장들은 가을걷이를 진행하는 동시에 가마니짜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조국광복 60주년을 맞아 각 지역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이 8월 12일에 진행되었으며, 8월 14일 평양에서는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가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평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임.

□ 행사보도

○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16, 민주조선 7.16)

- 각지 농촌들에서 풀거름을 비롯한 유기질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풀베기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15일,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풀베기에서 사회주의경쟁을 벌릴 것을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임을 열었음.

- 조국광복 60주년 기념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3, 민주조선 8. 13)
 - 조국광복 60주년을 맞아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이 12일에 진행되었음. 농근맹중앙위원회 강창욱 위원장의 경축보고에 이은 연설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조국 광복의 의미를 지적하고 각지 농업근로자들이 농사를 잘 지어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며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쳐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조국광복 6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5, 민주조선 8. 15)
 - 조국광복 6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내각성원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항일혁명투쟁공로자들, 애국열사유가족들, 노력혁신자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이 경축보고를 하였음.
- 황해남도 청단군 화산협동농장의 쉼기모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3)
 - 황해남도 청단군 화산협동농장은 2일,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쉼기모임을 가졌음. 농근맹중앙위원회 강창욱 위원장,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 김진국 위원장, 도당위원회 리화진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이곳 농장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당면한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릴 것을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음.
- 황해남도 청단군 화산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쉼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6)
 - 황해남도 청단군 화산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2일,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쉼기모임을 진행하였음.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동참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결속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벼가 여문 상태에 따라 논물빼기를 선행시키고 기계와 일손을 집중하여 벼베기를 끝낼 것을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벼단뭉기, 동가리치기를 기술규정대로 하고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베어낸 곡식을 신속히 운반해야 함. 또한 탈곡기를 정상가동하여 낱알털기를 제때에 끝내며 낱알보관관리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평안남도 강서군 청년전위들의 쉼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8)

- 평안남도 강서군 청년전위들은 7일, 가을걷이와 난알털기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쉼기모임을 가졌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원들이 가을걷이와 난알털기 작업목표를 높이 세우고 무조건 수행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말하였음. 이와 함께 당면한 가을걷이와 난알털기를 제 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릴 것을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에게 호소하였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9, 민주조선 9. 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음. 대회에는 내각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혁명열사유가족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음.
- 대회는 내각총리 박봉주가 경축보고를 하고 김일성의 건국업적을 기리며 김정일의 영도 따라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쳐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겨 나가려는 참가자들의 열정이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음.

○ 당창건 60주년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3, 민주조선 9. 13)

- 당창건 60주년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평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임. 이 기간 각 도에서는 당창건 60주년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와 온실참관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 황해북도, 함경남도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5, 민주조선 9. 24)

- 김정일의 2005년 9월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황해북도, 함경남도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이 23일에 각각 진행되었음. 모임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책임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음.

황해북도 근로자들의 쉼기모임

- 황해북도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미루벌을 방문하여 현대적인 알곡생산기지로 거듭나는데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말하였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가르쳐준대로 주체농법을 토대로 키가 낮으면서 빨리 여무는 곡종들을 배치하고 벼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말

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와 함께 리상-미루벌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지력을 높이며 영농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당면하여 일손과 농기계,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곡식을 익는대로 거두고 낱알털기와 보관관리를 잘해나가야 함.

함경남도 근로자들의 쉼기모임

- 함경남도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이 현지도에서 제시한 과업을 받아들여 광포오리공장을 대규모 고기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 문제를 지적하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최신설비와 기술을 갖추는 기술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음.

- 농업성은 당 조직의 지도하에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올해농사 결속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하고 있음. 성은 일군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수확적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하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계획을 동원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필요한 일손과 기계수단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고 지원역량을 철저히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만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각지 영농동향

○ 자강도의 추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17)

- 자강도는 모내기를 지난해에 비해 열흘이나 앞당겨 끝낸데 이어 김매기를 비롯한 당면한 농작물 비배관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잠업부문은 봄누에고치 생산과 함께 뽕씨 채집에 힘을 쏟고 있음.
- 홍주오리공장 개건확장공사가 추진 중이며 강계기초식품공장과 강계포도술공장 등 경공업공장들은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4,000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 건설공사가 진행 중임.

○ 황해남도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18)

- 황해남도 연안, 배천군은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장마철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작물 영양관리와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청단군은 강냉이밭 네벌김매기를 막바지에서 진행 중이며 논세벌김매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 각지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19)

- 평안북도 태천군 강녕이밭 네벌김매기와 논 세벌김매기를 끝낸데 이어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포전마다 질 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 마른 재 등을 수집 톤씩 내면서 돌피, 눈두렁풀 뽑기를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북창군의 농작물 가꾸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7. 29)

- 평안남도 북창군은 후반기 농작물가꾸기에 힘을 쏟고 있음. 룡전리 문화협동농장, 청흥협동농장은 논밭 김매기를 하면서 벼포기에 끼어있는 돌피를 뽑고 있음. 마산, 라흥, 문동협동농장은 장마철에 대비해 고인물빠기시설들을 점검하고 배수물길을 가져내는 등 비바람피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19)

- 평안남도 숙천군 농업경영위원회는 영농공정별 기술지도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음. 위원회는 작업반에 따라 농사조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작업반별로 생육조사원을 선정하고 일정한 구역에 조사지점을 정해 생육변화를 파악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관리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 광천농장은 농장기술일군들이 각 작업반에서 포전별로 비료주기 와 물관리, 병해충피해 예방사업 등 비배관리를 작업반 기술원들에게 지도하고 있으며 작업반 기술원들은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당면한 논벼 비배관리를 지도하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은 장마철에 대비해 해안방조제 보강사업과 하천 바닥파기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성남지구를 비롯한 17개소에 있는 고인물빠기양수장이 항시 가동되도록 준비하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무역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농촌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운수기재를 동원하여 열두삼천농장에 비료를 운반한데 이어 비료시비에 필요한 분무기를 마련하여 지원하였음.

○ 농업성의 영농추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24)

- 농업성은 농촌들에서 농작물 비배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아래 단위에서 논밭김매기를 다그쳐 끝내며 논물관리와 비료주기 등

농작물 비배관리를 생육단계와 날씨조건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장마철 피해예방을 위해 관개수리국에서는 해안방조제 보강과 고인물빼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농작물 비배관리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24)

-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협동농장은 포전의 특성과 날씨 변화에 맞게 앞선 물대기방법을 받아들여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병해충 예찰예보사업과 장마철 피해막이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함경남도 정평군은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룡성, 신상협동농장은 예찰초소와 잠복소를 만들어 병해충 예찰예보사업과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부산물을 비롯한 자연원료로 식물성 농약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의 농작물 비배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26)

- 평안북도 룡천군은 영농공정별 작업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산두협동농장은 논밭김매기를 끝낸데 이어 논물관리와 콩밭가꾸기, 비바람피해막이 등 농작물 비배관리를 성과적으로 하고 있음. 읍, 진흥, 견일협동농장은 농작물 비배관리를 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물길둑 보수와 가시기를 진행하였으며 강냉이밭과 콩밭 둘레에 물반이도랑을 파고 후치질을 잘하였음.
-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은 시기별, 논벼생육단계별 기술전습과 보여주기, 경험발표회를 조직하여 작업반 기술원들과 논물관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고 있음. 각 작업반들은 벼 생육상태를 확인하면서 중간물 말리기를 하여 뿌리의 활성을 높여주고 마지막 모내기를 한 포전은 물을 얇게 대서 가지치기를 확대시키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은 콩밭 김매기와 후치질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으며 비바람에 대비해 콩밭 둘레의 물도랑 치기와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병해충 예찰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임.

○ 농작물 비배관리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7. 31)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고온피해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논물관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실천해야 할 기술경제적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음.
- 강원도 천내군 읍협동농장은 논벼의 생육단계와 날씨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하면서 비료주기와 논김매기 등을 잘해나가고 있음. 로운, 대양협동농장을 비롯한 각 협동

농장들은 논벼 비배관리를 잘하면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내고 있음.

- 평안북도 철산군 선주협동농장은 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해 논밭에 잠복소를 설치해 놓고 유아등을 놓아 나비, 곤충을 잡고 있으며 병해충예찰초소를 정해 감시체계를 세웠음.
- 황해남도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은 비료 시비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농장은 논벼의 생육단계에 맞게 비료주는 시기와 양을 과학적으로 정해주고 있으며 비료시비 이전과 이후의 논물관리를 잘하여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가을걷이준비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함. 각지 연결농기계공장,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협동농장들은 가을걷이에 필요한 농기계, 중소농기구 생산과 수리정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해야 함. 협동농장들은 가을걷이계획과 일손배치계획을 세우고 곡식운반에 이용할 부림소 관리를 잘하여야 함.
-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가을걷이준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백암농장은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트랙터, 벼종합탈곡기, 강냉이창자 수리를 다그치고 있음.
- 자강도 송원군 월현협동농장은 일정계획대로 영농작업을 진행하면서 탈곡장 보수정비를 짧은 기간에 끝냈음. 농장은 탈곡장 옆에 분조창고, 낱알보관창고를 만들고 탈곡기, 낱알건조기도 갖추었음.
- 평안북도 운전군은 가을철에 곡식이 익는대로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트랙터 연결차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트랙터 연결차 생산에 기계수리공장과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이 앞장선 가운데 군일군들을 비롯한 해당 단위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면서 집단적 혁신으로 연결차를 질적으로 만들고 있음.

○ 황해북도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2)

- 황해북도 신계군 신흥, 대성, 정봉, 원교협동농장은 네벌 김매기와 네벌 후치질까지 끝내고 장마철에 대비해 물도랑을 만들고 비바람막이대책을 세우고 있음. 곡산, 수안군도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당면한 풀베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각지 농작물 비배관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4)

- 황해남도 청단군 화산협동농장은 후반기 농작물 가꾸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논물관리공들은 논물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여 벼생육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포전별, 작물별 병해충 피해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장마철에 대비해 고인물빠기물길 양 옆의 풀베기를 하고 양수설비의 보수정비도 끝냈음.
- 평안북도 운전군 북일협동농장에서 다수확품종의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가운데 작업반원들이 앞장서서 김매기를 비롯한 영농작업을 잘해나가고 있음.
- 평양시 강남군은 모든 협동농장 다수확품종 콩밭마다 농장원과 함께 분조장, 작업반장, 농장일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 군당일군들을 포전담당자로 정하고 생육조사일지를 만들어 해당 내용을 담당자들이 확인, 점검함으로써 콩농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각지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8. 11)

- 황해남도 배천군은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풀베기실적을 올리고 있음. 연안군은 농약시비를 비롯한 병충해막이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청단군은 탈곡장과 중소농기구를 수리정비하는 등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강원도 고산군 성북협동농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풀을 벨 목표를 세우고 매일 평균 수백kg의 풀을 개인퇴적장에 쌓아 썩히고 있음.
-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협동농장은 논밭 비배관리와 풀거름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안북도의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30)

- 평안북도에서 공장, 기업소, 기관,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전례없이 많은 인원이 동원된 가운데 가을걷이를 막바지에서 다그치고 있음. 신의주시, 정주시, 선천군을 비롯한 도내 시, 군들에서 가두인민반원들이 매일 같이 주변 협동농장들에 나가 강냉이와 벼가을을 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을 도와주고 있음.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8)

- 전국 각지의 농촌들에서 강냉이 가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평양시 강동, 강남군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냉이 가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황해남도 해주시, 연안군, 배천군 등에서는 강냉이 가을을 다그치면서 보수정비한 강냉

이 보관고에 보관하고 탈곡작업을 벌리고 있음.

- 함경남도 함흥시는 실정에 맞게 콩가을걷이 준비를 잘하고 있음. 쌍봉, 회상지구협동농장은 콩탈곡기 수리정비를 다그치면서 부족한 자재와 부속품 보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수동협동농장은 탈곡장과 건조장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잘하고 있음.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19)

- 평안남도 개천시는 강냉이 가을을 최적기에 끝내기 위해 공장, 기업소와 동, 인민반의 농촌노력동원사업을 통해 강냉이 가을을 다그치고 있음. 시 일군들은 운전기재를 동원하는 동시에 각종 운반수단들의 적재능력을 높여 낱알운반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있음.
- 황해남도 은천군 송봉협동농장은 강냉이가 익은 상태와 탈곡장 조건을 따져서 수확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비생산단위들의 노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있음.
- 함경남도 덕성군 임자협동농장은 가을한 강냉이를 그 날로 탈곡장에 실어들여 제때에 낱알털기를 하고 있음. 농장은 트랙터, 달구지 등 운반수단과 탈곡기의 가동률을 보장하여 강냉이가을 실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4)

- 평안남도 덕천시 신성협동농장은 트랙터와 달구지 등 운반수단의 적재능력을 높이는 한편 트랙터 적재함의 짐을 자동적으로 부릴 수 있게 개조하여 가을한 강냉이를 제때에 탈곡장에 실어들이고 낱알털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콩가을과 털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 것은 콩의 정보당 소출과 품질을 높이는 데서 중요함. 콩가을은 꼬투리에서 알질량이 제일 무거워지고 꼬투리색이 품종 고유의 색을 띄면서 잎들이 다 진 때에 하는 것이 좋음. 콩털기는 대와 꼬투리, 알이 충분히 마른 다음에 함.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5)

- 황해북도 은파군은 가을걷이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해 일손과 운반수단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가을걷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군은 운반거리와 물동량을 타산하여 트랙터와 자동차, 소달구지를 배치하고 적재량과 실동률을 높여 가을하는 족족 탈곡장으로 실어들이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협동농장은 강냉이 이삭따기와 대베기 속도를 높이는 한편 트랙터와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가을한 강냉이 이삭들을 제때에 실어들이며 보관고에 넣어두고 있음.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9. 26)

- 평안북도 정주시는 벼가을에 앞서 강냉이 가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곡식이 익은 상태에 맞게 가을걷이계획을 포전별, 날짜별로 세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침향, 흑록, 원봉협동농장은 강냉이 가을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으며 일해, 압두, 오산협동농장은 매일 많은 면적의 벼를 가을하고 있음.
- 황해북도 장풍군은 강냉이 가을과 탈곡을 제때에 하여 낱알의 허실을 막고 있음. 읍, 국화, 세골, 석둔, 립강협동농장은 익는 족족 이삭따기를 하고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제때에 실어들이고 있으며 대덕산, 사시, 덕적협동농장은 강냉이 탈곡 실적을 높이고 보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9. 25)

- 농업성은 당조직의 지도 하에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올해농사 결속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하고 있음. 성은 일군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수확작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하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계획을 동원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필요한 일손과 기계수단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고 지원역량을 철저히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만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황해남도 재령, 배천, 청단, 연안군은 지대별, 품종별로 여문 상태에 따라 일손과 기계수단을 배치하여 연일 강냉이 가을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평안남도, 황해북도는 이삭따기와 대베기를 다그쳐 이미 수만 정보의 강냉이 가을을 끝냈음. 각지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노력투쟁으로 전국적으로 매일 전체 면적의 4%에 달하는 강냉이가 수확되고 있음.

○ 경제상식으로 가을걷이조직을 소개(민주조선 9. 25)

- 가을걷이를 잘 조직하는 것은 농작물의 실수확고와 품질을 높이는데 중요함. 무엇보다 가을걷이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가을걷이할 포전순위를 바로 정하고 포전별 작황에 기초해 가을걷이 수단별 대상포전과 면적을 확정해야 함.
- 가을걷이를 제 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정별 노력과 기계수단 배치를 합리

적으로 하며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에게 하루 작업정량을 정확히 주어야 함. 이와 함께 기름과 농기계 부속품, 기타 작업도구들을 계획작업량과 단위당 소비기준에 따라 보장해야 함.

- 가을한 농작물은 한알의 낱알이라도 허실함이 없도록 탈곡장에 실어들이며 마당질을 잘 하여 창고에 잘 보관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함.

농업 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5년 7월 중 남북교역액은 12,76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4,841만 달러에 비해 163.6% 증가하였음(전월 13,542만 달러 대비 5.8% 감소).
- 반입은 2,53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850만 달러에 비해 37.1% 증가하였음(전월 1,934만 달러 대비 31.1%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5.3%, 농림수산물 33.9%, 철강·금속제품 18.3%, 광산물 9.0%, 전자·전기제품 5.8% 등임.
- 반출은 10,22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2,991만 달러에 비해 241.9% 증가하였음(전월 11,607만 달러 대비 11.9% 감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12.6%, 기계류 13.1%, 섬유류 9.6%, 광산물 3.3%, 화학공업제품 49.6% 등임.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5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858만 달러로 전월 836만 달러 대비 2.6% 증가하고 7월 전체 반입액 2,536만 달러의 33.9%를 차지했음.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반입 농림수산물은 고사리·기타 채소 등 농산물이 24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9.7%), 녹용 등 축산물이 1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5%), 제재목 등 임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59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3.6%)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5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295만 달러로 전월 243만 달러 대비 432.9%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대두 등 농산물이 1,27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2.5%), 쇠고기·분유 등 축산물이 1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를 차지했음.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5년 8월 중 남북교역액은 10,97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902만 달러에 비해 85.9% 증가하였음(전월 12,762만 달러 대비 14.0% 감소).
- 반입은 3,26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701만 달러에 비해 91.7% 증가하였음(전월 2,536만 달러 대비 28.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7.0%, 농림수산물 34.1%, 철강·금속제품 8.6%, 광산물 8.1%, 전자·전기제품 2.8% 등임.
- 반출은 7,713만 달러로 전년 동월 4,200만 달러에 비해 83.6% 증가하였음(전월 10,226만 달러 대비 24.6% 감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32.5%, 기계류 24.1%, 섬유류 14.9%, 광산물 4.6%, 화학공업제품 7.4% 등임.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5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113만 달러로 전월 858만 달러 대비 29.7% 증가하고 8월 전체 반입액 3,261만 달러의 34.1%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고사리·식물성한약재 등 농산물이 37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1.6%),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73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2.4%)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5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514만 달러로 전월 1,295만 달러 대비 94.1%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기타 농산가공품 등 농산물이 2,48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2.2%), 로얄제리·기타 낙농품 등 축산물이 1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건축용 목제품 등 임산물이 1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를 차지했음.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5년 9월 중 남북교역액은 9,70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967만 달러에 비해 62.7% 증가하였음(전월 10,975만 달러 대비 11.5% 감소).
- 반입은 2,88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2,492만 달러에 비해 15.6% 증가하였음(전월 3,261만 달러 대비 11.7%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6.5%, 농림수산물 30.2%, 철강·금속제품 2.3%, 광산물 9.1%, 전자·전기제품 5.0% 등임.
- 반출은 6,82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474만 달러에 비해 96.5% 증가하였음(전월 7,713만 달러 대비 11.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41.7%, 기계류 15.2%, 섬유류 18.1%, 광산물 3.2%, 화학공업제품 5.7% 등임.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5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869만 달러로 전월 1,113만 달러 대비 21.9% 감소하고 9월 전체 반입액 2,880만 달러의 30.2%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고사리·송이버섯 등 농산물이 33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1.6%),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7%), 어패류 등 수산물이 52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8.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5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850만 달러로 전월 2,514만 달러 대비 13.4%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기타 농산가공품 등 농산물이 2,81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1.2%), 소시지·기타 낙농품 등 축산물이 5,000달러(전체 반출액의 0.01%), 건축용 목제품 등 임산물이 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1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표 1 2005년 7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755,672	2,453	9.7	농산물	41,492,259	12,791	12.5
기타 채소	133,088	194		쌀	40,004,600	10,951	
고사리	233,910	978		대두	1,000,000	650	
고비	5,670	28		쌀가루	2,400	4	
표고버섯	63,542	367		밀가루	169,740	188	
기타 버섯류	68,391	416		오렌지	33,130	108	
기타 견과류	160	1		수박	325	-	
식물성액즙	2,800	92		기타 과일	30	1	
식물성한약재	164,131	324		기타 채소	1,121	19	
면류	27,970	26		표고버섯	640	4	
기타 농산가공품	56,010	25		대두유	8,712	15	
				마아가린	1,399	3	
				식물성액즙	300	3	
				사료	4,556	3	
				효모류	750	2	
				된장	1,109	2	
				커피조제품	34	-	
				녹차	310	1	
				제조담배	8,721	168	
				소주	3,950	15	
				맥주	4,582	13	
				포도주	67	1	
				위스키	1,128	52	
				기타 주류	673	11	
				원당	4,605	2	
				과일주스	4,480	13	
				기타 음료	100	-	
				비스킷	1,497	14	
				곡류가공품	2,492	-	
				빵	3,776	8	
				면류	101,244	149	
				빙과류	100	-	
				기타 농산가공품	125,688	390	
축산물	7,346	116	0.5	축산물	19,065	115	0.1
농용	2,710	67		쇠고기	870	24	
기타 축산물부산물	105	9		돼지고기	940	14	
로얄제리	1,006	23		소시지	760	2	
모류	3,525	18		로얄제리	50	-	
				분유	10,377	72	
				기타 낙농품	6,068	3	
임산물	35,589	35	0.1	임산물	2,738	25	0.02
제재목	17,997	15		합판	984	4	
목제식탁용품	5,510	9		건축용목제품	124	10	
기타 목재류	12,082	11		목재틀	240	2	
				목제장식품상자	420	4	
				기타 목재류	970	5	
수산물	1,212,733	5,984	23.6	수산물	7,105	25	0.02
기타 어류	8,853	16		기타 어류	4,950	3	
새우	11,940	67		기타 수산가공품	1,700	17	
기타 계	9,060	18		기타 수산물	455	4	
문어	179,973	473					
낙지	3,960	6					
기타 조개	35,144	38					
기타 연체동물	125,105	325					
기타 염장수산물	22,550	48					
건조수산물	392,766	3,308					
기타 수산가공품	396,876	1,310					
기타 수산물	26,507	374					
합 계		8,588	33.9	합 계		12,956	12.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69호(2005.7.1~7.31).

표 2 2005년 8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188,558	3,792	11.6	농산물	86,167,243	24,829	32.2
기타 곡식류	22,000	28		쌀	85,620,456	23,599	
기타 채소	156,270	201		쌀가루	1,600	3	
고사리	387,953	1,898		밀가루	83,000	29	
표고버섯	93,781	466		오렌지	42,127	136	
기타 버섯류	83,469	596		포도	60	1	
기타 식물성유지	2,960	23		배추	1,218	3	
식물성액즙	11,000	32		당근	3,252	9	
된장	50,010	32		양파	11,434	31	
향신료	13,750	20		기타 채소	900	15	
식물성 환약제	194,151	335		국화	8	-	
소주	4,320	5		대두유	72	-	
맥주	4,500	4		마아가린	1,400	3	
기타 주류	2,580	17		사료	107,626	120	
물	20,004	5		효모류	750	2	
인삼음료	3,000	36		원장	1,797	4	
면류	41,900	36		토마토케찹	50	-	
기타 농산가공품	96,910	59		커피조제품	1,000	4	
				초코렛	150	1	
				녹차	200	2	
				제조담배	18,003	99	
				식물성환약제	82,805	61	
				맥주	5,556	5	
				위스키	2,316	106	
				기타 주류	1,270	29	
				원당	4,605	2	
				파일주스	5,006	8	
				기타 음료	637	1	
				검	28	-	
				곡류가공품	237	-	
				빵	1,488	6	
				면류	9,552	49	
				빙과류	46	-	
				기타 농산가공품	151,536	469	
				종자류	7,058	32	
축산물	-	-	-	축산물	40,463	188	0.2
				소시지	1,495	3	
				로얄제리	10,388	87	
				분유	3,000	22	
				기타 낙농품	18,080	62	
				난류	7,500	14	
임산물	23,781	29	0.1	임산물	36,265	103	0.1
목제식탁용품	10,992	17		합판	5,286	10	
기타 목재류	12,789	13		건축용목제품	30,223	90	
				기타 목재류	756	2	
수산물	1,415,400	7,310	22.4	수산물	15,291	29	0.04
명태	4,965	6		기타 어류	156	1	
가자미	13,000	16		기타 연체동물	8,160	6	
기타 어류	3,269	16		기타 염장수산물	124	-	
새우	54,506	334		기타 수산가공품	6,851	21	
기타 계	7,963	23					
오징어	6,800	6					
문어	124,167	328					
피조개	2,590	5					
기타 조개	102,920	81					
기타 연체동물	125,889	713					
한천	780	3					
기타 해조류	1,000	4					
어육	10,400	28					
명란	1,100	2					
기타 염장수산물	32,000	45					
건조수산물	472,762	3,948					
기타 수산가공품	418,645	1,300					
기타 수산물	32,644	452					
합 계		11,131	34.1	합 계		25,149	32.5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70호(2005.8.1~8.31).

표 3 2005년 9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879,203	3,330	11.6	농산물	95,263,774	28,136	41.2
기타 과일	500	4		쌀	94,523,500	26,410	
호박	160,000	34		밀	5,010	11	
생강	4,004	2		쌀가루	3,200	6	
기타 채소	71,185	110		밀가루	177,400	63	
고사리	231,167	1,043		기타 곡분	4,500	5	
고비	2,140	12		사과	375	1	
송이버섯	23,374	1,144		오렌지	50,447	145	
표고버섯	74,634	483		포도	622	2	
기타 버섯류	28,605	123		배추	4,165	24	
기타 견과류	17,000	26		무	14,534	32	
식물성액즙	632	12		당근	7,286	19	
인삼류	230	7		기타 채소	9,298	24	
식물성 한약재	100,670	147		대두유	72	-	
소주	4,320	5		마아가린	1,400	3	
맥주	4,500	4		사료	3,046	12	
포도주	446	1		효모류	750	2	
기타 주류	13,554	47		원장	35,756	21	
과일주스	26,100	38		커피	250	-	
면류	42,140	23		커피조제품	83	1	
기타 농산가공품	74,002	64		초코렛	36,087	299	
				제조담배	2,057	15	
				소주	4,000	6	
				맥주	7,225	10	
				위스키	1,456	82	
				기타 주류	123	7	
				원당	4,605	2	
				과일주스	3,196	2	
				기타 음료	500	2	
				검	200	-	
				비스킷	500	-	
				곡류가공품	36	-	
				빵	732	5	
				면류	38,555	148	
				기타 농산가공품	322,808	777	
축산물	5,170	95	0.3	축산물	3,268	5	0.01
로얄제리	5,170	95		소시지	708	3	
				로얄제리	50	-	
				기타 낙농품	2,457	2	
				모류	53	-	
임산물	10,071	21	0.07	임산물	61,415	229	0.3
건축용 목재품	18	-		제재목	4,920	1	
목재식탁용품	9,789	17		합판	11,955	12	
목재장식품상자	80	-		건축용 목재품	43,026	171	
기타목재생활용품	20	1		목재장식품상자	800	-	
기타 목재류	164	3		기타 목재생활용품	36	1	
				기타 목재류	678	43	
수산물	2,275,394	5,248	18.2	수산물	28,452	130	0.2
기타 어류	6,787	23		기타 어류	4,545	3	
새우	23,000	214		새우	8,500	63	
기타 계	9,166	73		기타 조개	3,860	3	
오징어	8,600	8		건조수산물	8,050	48	
문어	145,977	408		기타 수산가공품	3,497	14	
낙지	11,500	21					
피조개	16,550	37					
기타 조개	741,399	810					
기타 연체동물	721,543	871					
기타 해조류	1,000	3					
기타 수산물통조림	10,779	64					
기타 염장수산물	54,750	94					
건조수산물	145,580	1,174					
기타 수산가공품	340,408	831					
기타 수산물	38,356	617					
합 계		8,694	30.2	합 계		28,500	41.7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71호(2005.9.1~9.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6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소계	37,564	1,995	2,613,581	34,515	4,190	2,378,580	4,992,161	△ 235,001
2005.1	573 (411)	78 (74)	26,745 (20,753)	693 (309)	271 (119)	22,732 (15,955)	49,477 (36,689)	△ 4,013 (△ 4,792)
2005.2	446 (395)	83 (81)	19,980 (18,440)	577 (344)	263 (142)	26,954 (9,694)	46,934 (28,134)	6,974 (△ 8,746)
2005.3	532 (478)	94 (72)	30,252 (22,494)	891 (442)	258 (192)	39,486 (17,396)	69,737 (39,890)	9,234 (△ 5,098)
2005.4	599 (433)	92 (77)	23,273 (20,586)	722 (418)	264 (154)	29,489 (52,556)	52,762 (73,142)	6,216 (31,970)
2005.5	687 (431)	116 (74)	22,828 (17,272)	894 (494)	290 (217)	76,956 (70,176)	99,784 (87,448)	54,128 (52,904)
2005.6	594 (476)	111 (79)	19,343 (16,667)	1,101 (599)	336 (216)	116,079 (43,546)	135,422 (60,213)	96,736 (26,879)
2005.7	682 (430)	132 (76)	25,368 (18,506)	1,145 (738)	316 (208)	102,261 (29,913)	127,629 (48,419)	76,893 (11,407)
2005.8	874 (467)	159 (76)	32,618 (17,014)	1,220 (752)	327 (213)	77,134 (42,010)	109,751 (59,024)	44,516 (24,996)
2005.9	988 (551)	155 (79)	28,808 (24,928)	1,199 (782)	321 (208)	68,278 (34,744)	97,086 (59,672)	39,470 (9,816)
소계	5,975 (2,624)	-	229,215 (116,212)	8,442 (2,607)	-	559,369 (209,331)	788,582 (325,543)	330,154 (93,119)
총계	43,539	2,319	2,842,796	42,957	4,842	2,937,949	5,780,743	95,153

주: 1) ()안은 2004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71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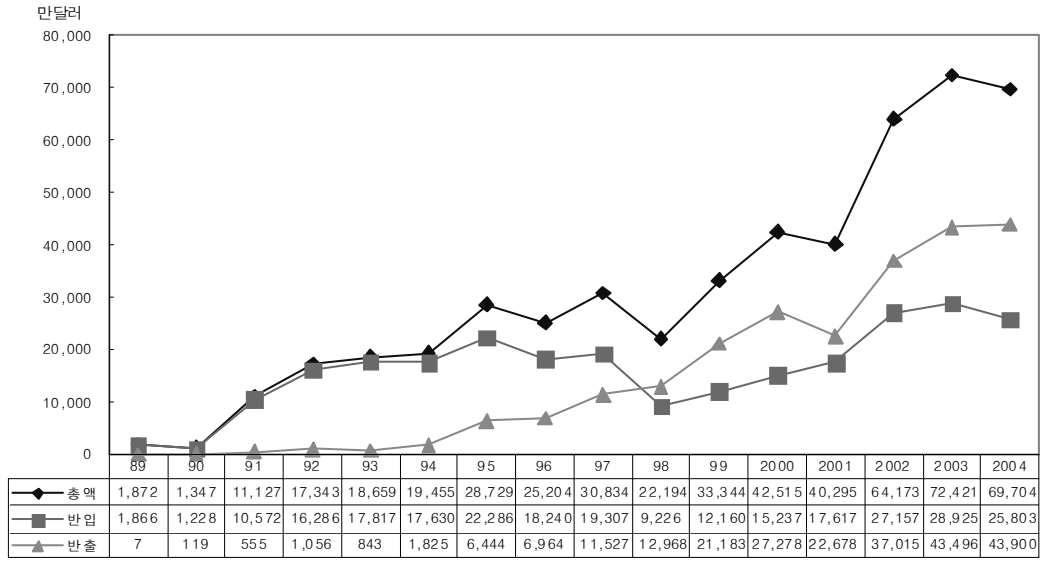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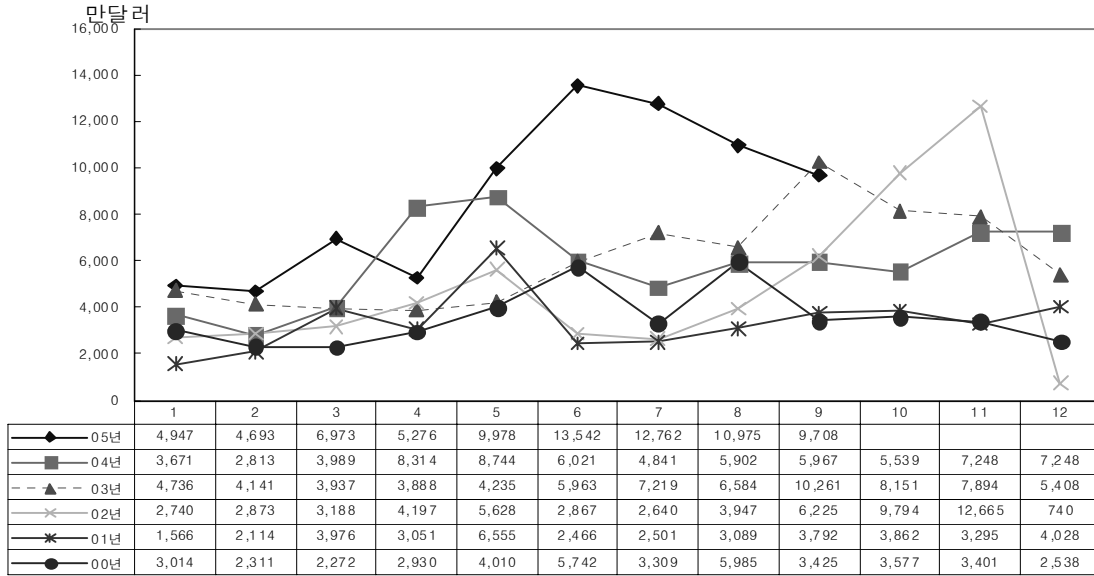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소계	251,735	2,390	49,405	396,295	699,826	397,749	17,072	9,495	11,873	436,189	1,136,015	△263,637
2005.1	3,198 (4,322)	4 (35)	14 (14)	8,218 (6,219)	11,434 (10,590)	1,022 (1,693)	266 (294)	94 (14)	116 (170)	1,498 (2,171)	12,932 (12,761)	△9,936 (△8,419)
2005.2	2,134 (2,731)	97 (-)	42 (8)	4,970 (4,814)	7,243 (7,553)	763 (604)	72 (293)	44 (349)	82 (106)	961 (1,352)	8,204 (8,905)	△6,282 (△6,201)
2005.3	1,723 (2,208)	221 (29)	25 (35)	7,191 (7,209)	9,160 (9,481)	936 (1,289)	265 (165)	307 (107)	144 (125)	1,652 (1,686)	10,812 (11,167)	△7,508 (△7,795)
2005.4	1,284 (1,848)	19 (-)	51 (12)	4,778 (6,171)	6,132 (8,031)	1,622 (1,768)	183 (26)	651 (-)	54 (133)	2,510 (1,927)	8,642 (9,958)	△3,622 (△6,104)
2005.5	1,885 (1,659)	61 (152)	80 (26)	7,063 (7,178)	9,089 (9,015)	1,505 (13,001)	325 (314)	260 (25)	176 (30)	2,266 (13,370)	11,355 (22,385)	△6,823 (4,355)
2005.6	1,626 (3,698)	51 (103)	21 (22)	6,668 (6,140)	8,366 (9,963)	1,699 (1,693)	219 (132)	447 (394)	65 (138)	2,430 (2,357)	10,796 (12,320)	△5,936 (△7,606)
2005.7	2,453 (2,749)	116 (35)	35 (16)	5,984 (3,804)	8,588 (6,604)	12,791 (8,097)	115 (358)	25 (-)	25 (96)	12,956 (8,551)	21,544 (15,155)	4,368 (1,947)
2005.8	3,792 (2,244)	- (7)	29 (14)	7,310 (2,234)	11,131 (4,499)	24,829 (17,216)	188 (356)	103 (145)	29 (28)	25,149 (20,045)	36,280 (30,433)	14,018 (9,657)
2005.9	3,330 (3,858)	95 (13)	21 (10)	5,248 (4,810)	8,694 (8,691)	28,136 (6,424)	5 (257)	229 (543)	130 (632)	28,500 (7,856)	37,194 (16,547)	19,806 (△835)
소계	21,425 (25,317)	664 (374)	318 (157)	57,430 (48,579)	79,837 (74,427)	73,303 (51,785)	1,638 (1,933)	2,160 (1,463)	821 (1,558)	77,922 (56,739)	157,759 (131,166)	△1,915 (△17,688)
총계	-	-	-	-	779,663	-	-	-	-	514,111	1,293,774	△265,552

주: 1) ()은 2004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127~171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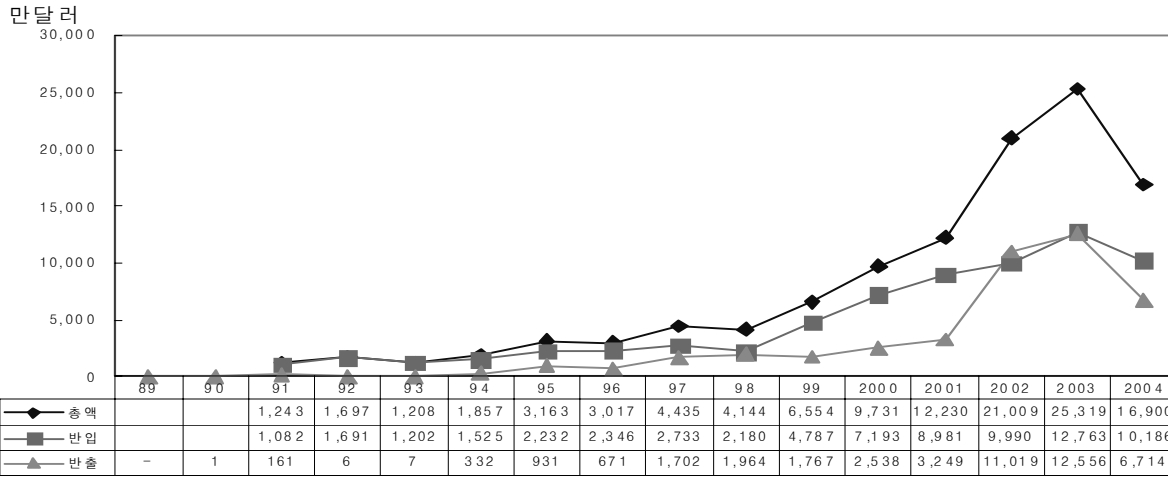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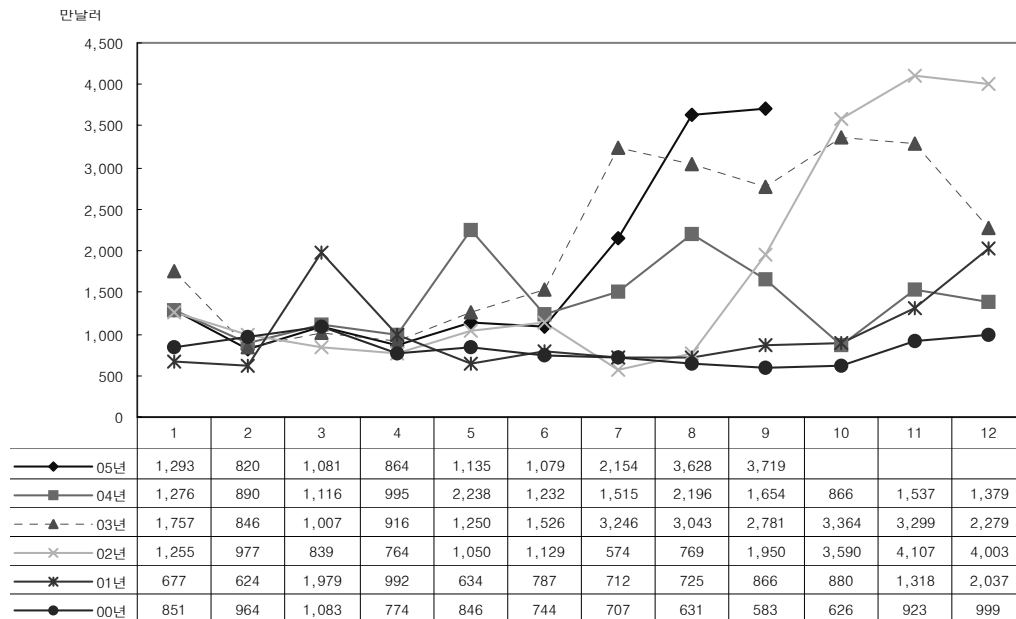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5년 7~9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이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없음. 9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6개로 전체 191개 기업(단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161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1건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5년 9월 말 현재

기업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사업자 승인일
미용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과리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요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흥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합 작)	리선경제협조회사	나진, 선봉지대 협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육수수제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재배적지 확정, 신품 종 슈퍼육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선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 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진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인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04.9.1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546천불*	'04.8.21 ('04.8.21)*
상하씨엠**(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물 가공공장 설립·운영	남포	5만불*	'04.9.17 ('04.9.17)*
(주)제이유네트웍스**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71호.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통일부, 7. 27)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2005. 7. 25~27일 개성에서 개최됨.
 - 수차례의 회의와 대표접촉을 통해 서해상 평화정착 및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도 모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협력 방안 등 6개항에 합의

《 합의서 요지 》

1.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 ① 공동어로 수역 및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
 - ② 공동어로기간, 어선 수, 어구, 입어료 등은 쌍방이 합의 결정
2. 서해에서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협력
3.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
4.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우량품종의 공동개발 추진,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5. 제3국 어장진출에서 서로 협력
6.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 및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 이번 회담의 의미

- 남북수산협력을 통한 서해 평화정착 촉진: 본 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어로수역설정』 및 『제3국 어선 불법조업 차단』 등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서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촉진 계기를 마련함.
- 우리 어민의 이익보호: 제3국 어선의 NLL인근 및 북한수역에서의 무차별 집단조업, 인근 국가들과의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이익보호를 가능하게 하며, 제3국 어장 공동진출에 합의함으로써 러시아 인근 해역 등 원양어업 부분까지 남북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호혜적 수산협력 환경조성: 타분야에 비해 수산분야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했으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향후 호혜적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계기를 마련함.

□ 남북경협 9개 합의서 발효(통일부, 8. 9)

- 남북한은 경제협력을 위한 9개 합의서를 발효시켰음. 이번에 발효된 9개 합의서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에 이르기까지 남북한간에 채택·서명한 합의서로 이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 9개 경협합의서
 - ①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2.12.6)
 - ②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02.12.8)
 - ③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02.12.8)
 - ④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02.12.8)
 - ⑤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03.10.12)
 - ⑥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04.1.29)
 - ⑦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4.4.13)
 - ⑧ 남북해운합의서('04.5.28)
 - ⑨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04.5.28)

<자료①>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며 이를 남북 “차량운행사무소”라고 부른다.
2. 남과 북의 분계주차장 사이 도로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운행노선을 오가는 각종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 등)을 “운행차량”이라고 한다.
3.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상,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을 “사고”로 본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자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제3조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운행하는 차량의 통제문제
 - ②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처리
 - ③ 운행구간에서 정상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 ④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 ⑤ 기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①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은 쌍방 당국이 임명한다.
 - ② 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남북사이의 관례대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의 차량운행사무소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차량운행사무소와 제3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 와 방법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2. 양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 결과를 운행날짜 이전에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준다.
 3.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할 수 있다.
 4.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규정,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사가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사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7.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한 차량과 그 운전사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돌려보낸다.
 8. 남과 북은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며 그 이유가 제거되면 즉시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통보 및 통신·연락

1. 남과 북의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즉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지와 상호통보를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 직통전화, 모사전송장비(팩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정보교환

1. 남과 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기측의 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2. 남과 북의 차량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탑승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제한

1. 차량운행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

- ①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인원으로서 차량에 태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다.
- ① 각종 무기류, 흉기류, 화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험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의약품, 각종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④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여행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8조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1. 남과 북은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의 운전사와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1. 남과 북은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보장한다.
2. 차량의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쌍방이 동일한 인원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① 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② 차량과 화물의 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 경우
 - ③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측이 사고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
4. 남과 북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지나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고장시 조치

1. 차량이 운행구간에서 고장 발생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측 구간에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연료 또는 부속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측에게 기술 또는 부속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3조 적용범위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 합의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및 관례에 따른다.
2.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방법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12월 6일

부 록: 용어(생략)

<자료②>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쌍방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측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 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료③>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

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 나. 적재량 또는 정원
 -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부 록: 용어(생략)

<자료④>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로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로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내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자료 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부 록: 용어(생략)

<자료⑤>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와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 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 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2. 위원회의 비용 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12조 통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부 록: 용어(생략)

<자료⑥>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게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 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7조 체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측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1월 29일

부 록: 용어(생략)

<자료 ⑦>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 ② 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 ③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 ④ 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 ⑤ 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전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 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회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

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합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 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부록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조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험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10조 운임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 (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 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
 - ② 모사전송장비(FAX)
 -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호 통보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하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 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4월 13일

부록 1::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철도직원 직명표(생략)

부록 2-1: 임시출입증(생략)

부록 2-2: 상시출입증(생략)

부 록: 용어(생략)

<자료⑧>

남북 해운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정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

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 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부 록: 용어(생략)

<자료⑨>

남북 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 라. 운항 목적
 -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

- 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7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내 해상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

- 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무선전화(VHF),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가. 군사활동
 - 나. 잠수항행
 -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 사. 어로
 -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간, 부산-나진간, 속초-고성간을 정

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해양사고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6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

- 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 라.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보충

1. 이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2004년 5월 28일

부록 제1호 양식: 선박운항허가신청서(양식 생략)

부록 제2호 양식: 선박운항허가서(양식 생략)

부록 제3호 양식: 해양사고통보서(양식 생략)

별표 1: 해상항로대(생략)

부록: 용어(생략)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과 제1차 회의 개최

- 남북한은 8.18-19일 양일간 개성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함. 회담에 앞서 양측은 각자가 제시할 의제를 미리 교환하여 첫 회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양측 의제, 약간의 쟁점은 있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음.
 - 농업기자재 지원과 농업과학기술 및 전문가 교류는 양측이 제안한 협력과제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
 - 남측은 산림녹화를 위한 시범협력사업을 제안하고 북측은 종자생산·처리시설과 육묘생산시설 협력을 제시하여 이들 분야에서는 큰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함.
 - 남측은 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협력사업을 공동시범영농단지외 연계하여 추진하려 한 반면, 북측은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채 기술교류와 물자지원을 더 강조한 차이가 있음. 그러나 지정된 협동농장에서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 안에 넣을 만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논란이 된 농업협력 접근방식의 차이는 좁혀짐.
- 양측은 5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협동농장 협력, 농업과학기술·인력 교류, 종자부문, 산림자원 보호, 축산·과수·채소·잡곡·특용작물 분야 등의 협력사업 추진
- 합의된 농업협력사업 해설
 - 협동농장 협력사업은 북한의 몇 개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기반 조성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임. 이는 단기적으로 농장단위의 농업생산 증대를,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농촌의 소득증대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 교류는 남북의 농업기술을 접목하여 보완·발전시키고, 연구 및 생산현장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려는 협력사업임. 한편 우량종자 생산·가공·처리 분야의 협력은 ‘종자혁명’이라고까지 명명된 북측 농업의 종자부족 문제 해결 노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림부문 협력사업은 양묘장 조성을 지원하고 산림 공동방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이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북한 산림의 황폐화와 병해충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축산·과수·채소·잡업·특용작물 분야 협력은 다양한 농업부문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협동농장 협력사업에 연계시킬 수도 있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인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 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해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 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한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 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잡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농림부 차관 이명수

북남농업협력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부상 문응조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체제가 갖는 의미

- 당국간 채널 구축: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책임있는 당국간에 농업협력 채널이 만들어지고 향후 농업협력사업이 안정적, 체계적, 지속적 기반을 갖추게 됨. 또 양측 당국의 통합된 관리 속에서 효율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그 성과 축적을 기대할 수 있음.
- 농업협력의 확대 가능성 제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남북 농업협력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인정된 것을 의미함. 농업협력위원회 설치의 장래의 남북농업협력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추진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임.
- 농업협력 방식의 전환 예고: 북한의 농업기반 조성의 농업구조 개선에 비중을 두어 궁극적으로 북한 농업의 자활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새로운 협력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목표임. 따라서 향후 농업협력사업은 단순한 물자지원에서 자활능력 지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 협력의 단계적 접근방식 채택: 현재 남북한 간에는 경제체제, 농업정책, 농업구조, 농업생산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차이점을 극복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함. 이번 농업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협력사업들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음.

□ 남북협력공사(가칭) 설립 검토(통일부, 10. 10)

- 남북관계 진전, 6자회담 타결 등으로 남북경협 및 동북아 국가간 경협이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남북경협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성·일관성을 갖고 남북경협을 개척해 나갈 가칭 공사 설립을 검토함.

○ 남북협력공사(가칭)의 성격과 임무

- 공익사업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기업 법인
- 정부가 납입자본의 5할 이상 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공사형 공기업)
- 남북경협 자원조달: 내외자 동원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 펀드 조성 등 대북투자자금을 상업적 차원에서 조달

□ 남북협력기금 집행투명성 제고 위한 민간평가단 구성(통일부, 10. 20)

- 남북협력기금 집행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평가단(9명)을 구성하였음.
 - 회계법인컨설턴트(4명) 민간단체(3명) 남북관계전문가(2명)
- 민간 평가단은 금년 말까지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된 자금의 효율성·적절성·투명성을 점검하고, 남북경협 확대에 부응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정부는 민간 평가단이 제시한 내용과 함께 자체 검증 및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개선된 내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내년부터는 민간 평가단을 정기적(분기1회)으로 기금집행 내용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기구로 운영할 계획임.

□ 남북경추위 제11차 회의 개최(통일부, 10. 28)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2005. 10. 28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내에 새로 개설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합의한대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과 이미 여러차례 합의한 철도·도로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이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민간 및 당국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제협력문제들을 신속하게 지원 또는 협의추진하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와 산하 실무접촉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5년 10월 28일

개 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표 1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1995.9~2004.12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핀란드 70, 룩셈부르크 56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네덜란드 220, 호주 176, 덴마크 154, 핀란드 125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노르웨이 377, 아일랜드 304, 영국 182, 핀란드 119, 덴마크 116, 뉴질랜드 106, 룩셈부르크 81 등
총 계	230,642	151,357	65.6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유엔합동호소를 통해 지원하였거나 지원을 약속한 금액을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25, 2005)

*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 Korea. 북한이 유엔의 인도적 대북 통합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2005년에는 통합지원계획이 없음.

표 2 2005년도 원조기관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실적 (2005.1.1~10.25)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ADRA	영양보충 프로그램	스위스	107,563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290,085
		소계	397,648
AFSC	3개년 농업복구사업	스웨덴	627,451
		소계	627,451
CONCERN	보건, 교육, 농업, 조정업무	스웨덴	281,440
		소계	281,440
Cooperazione E Sviluppo	보건, 교육, 농업, 조정업무	스웨덴	281,440
		소계	281,440
FAO	농업, 조정업무	스웨덴	1,125,694
		소계	1,125,694
German Agro Action	식량 지원 및 채소재배 개발 지원	독일	1,538,269
	유치원 어린이 겨울옷 및 신발 지원	독일	568,926
		소계	2,107,195
German Red Cross	의료장비 지원	독일	646,688
		소계	646,688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조립 핸드북 인쇄	카리타스	10,634
	의료지원단 파견	스웨덴	75,200
	의료지원단 파견	핀란드	59,375
	의료지원단 파견	노르웨이	57,031
	의료지원단 파견	네덜란드	57,031
	질병관리	영국적십자	54,983
	물 및 위생 지원	스웨덴	438,462
	보건개선	핀란드	648,508
	부엌생활용품	중국	13,415
	전략적검토보고서	호주	3,825
	조립 및 자문에 관한 전략 검토	노르웨이	180,826
	물과 위생에 관한 전략 검토	스웨덴적십자	77,462
	물, 위생, 보건 홍보	네덜란드적십자	582,850
	물 및 위생 지원	네덜란드	1,210,783
		소계	3,470,385
OCHA	2005 국제협력틀 내 인도적 지원사업	스웨덴	266,930
	2005 국제협력틀 지원	스웨덴	266,930
		소계	533,860
Swiss Humanitarian Aid	보건, 교육, 농업지원사업	스위스	169,492
		소계	169,492
Triangle	보건, 교육, 조정업무	스웨덴	281,440
		소계	281,440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UNICEF	유니세프 프로그램	영국	471,690
	인도적 지원	노르웨이	471,690
	보건, 교육, 농업 지원	스웨덴	707,200
	유니세프 프로그램	독일	204,657
	유니세프 프로그램	핀란드	389,106
		소계	2,244,343
UNHCR	취약계층 보건 지원	유럽연합	13,320,778
		인도지원사무소	소계 13,320,778
WFP	긴급식량지원	독일	627,353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긴급인도지원	이집트	3,880,983
	가정 식량배급	아일랜드	302,297
	식량지원	핀란드	518,807
	식량지원	뉴질랜드	276,120
	식량지원	캐나다	1,322,314
	식량지원	독일	3,764,115
		소계	10,691,989
WHO	말라리아 방제 현금 및 현물지원	한국	1,016,794
	보건지원	노르웨이	621,745
	질병 감시 기능 강화사업	호주	194,350
	2005 국제협력지원	스웨덴	565,771
	2005 국제협력지원	스웨덴	568,990
	2005 말라리아 방제	한국	52,000
	군 단위 기초보건 서비스 개선	유럽연합	123,388
	모자보건 강화	스위스	225,585
		소계	3,368,623
		합 계	39,548,466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25, 2005)

표 3 2005년도 분야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실적 (2005.1.1~10.25)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농 업	농업복구사업	스웨덴	AFSC	627,451
	농업지원사업	스위스	SHA	169,492
	채소재배 개발사업	독일	GAA	1,538,269
	소계			2,335,212
조정 및 지원서비스	의료지원단 파견	스웨덴	IFRC	75,200
	의료지원단 파견	핀란드	IFRC	59,375
	의료지원단 파견	노르웨이	IFRC	57,031
	의료지원단 파견	네덜란드	IFRC	57,031
	질병관리	영국적십자	IFRC	54,983
	2005 국제협력	스웨덴	UNOCHA	266,930
	전략검토보고서	호주	IFCE	3,825
	질병감시 기능 강화	호주	WHO	194,350
	2005 국제협력	스웨덴	UNOCHA	266,930
소계			1,035,655	
주거 및 비식품	조립핸드북 인쇄	카리타스	IFRC	10,634
	부엌용품	중국	IFRC	13,415
	유치원어린이 겨울의류 및 신발	독일	GAA	568,926
소계			592,975	
식 량	긴급지원	독일	WFP	627,353
	여성, 어린이를 위한 긴급식량지원	이집트	WFP	3,880,983
	영양강화식품 가정 배급	아일랜드	WFP	302,297
	식량지원	핀란드	WFP	518,807
	식량지원	캐나다	WFP	1,322,314
	식량지원	독일	WFP	3,764,115
	식량지원	뉴질랜드	WFP	276,120
	영양보충 프로그램	스위스	ADRA	107,563
소계			10,799,552	
보 건	말라리아 방제 현금 및 현물 지원	한국	WHO	1,016,794
	보건 개선	핀란드	IFRC	648,508
	보건지원	노르웨이	WHO	621,745
	군 단위 기초보건 서비스 질 개선	유럽연합	WHO	123,388
	2005년 말라리아 방제	한국	WHO	52,000
	모자보건 강화	스위스	WHO	225,585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ADRA	290,085
	리 단위 병원 의료장비 지원	독일	GRC	646,688
소계			3,624,793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다부분	물 및 위생	스웨덴	IFRC	438,462
	인도적지원	스웨덴	CES	281,440
	인도적지원	스웨덴	CONCERN	281,440
	인도적지원	스웨덴	FAO	1,125,694
	인도적지원	스웨덴	Triangle	281,440
	인도적지원	스웨덴	UNICEF	707,200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	ECHO	UNHCR	13,320,778
	조립사업 전략 검토	노르웨이	IFRC	180,826
	물 및 위생사업 전략 검토	SRC	IFRC	77,462
	2005년 국제협력	스웨덴	WHO	565,771
	물 및 위생 홍보	NRC	IFRC	582,850
	유니세프 프로그램 기금	핀란드	UNICEF	389,106
	유니세프 프로그램 기금	영국	UNICEF	471,690
	유니세프 프로그램 기금	독일	UNICEF	204,657
			소계	18,908,816
미분류	인도적 지원	노르웨이	UNICEF	471,690
	2005 국제협력	스웨덴	WHO	568,990
			소계	1,040,680
물 및 위생	물 및 위생사업	네덜란드	IFRC	1,210,783
			소계	1,210,783
			합 계	39,548,466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25, 2005)

표 4 2005년도 원조기관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실적 (2005.1.1~10.25)

지원국	지원액(달러)
호 주	198,175
캐나다	1,322,314
중 국	13,415
유럽연합	13,444,166
이집트	3,880,983
핀란드	1,615,796
독 일	7,350,008
아일랜드	302,297
한 국	1,068,794
네덜란드	1,267,814
노르웨이	1,331,292
스웨덴	5,486,948
스위스	792,725
뉴질랜드	276,120
영국	471,690
개 인	725,929
합 계	39,548,466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25, 2005)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세계식량계획,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증가를 통해 북한의 식량배급 삭감 해소
- 세계식량계획은 한국의 식량 지원 증대가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있으나 65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정상적으로 배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원조 식량 부족으로 현재 100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원조 약속이 없을 경우 9월에는 식량을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이 130만 명으로 늘어나고 10월에는 290만 명, 11월에는 320만 명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금년은 시장의 곡물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전혀 없이 어려운 것은 식량공급 물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풀, 도토리, 해초 등 야생식품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Lauding South Korea's support, WFP seeks to end sharp ration cuts in the Northt, Aug. 9, 2005*)

- 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서 2005년 33호
- 2005년 8월 6-12일 동안 세계식량계획이 지원하는 19개의 식품공장은 모두 가동함.
 - 3개의 비스킷 공장은 식품생산에 필요한 1,350 톤의 새로운 원료 조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업을 재개함.
- 세계식량계획이 긴급 조달한 곡물이 도착함으로써 도시의 가난한 가정과 노인 등 9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배급을 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국제사회의 새로운 지원 약속이 없을 경우 11월에는 290만 명의 취약계층이 식량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
-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식물성 기름의 부족은 아직도 계획되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33 of 2005, Aug. 12, 2005)

□ 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서 2005년 35호

- 세계식량계획의 수혜자수가 취로사업을 포함하여 41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 새로운 원조가 답지하지 않으면 9월과 10월에는 수혜자수가 3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렇게 될 경우 노인, 저임금 가구, 초등학생, 임신부 및 수유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난 주 지방의 19개 식품공장은 모두 가동되었으며 총 생산은 필요량의 83%인 1,170톤으로 집계됨.
- 2005년 8월 25일 현재까지 금년도 세계식량계획의 북한에 대한 긴급식량지원은 목표 504,000톤 가운데 55%인 279,000톤이 달성되었으며 금액으로는 8,800만 달러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35 of 2005, Aug. 26, 2005)

□ 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서 2005년 36호

- 최근 감자, 밀, 보리, 채소 수확이 완료되어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다소 호전되었음.
 - 게다가 한국이 차관으로 제공한 쌀이 도착하여 강원, 황해남도, 함경남도 등지에서 양정사업소를 통해 배급이 되고 있으며 배급량도 1일 1인당 250그램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도 국제사회가 지원한 곡물이 도착함으로써 8월에는 926,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혜자에게 배급을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새로운 지원이 끊어질 경우 9월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210만 명으로 증가하며 10월에는 320만 명, 11월과 12월에는 33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지난주에는 세계식량계획이 지원하는 17개의 식품공장이 가동되었으며 긴급소요량

의 90% 수준인 1,270톤의 식품을 생산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36 of 2005, Sep. 5, 2005)

□ 세계식량계획, 북한의 식량 부족 완화될 듯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감자 및 밀 수확량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심각한 식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힘.
 - 지난 8월 세계식량계획 관계자는 정부의 식량배급 감소로 허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토리나 풀로 연명하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음.
 - 이모작 작물의 수확과 한국의 쌀 차관이 도착함으로써 북한의 식량 상황은 개선되고 있음.
- 최근 작황 호조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으로 전반적인 식량 사정은 개선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과 같은 심각한 식량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Reuters Foundation, North Korea's food shortages ease, says aid agency, Sep. 5, 2005)

□ 북한, 유엔의 식량지원 거절

- 북한은 유엔의 긴급식량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며 유엔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국제기구에 요청하였다고 전해짐.
 -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한국이 북한에 상당한 식량지원을 약속하였기 때문이 이것으로 부족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북한의 판단과 다른 하나는 한국의 비료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작황이 호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대해 벤버리 세계식량계획 아태지역사무소장은 북한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활동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금년도 북한의 식량 부족 예상량은 890,000톤이었으나 한국의 차관 500,000톤과 중국의 지원 150,000톤으로 부족량은 크게 감소함.
- 레이건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장은 금년에 270,690톤의 대북지원 식량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33,000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세계식량계획은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5,000~6,000회의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세계식량계획은 2003년 북한에 512,000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으나 2004년에는 368,000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중 한국이 기여한 양은 매년 100,000톤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지원 중에서 한국이 분담한 몫은 2003년에는 20%였으나 2004년에는 27%로 증가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확실한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도록 국제사회는 요청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만일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하지 않으면 식량지원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평가함.
 - 한국이 지원하는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한국의 한 관리는 그 가능성을 부정함.
 - 북한에 100,000톤의 식량을 수송할 때마다 동서해안에 각 2회의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20회의 감시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 : <http://www.reliefweb.int> (*The Chosun Ilbo, N.Korea rejected further UN food aid, Sep. 8, 2005*)

<http://www.reliefweb.int> (*Reuters Foundation, N.Korea says "no" to food handouts - UN officials, Sep. 9, 2005*)

<http://www.reliefweb.int>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news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food aid to North Korea, Sep. 2, 2005*)

□ 세계식량계획, 북한의 장기 식량안보 확보 필요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과 함께 북한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이며 국제 지원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 합의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 레이건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식량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방식도 현재의 긴급 식량지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지난 4년간 세계식량계획은 자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에는 북한에 500,000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270,000톤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언론이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사무소를 폐쇄하라는 요청을 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 당국과 협력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함.
- 그러나 북한 당국이 긴급식량지원보다는 개발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며 세계식량계획은 이미 개발 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함.
- 현재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 지원활동의 3/4은 능력배양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개발 지원의 한 형태라고 설명함.
- 예를 들면, 세계식량계획의 취로사업은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지역사회 수준에서 농업 복구 및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개발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세계식량계획이 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식품생산 공장도 수백만 명의 영양실조 어린이나 여성, 노인의 영양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음.
- 현재 세계식량계획은 개발 지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북한 당국이나 원조단체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addresses the challenge of long-term food security in North Korea, Sep. 16, 2005)

□ 북한 당국, 유엔의 인도적 지원 중단 요청

- 북한 당국은 미국이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유엔기구에 대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도적 지원사업을 2005년 말까지 끝내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함.
- 북한의 외무성 부상인 최수현은 코피아난 유엔총장을 만나 금년도 북한의 작황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최 부상은 미국이 인권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의료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난함.
-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중단 요청 이유에 대해 최수현 부상은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 사정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함.
-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통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자료 : <http://www.reliefweb.int> (Deutsche Presse Agentur(DPA), North Korea asks U.N. to end humanitarian aid, Sep. 22, 2005)

□ 유엔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중단 요청에 대해 우려

- 이글랜드 유엔 구호조정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치라는 북한의 요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는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르다고 밝힘.
 -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상기 하면서 아직도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우려함.
- 그러나 세계식량계획의 버티아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계획에 대해 북한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유엔이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으며 민간지원단체에 대해서도 북한 내 지원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gence-Presses(AFP), UN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call for end to UN humanitarian aid, Sep. 23, 2005)

□ 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서 2005년 40호

- 세계식량계획의 긴급지원계정을 통해 확보한 곡물이 도착함에 따라 9월과 10월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계속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10월에는 650만 명의 취약계층 중에서 240만 명은 곡물 배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10월 1일부로 시장에서 곡물거래가 중단되고 공공배급제도가 전국적인 식량분배 기능을 갖게 됨.
 - 북한 당국자는 금년 가을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확 작업을 위하여 대규모의 노력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지난 9월 24~30일 동안 세계식량계획이 지원하는 지방의 19개 식품생산공장 중에서 16개 공장이 가동하였음.
 - 분유 조달의 차질로 인하여 이를 원료로 쓰는 3개의 공장은 가동이 중지됨.
 - 총 생산량은 필요량의 99%인 1,334톤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40 of 2005, Sep. 30, 2005)

□ 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서 2005년 41호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곡물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이 실행되는 사례를 더 많이 목격하고 있음.
 -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양에 있는 2개의 시장에서는 감자와 빵은 계속 거래되지만 곡물은 더 이상 구입할 수 없음.
- 레이건 평양사무소장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배급제도의 부활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점차 분명한 정책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음.
 - 공공배급제도가 완전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한 달에 40,000톤의 곡물이 공공배급제도를 통해 물량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부담임.
 - 세계식량계획은 황해북도에 있는 한 양정사업소에서 주민이 새로 발급된 배급카드를 가지고 길게 줄을 서서 배급을 받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으며 창고에는 한국에서 지원한 쌀을 비롯하여 북한 쌀과 옥수수도 가득차 있었음.
 - 지난 9월의 배급량은 1인당 1일 250그램이었으나 10월에 들어서는 첫 두주일 동안 일부 군에서는 하루에 300~500그램의 식량이 배급된 곳도 있으나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음.
 - 대부분의 군에서는 가을 수확이 완전히 끝나야만 배급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에 대한 정보도 각각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WFP Emergency Report No. 41 of 2005, Oct. 7, 2005)

□ 세계식량계획, 지방의 식품 생산 공장 가동 중단 계획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유엔기구의 식량 지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요청에 따라 북한에 있는 19개의 식품가공공장을 폐쇄할 계획임.
 - 원조단체들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19개의 공장은 문을 닫게 된다고 레이건 소장이 언급
 -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초 2006년 1월부터 세계식량계획 및 해외의 지원단체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현재 19개의 식품생산 공장에는 2,000명의 북한인이 수백만 명에게 나누어 줄 영양 강화 비스킷, 우유, 국수 등을 생산하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FP, WFP plans to close food aid plants in North Korea, Oct. 14, 2005)

□ 북한은 금년 작황이 크게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기대

- 북한의 관리들은 금년의 곡물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50만 톤 늘어난 48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흑룡강신문*이 밝힘.
 - *흑룡강신문*은 편집장이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관리들은 금년 작황이 최근 몇 년 중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함.
 - 한국 정부는 2004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30만 톤으로 추정하였음.
 - 북한의 금년 곡물 생산량이 480만 톤이라고 가정하고 한국이 50만 톤, 일본이 15만 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더라도 북한의 정상적인 곡물소요량 645만 톤에 크게 부족한 실정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 (*The Chosun Ilbo, N.Korea hopes to hugely improved harvest, Oct. 26, 2005*)

□ 유엔인도주의사업조정자사무소의 북한 상황보고서, 2005년 8-9월

-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오던 북한 당국은 2005년 8월 세계식량계획과 북한에서 인도적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제기구에게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함.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인도적지원사업은 2005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개발 지원만을 받겠다고 밝힘.
 - 이렇게 정책을 전환한 이유는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모니터링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또한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10년 동안이나 받아왔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려는 타성에 젖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생각됨.
 - 이에 대해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400만 톤의 식량(14억 달러 상당)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2005년 사업의 경우 75% 정도가 개발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그들을 지원하는 원조단체와 북한 당국과 개발 지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전환 기간에는 모든 식량배급을 중단하고 지방의 식품생산공장의 가동도 중단할 계획임.
 - 식량지원은 11월 말까지 지방의 식품공장은 11월 15일까지 현재의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며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650만 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도 이미 부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9월에서 11월 동안 취약계층 중 250만 명이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9월은 농작물 수확철로 옥수수과 쌀의 수확이 개시되어 도시의 많은 근로자들이 농촌일손돕기에 동원되고 있음.
 - 수확 기간 영농작업에 전념하도록 대부분의 시장은 저녁에만 열고 있으며 곡물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 식량배급 정책을 배급 위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시장의 곡물 판매는 금지되고 공공배급제도를 통한 배급량이 크게 증가함.
 - 세계식량계획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
- 분석 기간 북한의 식량 상황은 약간 개선됨.
 -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수확이 완료되고 채소 수확이 시작되어 식량 재고가 증가
 - 한국의 북한에 지원한 쌀 500,000톤이 8월에 도착하여 공공배급제도를 통해 분배되었으며 가격 등락이 심하던 시장의 쌀 가격은 kg당 400~650원으로 안정됨.
 - 시장의 곡물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전 평양 시장의 곡물 가격은 크게 요동을 쳤으며 지방의 곡물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음.
 - 통상 9월의 시장 곡물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곡물가격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 당국이 7~8월에 많은 양의 재고 곡물을 시장에 방출한 데다 여름과 가을의 작황이 좋아 식량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임.
- 북한 당국의 식량 증산정책에 따라 과거 경사가 심하여 경작을 하지 않던 뚝배밭을 협동농장에 할당함.
 - 이 같은 경작방식은 토양 침식의 위험을 높이며 홍수피해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9월 중 공공배급제도를 통한 배급량은 1인당 1일 250그램에 머물렀으나 10월에는 500그램으로 증가함.
 - 이는 국내 생산 증가와 함께 한국이 차관으로 제공한 쌀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공공배급제도를 통한 곡물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송도구와 유류의 부족, 저장시설의 부족,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해 분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8월 동안 총 385회의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여 2005년 들어 월평균 388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됨.
 - 방문 모니터링의 초점은 공공배급제도를 통한 분배보다도 어린이 보호시설에 맞추어짐.
 - 9월에는 35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27회는 식량원조사업단(FALU)가 수행함.
- 세계식량계획의 취로사업
 - 세계식량계획이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Food-For-Work)은 개발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5년에는 취로사업에 30,000 톤의 식량을 할당하여 200만 명이 참여함.
 - 취로사업에는 독쌍기, 도로 및 가옥 건설, 토지정리, 조림사업 등이 있음.
 - 취로사업에 대한 감독활동은 세계식량계획 직원이 단순히 현장을 방문만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취로사업자 및 가족을 만나 이 사업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효과까지 평가함.
- 가을에 추진되는 23개의 취로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시됨.
 - 대부분의 신규사업은 동해안 지역에서 제안된 것이며 이 중 한 사업은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이 공동으로 강원도 원산시 동명산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임.
- 세계식량계획이 운영하는 19개의 지방 식품생산공장은 8월 중 모두 가동됨으로써 계획 대비 103%의 실적을 올림.
 - 9월에는 일부 식품공장이 원료 조달에 차질이 생겨 가동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
- 9월 말 현재 세계식량계획은 42명의 국제 직원을 두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OCHA, DPR Korea: Situation bulletin - Aug - Sep 2005, Oct. 30, 2005)

-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개발 지원을 원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금년 말로 인도적 지원을 완료하라는 요청에 따라 개발 현재 북측과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얼마만큼 세계식량계획의 직원을 추방할 것이며 모니터링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놓고 양쪽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평양사무소의 레이건 소장

이 밝힘.

- 베이징에 있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레이건 소장은 로마에서 이틀 동안 협상을 하였지만 상주직원수, 지원규모,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해 양쪽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함.
- 북측은 11월에 평양에서 다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세계식량계획이 구상하고 있는 2006년 대북 지원 규모는 예년 수준인 50만 톤을 약간 밑돌 것으로 관측됨.
- 그러나 12월 중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평양에 있는 사무실을 포함하여 지방의 5개 사무소와 19개의 식품생산공장의 운영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세계식량계획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에 400만 톤의 식량(17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된 식량은 2,300만 명의 인구 중 650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분배됨.
 - 이러한 지원규모는 세계식량계획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기간에 있어서도 1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특별한 사업임.
- 개발 지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긴급인도적지원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업임.
 - 북한 사람들은 개발 지원에 대해 낯 설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개발 지원은 세계식량계획을 지원하는 원조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음.
 - 세계식량계획과의 협상 이외 제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원조자에게 개발지원계획을 납득시켜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음.
 - 북한과 같이 보안 문제에 민감하며 통제된 환경에서 유엔 직원이 상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은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레이건 소장은 밝힘.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FP, North Korea wants UN development assistance, not humanitarian aid: WFP, Oct. 31, 2005)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남북한은 북한의 식량위기 해소를 위하여 농업 분야 대화
 - 남북한은 북한의 식량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 분야 대화를 처음으로 개시함.
 - 양쪽의 농업전문가는 2005년 8월 18-19일 동안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를 개최

- 한국 대표는 공동영농, 묘목 제공, 기술협력 등 몇 가지 시범사업을 제안함.
- 이 같은 개발협력은 긴급식량 지원에 비해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는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됨.

○ 양일간 개최된 회의에서 총 7개 항에 대해 합의하고 남북한은 2006년 초부터 몇 가지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 북한의 몇 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공동영농사업을 추진
- 한국은 2006년 2~3월 경 영농철이 시작되면 북한에 비료, 농기계, 영농기술을 제공함.
- 북한은 농업기반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한국이 시설과 기술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나 한국은 시범영농사업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기를 원함.
- 북한은 금년 연말 결정될 시범농장에 한국 전문가나 기술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
- 남북한은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각각 양묘장을 조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한국은 북한에 육묘 생산 및 병해충종합방제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FP, Two Koreas talk agriculture in bid to ease North's food crisis, Aug. 18, 2005)

<http://www.reliefweb.int> (KOIS, Koreas: South-North joint farming to start early next year, Aug. 21, 2005)

□ 북한의 식량난 완화하는 감자사업

○ 중앙일보와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하여 오늘부터 3개월간 북한의 감자생산을 늘리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함.

- 월드비전은 2000년부터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감자생산을 늘리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음.
- 감자는 북한과 같이 서늘한 기후에 적합한 작물이며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작물에 비해 생육기간이 짧으며 단위면적당 수량도 많은 장점이 있음.
- 월드비전 관계자들은 감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1일 북한의 양강도 대흥단군을 방문하였으며 거기에는 2,000헥타의 밭에 감자가 재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월드비전의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김은각씨는 바이러스 없는 씨감자를 공급하기만 하면 북한의 감자 생산을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함.
- 김정일 위원장은 대흥단군의 감자재배를 시찰하기 위하여 1998년 이후 씨감자 생산 농장을 세 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감자 증산에 관심이 많음.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씨감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온실이 아닌 일반 포장에서 씨감자를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과학자와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JoongAng Daily, Potato project to ease North's food crisis, Sep. 1, 2005)

□ 미국의 새로운 북한인권 특사, 대북 식량지원을 인권과 연계할 듯

- 새로 임명된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량지원과 인권을 연계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음.
- 지난 달 임명된 레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첫 기자회견에서 인권과 대북 식량지원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힘.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FP, New US human rights envoy suggests food aid weapon against North Korea, Sep. 8, 2005).

□ 북한 당국, 국제기구의 직원이 평양을 떠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

- 북한 당국은 모든 국제기구의 직원들은 12월 31일까지 북한을 떠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12개 국제민간지원단체 가운데 하나인 Concern에 대해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하되 북한인 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한다면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Concern은 업무를 북한인 직원에게 넘기는 것은 Concern의 정책 및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함.
- Concern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사업을 북한인 직원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평양에 머물면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후원자는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 당국이 안다면 당국도 결정을 바꿀 것으로 안다고 밝힘.

자료 : <http://www.reliefweb.int> (Concern, DPR Korea: International aid agency staff formally asked to leave, Sep. 20, 2005)

□ 전북 남북농업협력사업단 방북

- 강현욱 전북 지사와 도내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북 남북농업협력사업단’은 북한과 농업협력 교류사업을 위해 10월 3일 북한 방문을 위해 출발
 - 강 지사 일행은 방북기간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과 동양물산이 북한과 공동 투자한 평안남도 강서군 농기계 공장 등을 둘러볼 계획임.
- 전북은 그 동안 황해남도과 평안남도에 콤파인, 경운기 등 농기계화 농기계 수리소 건설비, 못자리용 비닐 등 농자재 비용 17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평안남도 농기계공장에서 생산될 농기계 20여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임.

자료 : 연합뉴스, 전북 남북농업협력사업단 방북, 2005, 10. 3

□ 경기도 ‘평양시범농장’ 첫 수확

- 경기도는 지난 5월 북한과 공동으로 평양 인근에 조성한 벼농사 시범농장에서 첫 수확
 - 경기도 방북대표단 16명은 10월 5일 항공편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농업과학원 시범포전 3ha에서 북측 농업과학원 직원들과 공동으로 벼베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임.
 - 경기도는 지난 4월 북한과 벼농사 시범농장 운영을 합의하고 5월 18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 북한에 농업기술진을 보내 벼씨 파종과 농기자재의 제공, 영농기술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남북이 공동으로 수확하는 벼는 경기도가 심은 오대벼, 화동벼, 북한이 심은 올벼20호와 양덕1호 등 4개 품종이며 생육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10a당 484kg씩 총 14,500여 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경기도 방북단은 도가 지원한 평양시에 소재하는 연산 900톤 규모의 당면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임.

자료 : 연합뉴스, 경기도 ‘평양시범농장’ 첫 수확, 2005, 10. 3

□ 북한 당국, NGO 직원 축출

-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로부터 더 이상 식량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이후 북한에서 활동하는 12개의 국제민간지원단체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모든 직원은 평양을 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 : <http://www.reliefweb.int> (*The Chosun Ilbo, N.Korea chucks out NGO staff, Oct 6, 2005*)

□ 북한은 식량배급을 재개하였지만 배고픔은 여전히 존재

- 북한은 지난 두 달 동안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하나는 곡물의 사적인 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공공배급제도를 확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의 식량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것임.
 - 식량 생산이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은 한두 가지 채소나 조나 수수 같은 잡곡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임.
 - 공공배급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만 한 달에 20~30만 톤의 곡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저장시설, 수송수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배급제를 강화하는 것은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함.
 - 한 서방 외교관은 북한 당국은 지방의 주민이 중앙 통제에서 느슨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함.
 - 한국이나 중국에서 받은 양자간 지원은 식량분배에 대한 감시 요구가 아주 적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음.
 - 지난해 일반인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올해는 일과시간 이후의 차량 운행에 대해서도 새로이 제한을 가하고 외국의 외교관이 접속하는 전화와 국내 전화선을 분리하는 작업도 추진함으로써 외부 정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Reuters Foundation, North Korea revives handouts but hunger looms, Oct. 28, 2005*)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금년 6월 이후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특히 7~9월의 평균 기온은 22.9도, 22.9도, 18.5도로 평년에 비해 각각 1도, 0.5도, 1.5도 높은 수준이었음.
 - 이러한 고온현상은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음.
- 금년 6월 이후 평년에 비해 따뜻한 날이 지속되면서 여름에 수확한 작물의 생육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9월까지의 기온도 평년에 비해 높아 가을에 수확할 작물의 작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강수량

- 7월부터 9월까지의 전국 누적평균 강수량은 443.9mm로 평년의 522.8mm보다 78.9mm 적은 양의 강수를 보임.
 - 7월에는 신포, 함흥,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사리원, 용연 등 서해안 중부지방과 동해안 중부지방에 매우 적은 강수량을 보였으며, 여름장마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 8월에는 평년에 비해 약간 많은 양의 강수를 보였음. 특히 삼지연, 신의주, 김책, 수봉 등 북부내륙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었지만 비로 인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 9월에는 구성, 양덕, 평양, 신계, 개성, 평강 등 일부 중부내륙 지방에 많은 강수량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평년에 비해 적은 강수량을 나타냈음.
- 6월 이후 9월까지 높은 기온이 계속되었으며, 강수량도 적고 장마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벼와 옥수수의 성장과 등숙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금년 가을에 수확할 벼와 옥수수는 대풍을 거둘 것으로 전망됨.

□ 누적강수량, 7~9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335.4 (375.5)	569.4 (429.6)	295.1 (304.9)	345.0 (365.3)	309.0 (304.6)	452.0 (432.5)	119.8 (358.1)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288.9 (327.9)	471.0 (536.6)	277.7 (393.9)	562.8 (538.6)	528.8 (699.5)	415.9 (690.9)	232.3 (466.0)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고성
296.4 (414.2)	434.7 (610.7)	444.3 (568.4)	586.4 (747.4)	490.6 (503.0)	319.9 (497.3)	805.0 (784.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339.4 (536.6)	639.7 (658.5)	322.8 (530.1)	552.1 (600.7)	820.3 (687.4)	731.9 (753.4)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C(기온), mm(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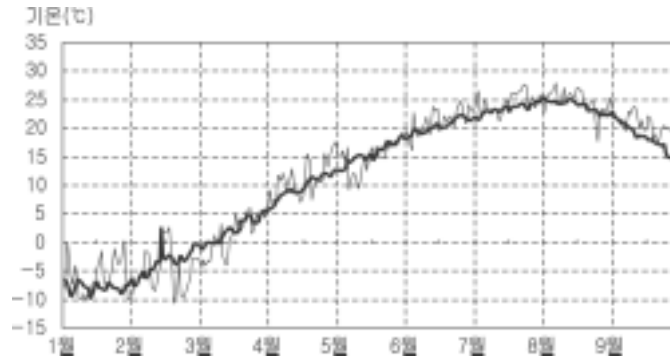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7월	기 온	24.6 (23.5)	25.1 (24.0)	24.3 (23.4)	20.0 (19.9)	23.3 (22.1)	24.2 (22.5)
	강수량	110.5 (296.9)	72.7 (243.5)	271.0 (263.5)	129.9 (111.3)	66.0 (193.1)	144.0 (261.0)
8월	기 온	24.5 (23.9)	24.5 (24.1)	24.7 (24.5)	22.5 (21.7)	24.1 (22.8)	25.1 (23.2)
	강수량	245.1 (214.6)	244.6 (176.4)	224.0 (214.0)	115.8 (128.8)	129.2 (177.7)	287.1 (286.8)
9월	기 온	20.6 (18.4)	20.4 (18.8)	21.4 (20.0)	18.6 (17.5)	19.4 (18.1)	19.9 (18.8)
	강수량	79.1 (99.2)	173.3 (83.1)	57.1 (123.2)	49.4 (64.8)	37.1 (95.2)	155.3 (199.6)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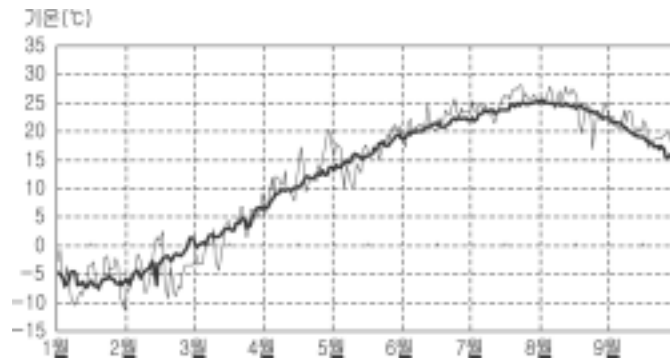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고성,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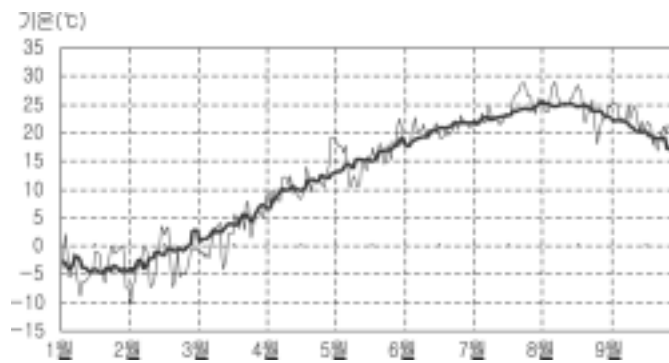
안주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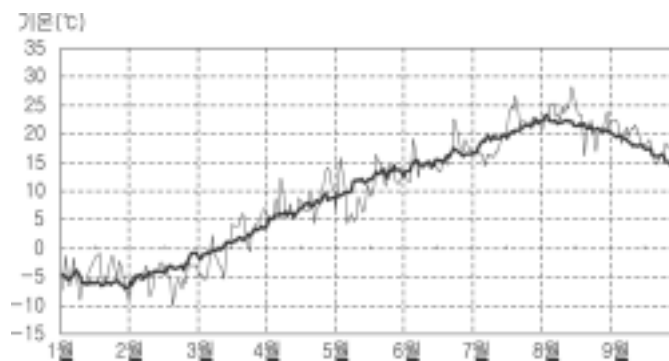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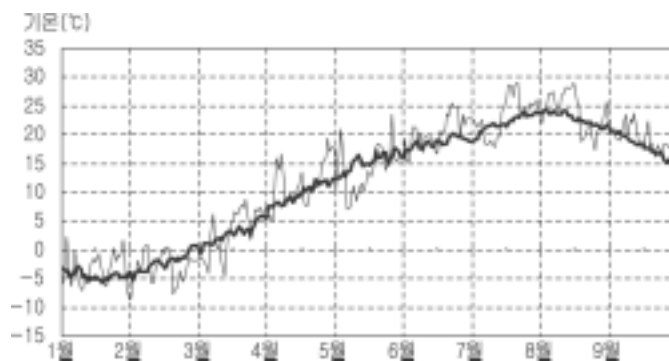


— 평년 기온 — 2005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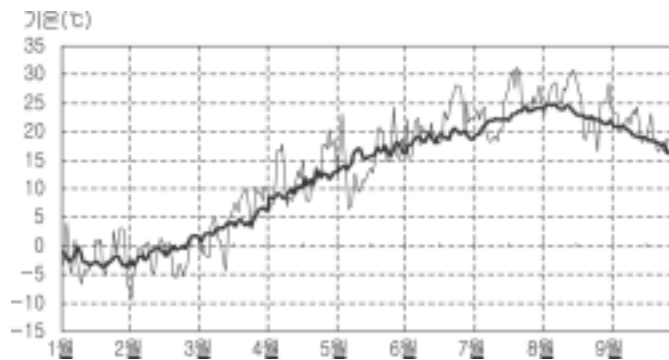
청진



함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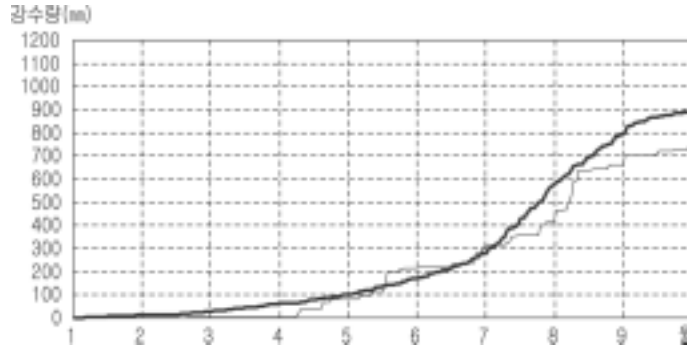
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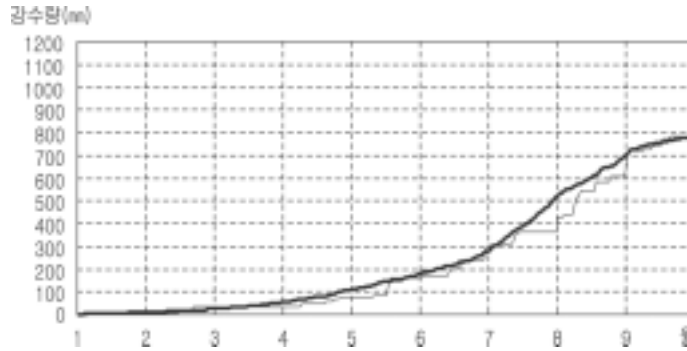
— 평년 기온 — 2005년 기온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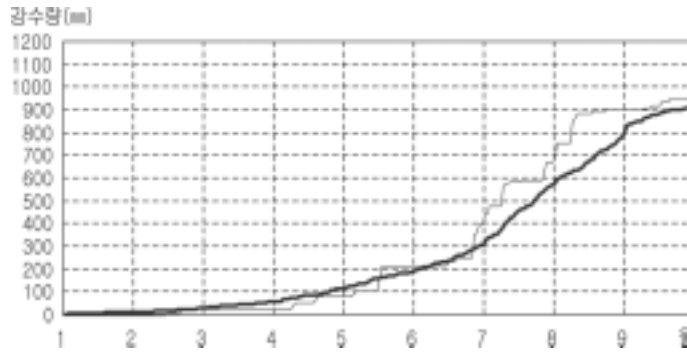
안주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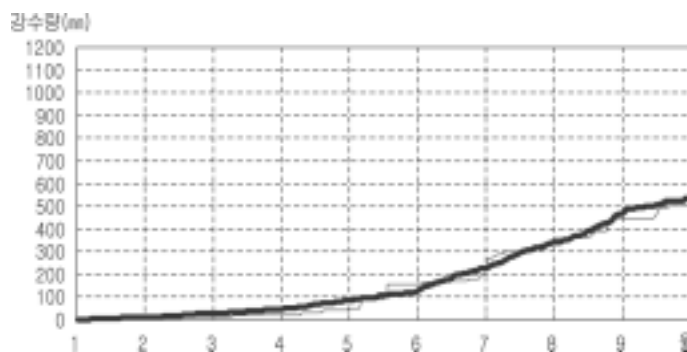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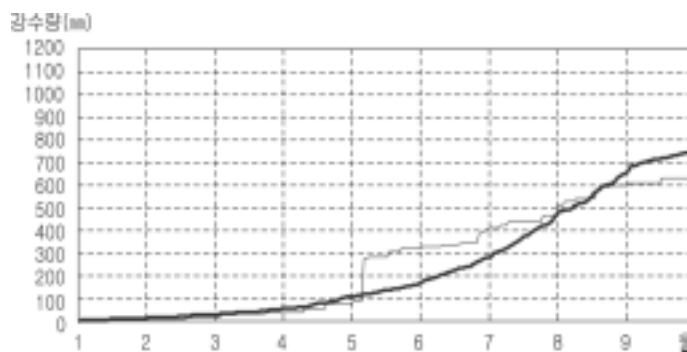


— 평년 강수량 - - - 2005년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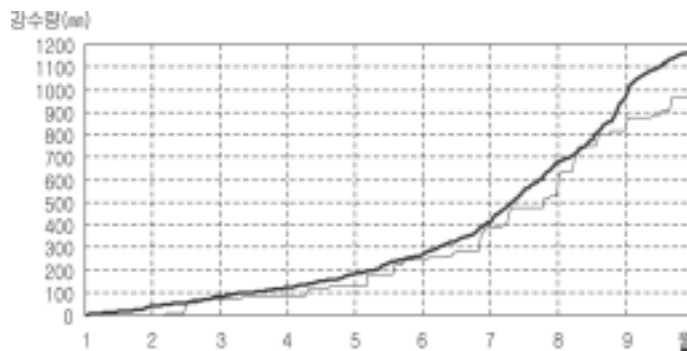
청진



함흥



원산



— 평균 강수량 — 2005년 강수량

M46-7-3 KREI 북한농업동향 제7권 제3호

찍 은 날 2005. 10. 펴낸날 2005. 10.
발 행 인 최 정 섭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